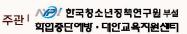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

일시: '18. 11. 26.(월) 9:30 ~ 17:3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입니다.

오늘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라는 주제로 학업 중단예방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먼 길을 찾아와 주신 John Hogan, Eileen Shannon, Jackie Addison, Nick Morgan, Kirsten Mann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발표를 맡아주신 이종태 교육연구소장님, 본원 윤철경 박사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류방란, 최영렬 박사님, 김영준 부대표님, 김태식 장학관님, 이정희 선생님, 하태욱 교수님, 이경원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김성기 교수님과 본원의 오해섭, 황세영 박사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취학률과 진학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학업중단율은 초등교육 0.5%, 중학교 0.7%, 고등학교 1.5%로 사실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에서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는 남아 있으나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의 개편부터 학교와 교실의 개선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업중단예방에 관심을 갖고, 주요 현안 및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와 직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도록 교육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학교의 노력도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교육체계의 변화가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당국자는 해법을 찾고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온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위기학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발전 방안,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보장 등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포럼에 실제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정책 관계자가 함께 하신 만큼 위기 학생들을 돕는 학업중단예방 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병국**

Opening Address

Hello everyone,

My name is Byeong-kug Song,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oday, I am very pleased to host the International Forum on the issue of "The Global Trends and Prospects on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Dropouts: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I would first like to extend my heartfelt welcome and thanks to all guests at the forum. Also, special thanks to John Hogan, Eileen Shannon, Jackie Addison, Nick Morgan, and Kirsten Mann for coming so far from Ireland, the United Kingdom, and Scotland. I would also like to thank Jong Tae Lee, the director of 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in Korea and Dr. Chul-Kyung Yoon for taking part in Korean presentation, and Dr. Bang-Ran Ryu, Dr. Young-Ryul Choi, Vice President Young-Jun Kim, Senior Superviser Tae Sig Kim, Tch. Jung-Hee Lee, Prof. Tae Wook Ha, and Tch. Kyoung Won Lee for participating as a panel. And finally, I thank Prof. Kim Sung-Ki, who will preside over today's forum, and Dr. Hae-Sub Oh, Dr. Se-Young Hwang, and Dr. Min-Sang Yoo of our Institute.

No doubt, South Korea has high school entrance and attendance rate. The drop out rate of 0.5% for elementary school, 0.7% for middle school, and 1.5% for high school is considered relatively low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Yet the reason we're still concerned about such issue is that, there are too many lethargic students due to college-oriented education system. In this sense, students may be staying in school, but many of them have already given up on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 right education for students and ultimately prevent adolescent dropouts, we need every bit of effort to change educational system and its environment. I believe it is time to give our fullest attention to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dropout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rough in-depth discussions on key issues and problems.

Today, educational change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help students continue

with their studies and find appropriate career. Such change means not only

individual effort made by each school, but also fundamental adjustment in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Every student has the right to receive appropriate education that

can develop their potential to the fullest extent. For this cause, school, local

community, and educational authorities must seek for applicable solutions together.

In this forum, experts from Ireland, the United Kingdom, Scotland and South

Korea, who have been making these efforts, gathered together. Through this forum,

I hope that there will be sufficient discussions on how to prevent adolescent dropouts

and ensur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by understanding recent trends

and sharing various cases on this specific issue. Also, considering that teachers and

educational authorities who work in the relevant fields are here with us at the forum,

I believe very practical discussions would be made on the prevention of youth

dropouts.

And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all member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preparing this forum.

Thank you.

November 26. 2018

The Presiden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Byeong-kug Song

축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정인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대안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교육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과 이하 임직원들, 그리고 한국 대안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먼 길을 와 주신 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대안교육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보다 앞서 대안교육을 도입한 다양한 국가의 대안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대안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8년도부터 공교육 현장에서의 학생부적응 문제에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과 설비기준을 정하는 등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고자 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철학 아래 학계전문가, 학교현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지원학교 내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모듈 개발 대안교육 위탁교육제도 연구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들께서는 일찍부터 대안교육의 여러 형태와 운영에 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다양한 대안교육의 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다수 길러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는 우리에게 대안교육에 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대안교육 현장의 성장을 돕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 역시 본 포럼을 통해 국내·외 대안교육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예방정책과 대안교육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교육부학생지원국장 정인순

Congratulatory Address

Hello, everyone, I am Inn-Soon Jung, the Director General of Student Support Bureau of Ministry of Education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 want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attending the International Forum on Alternative Education with a deep interest and passion.

Special thank you to Byeong-kug Song, the president of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the employees. Also, I would like to thank and welcome alternative education experts from and the UK and Ireland who have come a long way to help develop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Today, this forum is held to discuss various new approaches to students who are at high risk for the interruption in education. This will be done by sharing practice cases for alternative education in various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lternative education before us, and to find ways to develop alternative education.

Since 1998,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comple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chievements for over 20 years, beginn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six specialized high schools in alternative education in order to cope with student maladjustment problems in the public education field and meet various educational needs.

In order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who want to stop studying or to receive education tailored t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Law on Secondary Education was amended in 2005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alternative schools. In 2007, we establish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for alternative schools and set the standards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As a result we have continued to push forward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ublic alternative schools, alternative classroom

operation programs module development in schools that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 and consigned education systems are

expanding its scope through various policies.

We understand that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have been thinking and

researching the various forms and operations of alternative education since early on,

and have developed a number of talented people through various alternative

education attempts.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also actively communicate with domestic and foreign

alternative education officials through this forum and will consider various preventive

policies and alternative educational directions for students who are in crisis.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has worked hard for this event today

and wish you all the health and happiness with your family.

Thank you.

November 26. 2018

The Director General of Student Support Bureau, Ministry of Education

Inn-Soon Jung

프 로 그 램

11 76	내용		
시 간 09:30-10:00 [30']	3		
07:30-10:00 [30]	 등록 개회 사회: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0:00-10:10 [10']	■ 개 회 사회: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개회사 및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축 사 전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제1세션.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좌장: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 1-1.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Contrasting Greater Student Choice with Less Dropping Out of School)		
	John Hogan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 1-2.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교육기회 보장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10:10-12:20 [130']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 1-3. 대안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 방안		
	(Institu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질의응답		
	■ 시영도본 / 실의등급 토론자: 1-1.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2. 최영렬 한국직업등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3. 김영준 대안교육연대 부대표		
10.00.10.10.10.10.1			
12:20-13:40 [80']	중 식		
	제2세션.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좌장: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 2-1. 초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학생지원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와의 파트너십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chools to Intervene Early to Support Pupils)		
	Eileen Shannon Victoria Drive PRU, Head Teacher		
13:40-15:20 [100']	■ 2-2. 중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프란시스 바버		
	(Francis Barber PRU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Jackie Addison Francis Barber PRU, Head Teacher ■ 지정토론 / 질의응답		
	토론자: 2-1. 김태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2-2. 이정희 인천해밀학교 교사		
15:20-15:40 [20']	휴 식		
	제3세션.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좌장: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3-1. 조기 학업중단 예방: 스코틀랜드의 접근을 중심으로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Education Scotland,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15:40-17:20 [100']	■ 3-2. 스코틀랜드 학교의 돌봄정책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urtureuk, National Training Officer		
	■ 지정토론 / 질의응답		
	토론자: 3-1.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3-2. 이경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17:20~17:30 [10']	<u> </u>		
	9 1		

Program

Time	Program			
09:30-10:00 [30']	■ Registration			
10:00-10:10 [10']	■ Opening Moderator: Min-sang Yoo Assistant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pening Address I Byeong-kug Song Presiden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ngratulatory Address I Inn-Soon Jung Director General of Student Support Bureau, Ministry of Education			
	Session I. Connecting the Various Parts of Education System			
	Chair: Hae-Sub Oh Director, Youth Activities & Participation Research Offic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1. Contrasting Greater Student Choice with Less Dropping Out of School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10:10-12:20 [130']	■ 1-2.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Chul-Kyung Yoon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3. Institu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Jong Tae Lee Director, ERICK(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in Korea)			
	■ Discussion / Q&A Panel: 1–1. Bang-Ran Ry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anel: 1–2. Young-Ryul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Panel: 1–3. Young-Jun Kim Vice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of Korea Alternative Education			
12:20-13:40 [80']	Lunch			
	Session II. Practices of School Dropout Prevention through Pupil Referral			
	Chair: Sung Ki Kim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10 /0 15 00 [400]	■ 2-1.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chools to Intervene Early to Support Pupils Eileen Shannon Head Teacher, Victoria Drive PRU			
13:40-15:20 [100']	■ 2-2. Francis Barber PRU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 Discussion / Q&A Panel: 2-1.Tae Sig Kim Senior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anel: 2-2. Jung Hee Lee Teacher, Incheon Haemil School			
15:20-15:40 [20']	Break			
	Session III. Practices of School Dropout Prevention by Innovating Schools			
	Chair: Se-young Hwang Assistant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E /0 17 20 [100]	 3-1.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15:40-17:20 [100']	 3-2.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euk 			
	■ Discussion / Q&A Panel: 3-1.Tae Wook Ha Professor, Asia LIFE University Panel: 3-2. Kyoung Won Lee Teacher, Jinbu High School			
17:20~17:30 [10']	Closing			

개요 I Overview

주 제 Theme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 International Trend and Prospect on School Drop-out Prevention: Communication and Connections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s
일 시 Date	■ 2018. 11. 26.(월) 9:30 ~ 17:30 November 26(Mon), 2018 9:30AM ~ 17:30PM
장 소 Venue	■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20F), Press Center, Seoul, Korea
주 최 Hosted by	교육부
주 관 Sponsored by	○ 한국청소년 장책연구원 부설 학입중단에방 - 대인교육지원센터

목 차 I Contents

제1	세션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Session I. Connecting the Various Parts of Education System
1.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3 Contrasting Greater Student Choice with Less Dropping Out of School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2.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교육기회 보장
3.	대안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 방안
4.	지정토론 / 질의응답
제2	세션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Session II. Practices of School Dropout Prevention through Pupil Referral
1.	초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학생지원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와의 파트너십 ····································
2.	중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프란시스 바버 213 Francis Barber PRU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3.	지정토론 / 질의응답 231 Discussion / Q&A 김태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Tae Sig Kim Senior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이정희 인천해밀학교 교사 Jung Hee Lee Teacher, Incheon Haemil School

제3세션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Session III. Practices of School Dropout Prevention by Innovating Schools

1.	조기 학업중단 예방: 스코틀랜드의 접근을 중심으로 2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Education Scotland,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51
2.	스코틀랜드 학교의 돌봄정책2	79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urtureuk, National Training Officer	
3.	지정토론 / 질의응답3	05
	Discussion / Q&A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Tae Wook Ha Professor, Asia LIFE University	
	이경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Kyoung Won Lee Teacher, Jinbu High School	

제 1 세션

Session I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Connecting the Various Parts of Education System

좌장: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Chair: Hae-Sub Oh Director, Youth Activities & Participation Research Offic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Contrasting Greater Student Choice with Less Dropping Out of School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교육기회 보장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Chul-Kyung Yoon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대안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 방안

Institu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Jong Tae Lee Director, ERICK(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in Korea

지정토론 / 질의응답 Discussion / Q&A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Bang-Ran Ry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Young-Ryul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김영준 대안교육연대 부대표

Young-Jun Kim Vice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of Korea Alternative Education

◆ 제1세션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Contrasting Greater Student Choice with Less Dropping Out of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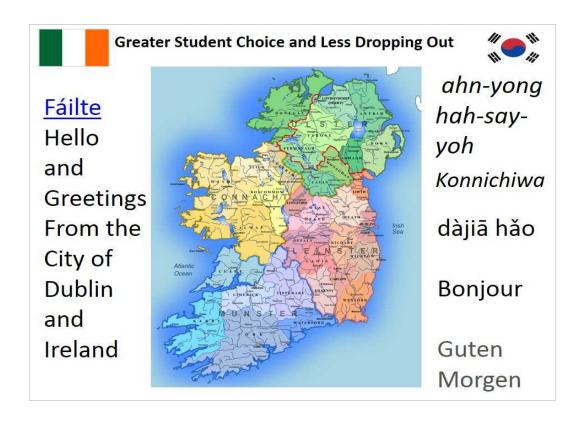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Contrasting Greater Student Choice with Less Dropping Out of School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Relationships Between Ireland and the Asian Countries Continue to Grow as Follows:

- · The Diplomatic Corps'
- Trade Agreements
- Missionary Work
- Peace Keeping
- Tourism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Ongoing Partnership Work Between Ireland and Republic of Korea

Focus of Work ---- Sharing Good Practice Partners:



- 1.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Ireland
- 2. Irish Government and Ministry for Education Ireland
- 3.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Our Presentation is Designed to Open a Window Into the Education System in

Ireland ----

We Want to Give You The Story of How We are Trying to Make **Our Education System**



Better and More Suitable for Multi Talented Students --- We want Each Student Known to Their Teachers for their Individual Talents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Capturing the Story

Ensuring Equal Education Opportunities by School Curricula Innovation



- The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in Ireland
- Constructing the Education System to Ensur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Connect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s**
-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 Panel Discussion





Some Requirements of Supporting Multi-Talented Students

1. Understand Nature and the Psychology of Children



- 2. Integrate Culture with Education
- 3. Bring the Philosophy and The Work of the School to Parents with the Students in the Centre
- 4. Implement National Programmes with Multiple Options for Students
- 5. Employ Teachers Capable of Building Relationships





- Some of the Chapters in Our Story
- The City of Dublin as Enjoyed by our School Communities

 Government Buildings
- The Philosophy and Psyschology of Education



-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Our Culture
- The Irish Constitution and the Ministry for Education
- The Individuality of Our Students
- The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 Capturing Individuality
- Connect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s
-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The City of Dublin

Our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Catering for All Public Education—
Our Chief Executive Ms Carol Hanney with
Dr.Teerakiat Jareonsettasin Minister for
Education in Thailand



- 1. 23 Schools Catering for Levels 3/4/5/6 NFQ
- 2. 10 Second Chance Education Centres
- 3. Education Service to the Prisons
- 4. Comprehensive Adult Education Programmes
- 5. Comprehensive Youth Services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The City Where we Live Struggle Plan and Develop the Programmes for Education







O'Connell Bridge Dubli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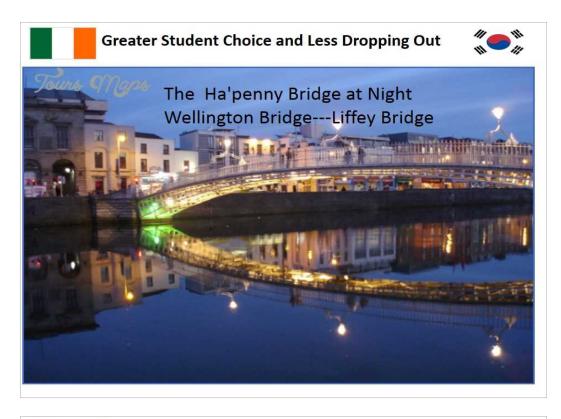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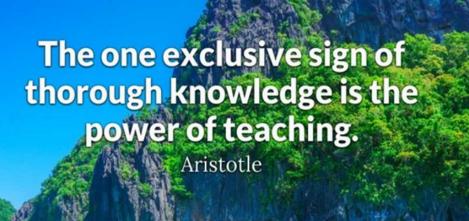
Understand Nature And The Psychology of Children







Aristotle - The Greek Philosopher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Dr. William Glasser (May 11, 1925 – August 23, 2013) The <u>American Psychiatrist</u>



We learn... 10% of what we read 20% of what we hear 30% of what we see 50% of what we both hear and see 70% of what is discussed 80% of what we experience personally 95% of what we teach to someone else

— William Glasser —

AZ QUOTES

Education is the process in which we discover that learning adds quality to our lives. Learning must be experienced.





Definition of Education

Education is the action or process of being educated With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Lev Vygotsky, the child psychologist asserts that learning is relational, and that language/conversation is central to the relational aspects of learning.



Vygotsky highlights the role of community and how that facilitates the learning process----

It takes a Village to Rear a Child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Role of Community and Culture







The Role of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Where we Support Students To Learn Values, Knowledge and Skills which Enables Them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Family, School and the Community.



With the Correct Conditions this kind of learning is passed on to Children Directly by their Parents and Teachers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The Philosophy of Martin Buber and his idea that consciousness itself only arises through Relationships.

Buber understood that the Social Framework of Teaching is fundamental to How We Learn and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in general.

Buber was an early proponent of the idea that the best way to teach student is to see him or her as the Whole, Complex, and Empathetic Human Being.





Irish Culture --- Gaelic Football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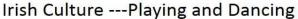


Irish Culture --- Hurling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Working in Partnership

The Government----

The Ministry for Education -



The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All Working to Bring Greater Choice for Students and Less Dropping Out







Ministry for Education and Skills in Ireland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The Irish Constitution and Parents

The <u>Irish Constitution</u> states that parent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ducating their child and it guarantees the parents' right and duty to provid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It also says that the State requires that children receive 'a certain minimum education'.

Under the Education (Welfare) Act 2000
Parents must make sure that their
children receive a certain minimum
education from
the age of 6 to the age of 16.
Home Education is Another Opti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The Two Year Pre-school Programme if Funded by the Government for Children in the 3 to 6 Year Group and Provided by Private Enterprise

The Government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Provide Childcare Committees to assist Parents with Childcare Matters in their Local Region.

Parents learn about the Service and available Supports by speaking with their Local Childcare Committee.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arents should expect that their child should be safe, well-cared for and happy in a childcare service.

Parents should expect the following from this service:

- Quality of Service.
- · Quality Management & Staffing
- Maximum Safety
- · Quality of Care
- Comfortable Premises
- Modern Equipment



Overall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rovider is intended to Provide and Extension of a
Happy and Caring Family Environment





Primary Education in Ireland

General Age Group is From 4 Years to 12 Years (8 Years)

Each Year Each Student Group Will have Only One Teacher



The general aims of primary education are:

- 1. To enable the child to live a full life as a child and to realise his or her potential as a unique individual
- 2. To enable the child to develop as a social being through living and co-operating with others and so contribute to the good of society
- 3. To prepare the child for a continuum of learning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Primary Education in Ireland

The curriculum is divided into the key areas:

Language – Irish and English Mathematics



Social, Environment and Scientific Education

Arts Education, including Visual Arts, Music and Drama Physic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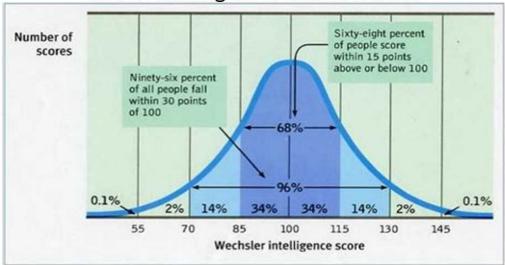
Social, Personal and Health

We have Learning Support Teachers and Special Needs Assistants to work with the Class Teachers to Suppor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Disabilities





Understanding Intellectual Abilities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School Completion Programme (SCP)----Selected Schools

- Deliver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Selected Disadvantaged Schools.
- Keeping young people in primary and Second level school to complete the Junior and Senior National Programme



- 470 Primary and 224 Post-primary Schools Selected
- There are 124 Projects employing 248 full-time, 627 part-time and 2,211 sessional and other staff.
- Each of the 124 Projects is led by a Management Committee Re---
- School principals, HSCL co-ordinators, Parents and Voluntary and Statutory agencies.
- National leadership team Representing the Government's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of the Child and Family Agency





Home School Community Liaison Scheme

Selected Schools with Selected Members of Staff

- It is a major, mainstream, preventative strategy
- It is targeting pupils at risk
 of not reaching their potential in the educational system
- It focuses directly on the salient adults in children's educational lives.
- It Supports Parents to support the children's attendance, participation and retention in the education system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



Post Primary Education/Second Level Education in Ireland

The General Age Groups Consists of 13 to 18/19 Years

The Sector Comprises of (1) Secondary (2) Vocational, (3) Community and (4) Comprehensive Schools.

- Secondary Schools a Semi-Private
 Arrangement with the Government
- Vocational Schools---- Education and Training Boards (ETB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 Both Community and Comprehensive schools are Managed by Boards of Management of Differing Composition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Post-primary Education Consists of 5 or 6 Years.

Choice of Two ----Three-year Junior Cycle (Lower Secondary) Programmes with Broad Range of Subjects (10-12) with Choice of Levels.

Choice of a One Year Transition
Programme with Variety of
Academic and Vocational Subjects
as including Work Based Learning Opportunities

Choice of Three ----Two Year Senior Cycle (Upper Secondary) Programmes with Broad Range of Subjects (7-8) with Choice of Academic Levels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Key Student Support Services

- School Care Teams Key Members of Staff
- Class Group Tutors, Year Heads
- Visiting Psychologist
- · Guidance Counsellor -
- Member of School Staff
- Home School Community -- a Member of School Staff
- School Completion Programme a Member of School Staff
- Learning Support Teacher -- a Member of School Staff
- Special Needs Assistant -- a Member of School Staff
- Transfer to Second Chance Education Centres (14 to 19 Years) with Alternative National Program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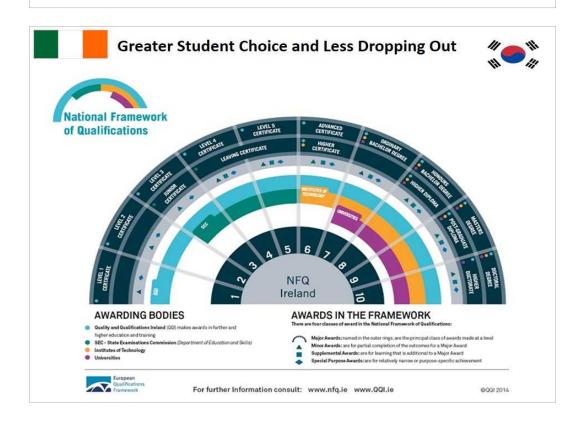
Third Level and Further Education ---- Post Senior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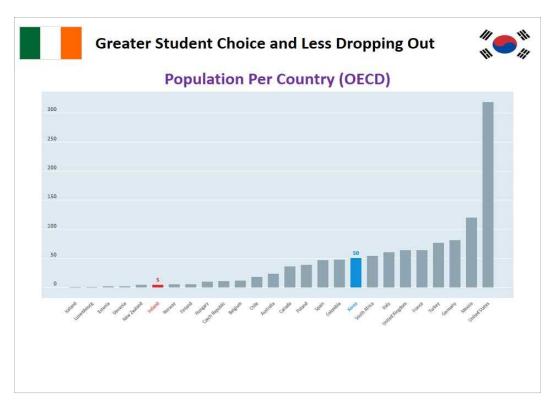
QQI Levels 3, 4, 5 and 6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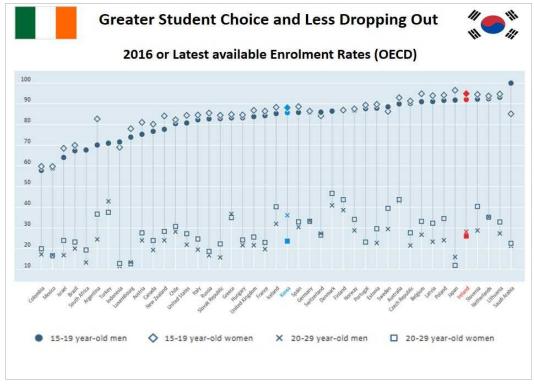
QQI Levels 6 to 10 Delivered by Institutes of Technology

QQI Levels 7 to 10 Delivered by Universities

QQI As Representing the Government Facilitates a Ladder of Progression for Students in Both Directions









Government Funding Per Student Per Level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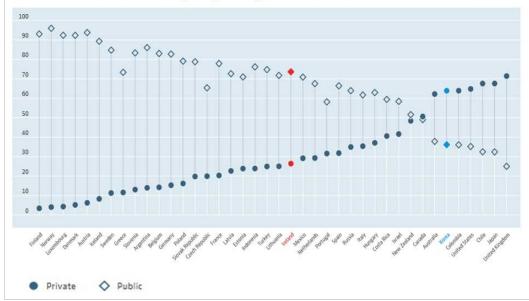
Year	Primary	Second Level	Third Level	
2014	6,005	8,115	7,591	
OECD Average	7,300	8,500	10,600	
2015	6,295	8,257	7,576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Distribution of Funding Regarding Public and Private Provi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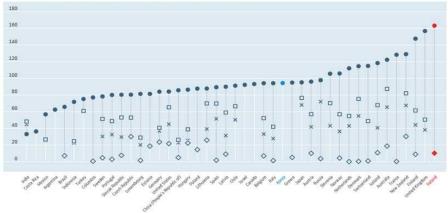
		Number of years for which at least 90% of the population of school age are enrolled	Age range at which at least 90% of the population of school age are enrolled	Ages 5 to 14	Ages 15 to 19
5523 -5597 19		1	2	3	4
OECD	, ,				
Australia		14	4-17	100	91
Austria		12	4-15	98	78
Belgium		16	3-18	98	93
Canada	1	12	5-16	100	78
Chile		13	5-17	98	81
Czech Republic		14	4-17	98	91
Denmark		16	2-17	99	86
Estonia		14	4-17	97	89
Finland		13	6-18	97	87
France		15	3-17	99	85
Germany		15	3-17	98	86
Greece		13	5-17	97	84
Hungary		13	4-16	96	84
lceland		15	2-16	99	87
Ireland		14	4-17	100	93
Israel	1	15	3-17	97	66
Italy		15	3-17	98	83
Japan	2	14	4-17	100	m
Korea		14	3-17	97	87
Latvia		15	4-18	98	92
Luxembourg		13	4-16	97	76
Mexico		11	4-14	100	59
Netherlands		14	4-17	100	93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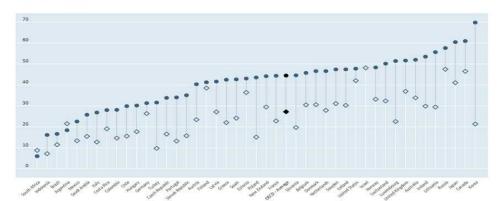
.... Graduation Rate -- Upper secondary / Post-secondary non-tertiary / Tertiary, men / Tertiary, women, Percentage, 2016 or latest available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25-34 year-olds / 55-64 year-olds, % in same age group, 2017 or latest available data..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Essential Ingredients of Education Systems for Helping Young People to Finish their Formal Education

- 1. Support Partners in Education to Establish and Develop Happy Family Environment
- 2. Combine Culture Re-Sports/Music/Dance with Education
- 3. Train Teachers to deal with Students as whole, complex, and empathetic human being within Professional Relationships
- 4. Build School and Family Working Partnerships
- 5. Design and Develop Programmes to Facilitate all Levels of Intellectual Abilities





We have a Final Message from Ireland and Before this Message I wish to THANK YOU for Being a Nice and Friendly Audience 감사합니다 (gamsahamnida)

arigatô (ah-ree-GAH-toh)
děkuji (Dyekooyi
tak (tahg)
dank u
tänan (TA-nahn)

kiitos (KEE-tohss) merci dank



Greater Student Choice and Less Dropping Out



Our Final Message Please Click on the Website Below

https://www.youtube.com/watch?v=U8
KW-rdM0EM&feature=youtu.be

John Hogan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In 1967 John Hogan entered the Residential Teaching Training College for Teachers of Technology on Scholarship.

Following Graduation from the Training College in 1969 John was appointed as a Permanent Wholetime Teacher with the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CDETB)

The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CDETB)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 Public Education in the City of Dublin and especially the requirements of Students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with potential to Drop Out of School.

The Retention of Students until the Age of 18 Years is a Priority in Ireland and CDETB where the achievement of Public Examinations can bring Access to Further Education And/Or Employment.

John is now Manager of the CDETB International Desk which Supports Ms. Carol Hanney the Chief Executive with Mr. Blake Hodkinson Director of Further Education & Training for CDETB and there Members of Senior Management including School/College Principals in the area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Leading to Working Partnerships on a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아일랜드와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함

- 외교적 회사들
- 무역 협약
- 선교사업
- 평화 유지
- 관광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아일랜드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작업

목적---- 좋은 사례 공유

파트너:

- 1. 주한 아일랜드 대사
- 2. 아일랜드 정부와
- 아일랜드 교육부
- 3. 제주특별 자치도 및
- 더블린시 교육훈련위원회











본 발표의 목적: 아일랜드의 교육 시스템을

알리는 창으로써의 발표

다재능의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우리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함



• 각각의 학생들의 개별적 재능을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함.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내용

• 학교 교육과정혁신을 통한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



- 아일랜드의 국가 자격 체계(NFQ)
- 학교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 대안 교육의 제도화
- 패널 토론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다재능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 사항

- 1. 아동의 본성과 심리 이해
- 2. 문화와 교육의 통합



- 3. 학생을 중점에 둔 학교의 철학 과 결과물을 학부모에게 보여줌
- 4. 학생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갖춘 국가 프로그램 실시
- 5.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사 채용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주요발표내용
- 학교공동체가 즐거운 더블린 시
- 철학과 교육 심리학
- 교육과 우리 문화의 관계
- 아일랜드 헌법과 교육부
- 아일랜드 학생들의 개성
- 국가 자격 체계(NFQ) 및 학생의 개성 파악
- 학교 내부와 외부 연결
- 대안 교육의 제도화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더블린 시-모든 공교육을 담당하는 더블린 교육 및 훈련위원회 최고 경영자 Carol Hanney와

Dr. Teerakiat Jareonsettasin 태국 교육부 장관

- 1. 3/4/5/6 레벨의 NFQ를 담당하는 23개의 학교
- 2. 10개의 두번째 기회 교육 센터
- 3. 교도소 교육 서비스
- 4. 종합 성인 교육 프로그램
- 5. 종합 청소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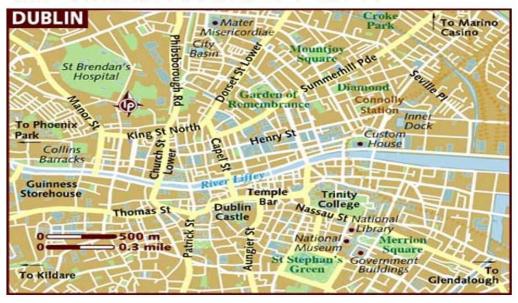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더블린교육 및 훈련위원회에서 개발 및 담당하고 있는 지역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더블린시 오코넬 다리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아동의 본성과 심리 이해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아리스토텔레스 - 그리스 철학자

The one exclusive sign of thorough knowledge is the power of teaching.

Aristotle

완전한 지식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한 증거는 가르치는 능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William Glasser 박사 (1925 년 5월 11일 - 2013년 8월 23일) 미국 정신과 의사



우리는 배운다... 우리가 읽는 것의 10%, 듣는 것의 20%, 보는 것의 30%, 보고 듣는 것의 50%, 토론하는 것의 70%,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80%,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의 95%를 학습한다.

윌리엄 글래서

AZ QUOTES

교육은 학습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학습은 반드시 경험되어야 한다.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교육의 정의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으로 교육받는 행동이나 과정이다.

아동심리학자 비고츠키는 학습은 관계적이라고 주장. 또한 언어와 대화는 이런 관계적 학습의 중심.



비고츠키는 지역 사회의 역할과 그것이 학습 과정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를 강조함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지역 사회와 문화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과 사회적 개발

학생들이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



효과적으로 가족과, 학교, 공동체에 기여함.

올바른 조건 아래 이루어지는 이런 종류의 학습은 부모와 교사에 의해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됨.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의식 자체는 관계를 통해서만 생긴다는 마틴 부버 (Martin Buber)의 철학과 아이디어.

부버는 **가르침의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가 **배우는 방식**과 **인간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생각.

학생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전체적이고 복합적이고 공감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 선구자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아일랜드 문화 --- 게일릭 풋볼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아일랜드 문화 --- 헐링(하키 비슷한 아일랜드 구기 종목)







아일랜드 문화--- 놀기 및 춤추기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파트너쉽으로 일하기

정부---

교육부---



더블린 교육 및 훈련 위원회

학생들과 그들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협력







아일랜드 교육기술부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아일랜드 헌법 및 학부모

아일랜드 헌법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보며, 부모의 자녀 교육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 주정부는 또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명시함.

교육(복지) 법률 2000 하에서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6세~16세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홈스쿨은 또 다른 선택.









조기 보육 및 교육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사기업에서 지원하는 2년의 예비학교프로그램

정부의 아동청소년부에서는 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 문제가 있는 부모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

학부모는 지역보육위원회를 통하여 가능한 서비스 및 지원 정보를 제공받음.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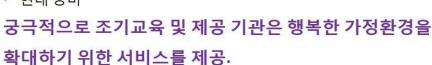


조기 보육 및 교육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학부모들이 이 서비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 서비스 품질
- 품질 관리 및 인력 채용
- 최대의 안전성
- 관리의 질
- 편안한 부지
- 현대 장비











아일랜드 초등 교육

대체적으로 4세에서 12세까지 (8년)의 학생들 대상



매년 한 명의 교사가 하나의 교실을 담당

초등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 1. 학생들이 그들의 온전한 삶을 살고 독특한 인격체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 2. 학생들이 타인과 더불어 살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훈련 받고 사회의 선을 위해 기여하게 하는 것
- 3.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아일랜드 초등 교육

커리큘럼은 다음의 주요 분야로 나뉘어 짐: 언어 – 아일랜드어 및 영어

수학

사회, 환경 및 과학 교육,

시각 예술, 드라마,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육

체육

사회 및 개인 보건,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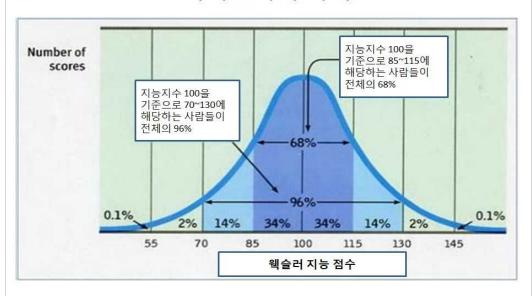


장애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담임교사와 함께 학습지원교사와 특수지원보조원이 함께 일하고 있음.





지적능력의 이해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학교 수료 프로그램 (SCP) ---- 선정된 학교들

- 선정된 빈곤한 학교에 기회 균등을 제공
- 초등, 중등학교 학생들이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함



- 470개 초등 학교 및 224개 중등학교가 선정됨
- 248개의 전일, 627개 파트타임 근무 및 2,211 명의 계절별 근무 및 다른 형태의 근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124개 프로젝트가 있음
- 각 124개 프로젝트는 관리위원회 에서 관리함
- 학교장, HSCL 코디네이터, 학부모 및 자원 봉사 및 법정 기관
-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교육 복지 서비스를 대표하는 국가적 지도부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가정 학교 공동체 연결 체계

엄선된 직원과 함께 엄선된 학교들

- 주요 학업중단예방전략
- 교육 시스템에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목표로 함



- 아동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교육 시스템 안 아동의 출석,참여,학습들을 돕도록 학부모들을 지원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아일랜드의 중등교육 13세에서 18/19세의 학생들로 구성됨

이 부문은 (1) 중등 학교 (2) 직업 학교, (3) 지역 사회 및 (4) 종합 학교로 구성됨



- 중등 학교---- 정부 및 민간에 의한 운영
- 직업 학교 ----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 훈련 위원회 (ETBs)
- 지역 사회와 종합 학교 모두 정부를 대표하는 다양한 대표들로 구성된 관리이사회에 의해 관리됨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중등 교육은 5년 또는 6년 과정으로 구성됨

선택 2--- 다양한 교과목 및 레벨로 구성된 3년의 중학교 과정

1년 간의 전화기 프로그램-실제 작업에 기반한 다양한 학업, 직업적 교과목



선택 3--- 다양한 과목 및 레벨로 구성된 2년의 고등학교 과정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핵심 학생 지원 서비스

- 학교 양육 팀 핵심 직원
- 학급 내 그룹 강사, 리더 교사
- 방문 심리학자
- 지도 카운슬러
- 교직원
- 가정 학교 공동체 교직원
- 학교 수료 프로그램 교직원
- 학습 지원 교사 교직원
- 특별 지원 보조원 교직원
- 두번째 기회교육센터로 이동 및 국가 대안프로그램 이수(14학년에서 19학년)







고등교육 및 계속 교육 ----- 중등 이후 교육과정

QQI 수준 3, 4, 5, 6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QQI 레벨 6 ~ 10은 기술관련 기관에서 다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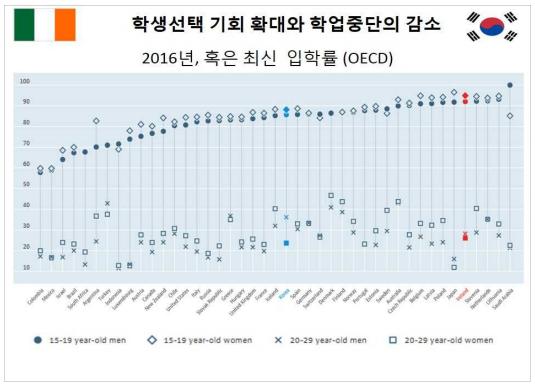


QQI 레벨 7에서 10은 대학에서 다뤄짐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QQI이 학생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어줌











교육 수준에 따른 학생 당 정부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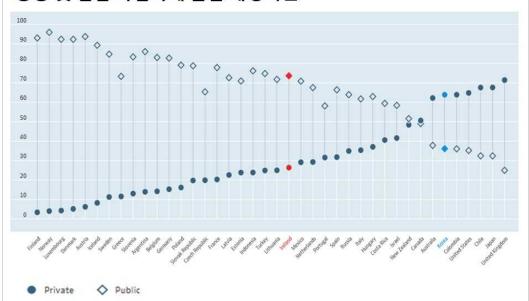
연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및 계속 교육	
2014	6,005	8,115	7,591	
OECD Average	7,300	8,500	10,600	
2015	6,295	8,257	7,576	



학생선택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공공 및 민간 사업자에 관한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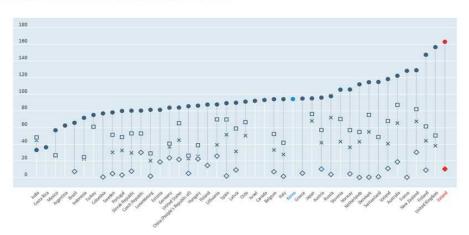
		90% 학령기 인구의 재학기간(연)	학교 내 90%의 재학생들의 연령대	5세에서 14세	15세에서 19세
25/2 (5/0)		1	2	3	4
OECD				ľ	
Australia		14	4-17	100	91
Austria		12	4-15	98	78
Belgium		16	3-18	98	93
Canada	1	12	5-16	100	78
Chile		13	5-17	98	81
Czech Republic		14	4-17	98	91
Denmark		16	2-17	99	86
Estonia		14	4-17	97	89
Finland		13	6-18	97	87
France	- 0	15	3-17	99	85
Germany		15	3-17	98	86
Greece		13	5-17	97	84
Hungary		13	4-16	96	84
Iceland		15	2-16	99	87
Ireland		14	4-17	100	93
Israel	1	15	3-17	97	66
Italy		15	3-17	98	83
Japan	2	14	4-17	100	m
Korea		14	3-17	97	87
Latvia		15	4-18	98	92
Luxembourg		13	4-16	97	76
Mexico	,	11	4-14	100	59
Netherlands		14	4-17	100	93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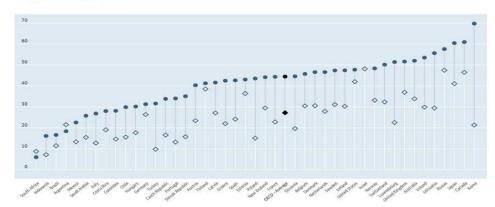
.... 졸업률 – 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후 (고등교육이 아닌) / 고등 교육 , 남성 / 고등교육 , 여성 / 백분율, 2016년 혹은 최신 데이터.







25-34 세의 고등 교육 인구 / 55-64 세, 같은 연령대의 인구 비율, 2017 년 혹은 가장 최신 데이터.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청소년들이 공식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

- 교육 안에서 행복한 가족 환경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자 지원
- 2. 문화 / 스포츠 / 음악 / 댄스와 교육의 결합
- 3. 학생을 전체적이고 복잡하며 공감력 있는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훈련
- 4. 학교와 가족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5. 모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 🍮 🛣



이상 아일랜드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amsahamnida)

arigatô (ah-ree-GAH-toh)

děkuji (Dyekooyi

tak (tahg)

dank u

tänan (TA-nahn)

kiitos (KEE-tohss)

merci

dank



학생선택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의 감소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U8 KW-rdM0EM&feature=youtu.be

John Hogan Manager of International Desk 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1967년 존 호간은 기술교육대학 정학생으로 Residential Teaching Training College에 입학했다. 1969년 졸업 후에는 정교사로 더블린시의회 교육 및 훈련위원회(CDETB)에 소속되었다.

더블린시의회 교육 및 훈련위원회는(CDETB) 더블린시에 있는 모든 공립 교육과 특히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다. 아일랜드와 CDETB에서는 국가시험을 통해 추후 계속교육과 취업이 가능하며 따라서 18 세까지의 의무교육보장은 이일랜드와 CDETB의 우선순위이다.

마리노 대학(www.marinocollege.ie)으로도 알려진 CDETB의 컬리지의 총장이 되기 전에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도왔다.

현재 CDETB 국제본부 담당자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분이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인 케롤 해니, 성인 교육 및 훈련 담당자인 블레이크 호킨슨, 그리고 교장, 총장을 포함한 고위관리직들을 지원한다.



◆ 제1세션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교육기회 보장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Chul-Kyung Yoon Director of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교육기회 보장

윤 철 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1. 한국교육의 현 주소

한국의 취학률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8% 수준, 고등학교는 92% 수준으로 매우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 진학률은 70% 수준이다. 2018년 현재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5%, 중학교 0.7%, 고등학교 1.5%(일반고 1.3%, 특성화고 2.7%)이며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이 6.7%로 가장 높다(2018, 교육통계).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각급학교 학업중단율은 낮은 수준에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고등교육까지 대중화된 세계적으로 높은 취학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게다가 OECD 회원국70개 국가 중 PISA 성적은 읽기는 3-8위 수학은 1-4위, 과학은 5-8위로 상위권이다(2015기준, 2018, 교육통계). 지표로 볼 때 한국교육은 대단히 우수하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첫째, 교실에 있지만 무기력하게 남아 있는 학생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학교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대학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획일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2,358개 고등학교 중 직업계 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는 420개 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제외), 17.8%에 불과하다. 학생 수로 보면 1,096,331명 중 252,260명(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포함된 숫자), 23%에 불과하다. 모두 대학을 준비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 대열에 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주요 목표이다. 이 때문에 이 대열에 낄 수 없는 학생들의 무력감이 심화된다. 학년제, 연간 출석일수 중 2/3만 출석하면 자동 진급하는 학년제 학교이다. 학업중단율은 낮지만 교실에는 학습 동기를 잃은 학생들이 넘친다. 학교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다른 탈출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한 지 5년미만이다. 아직 초창기라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진로직업교육 역시 취약하다. 학령 인구 대비 만7세에서 18세 학업중 단자 수는 39만명 (해당 인구의 6.3%), 만19세에서 24세 인구 중 고졸미만 학력자는 36만명 (8.3%)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철경 외, 2018: 미간행).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만16세)이다. 중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버티다가 입시교육 중점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공부가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날 때 친구랑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연결되지 못하면 이후 학교 밖에서 발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진로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결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없다. 학교 밖 생활은 험난하다. 일단,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데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눈이 곱지 않다.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다. 학교밖청소년들은 사회가 자신들을 문제아로 본다는 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여러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 학교에 있다면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를 나온 순간 이러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검정고시 학원비, 문화예술체육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비, 대안학교 학비 등은 모두 부모의 부담이 된다. 가정경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한국사회의 저임금노동에 편입된다. 또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거리를 떠돌다 비행에 노출되기도 한다. 학교 안에 있던 밖에 있던 학령기 청소년들이라면 자신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많은 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준비 없이 학교에 오래 머무르면서 직업세계로의 진입이지체되거나 무업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OECD에 따르면 무업청소년은 '취업자가 아니며,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15~29세 청소년, 휴학자'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무업청소년 비율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15-19세 7.7%(24위), 20-24세 22.2%(30위), 25-29세 24.5%(28위)로 세 연령대에서 모두 OECD 국가 평균보다 무업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일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무업청소년 비율이 낮아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과정이 비교적 순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무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5-19세 연령집단에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2.2%)이나 입시학원 통학(1.5%)으로¹⁾, 20-24세 연령대에서는 쉬었음·군입대 대기(4.0%)로 무업이 많았다. 25-29세 연령에 와서는 육아 및 가사, 쉬었음·군입대 대기 순으로 무업이 많았다. 그러나 고졸미만 청소년집단의 경우, 20-24세 연령 때부터 육아 및 가사(26.7%)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¹⁾ OECD는 학생이 아니면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무업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유럽국가들의 교육적 발명품2)

한국 교육상황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럽국가들이 교육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역량체계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NFQ)

유럽국가들은 국가역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국가역량체계인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이하 NFQ)³⁾은 학위취득, 자격, 훈련이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10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훈련, 고등교육에서 받은 훈련 및 학위가 모두 포함되는 체계이다. NFQ의 개발과 유지의 책임은 Quality & Qualification Ireland (QQI, 자격품질관리청)라는 국가기관이 갖고 있다.

NFQ의 수준 구성은 학습자가 주어진 자격에 기초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고, 이해하고, 할수 있어야 하는지를 총 10단계 수준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림 1. 아일랜드의 국가역량체계(NFQ)

수준 1~2는 지적장애 및 장애를 포함하거나, 기본 학위가 없는 학습자들을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과정을 의미한다. 수준 3은 실용적인 기술, 다른 일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사회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며 이를 완료할 시에 Junior Certification(중학교 졸

²⁾ 이 절의 내용은 윤철경 외(2018), 학교밖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연구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간행)의 내용임. 따라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³⁾ http://www.nfq-qqi.com/ 2018.8.3

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준 4는 기초적인 직업수준에의 취업, 직업기술 및 개별기술의 획득, 개인적 재능 수준에 대한 학습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수준 5는 광범위한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돕는데, 광범위한 기술이라 함은 직업적으로 특수하면서도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수준 5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수료하면 Leaving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다. Leaving Certificate는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시스템의 최종과정으로써 최소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걸린다.

수준 6은 직업적인 특수한, 관리·감독적 성격을 지닌 포괄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며, 자세한 이론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고급 직업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준 6은 Higher Certificate(우리의 전문학사)로 2년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수여된다.

학사학위는 수준 7과 수준 8로 나뉜다. 수준 7은 일반학사학위, 수준 8은 우등학사학위이다. 수준 7은 일반적으로 3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 1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수준 8은 1년 동안 60학점을 이수해야 획득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우등학사 학위 소지자들에게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준 7 소지자도 접근할 수 있다.

수준 9는 석사과정이다. 아일랜드에는 2가지 종류의 석사학위가 있는데, Taught Master Degree와 Research Master Degree가 있다. Taught 학위는 1~2년 정도가 소요되며, 60~120 정도의 학점을 필요로 하는 반면 Research는 2년의 기간이며 120학점이 보통이다. Post-Graduate Diploma는 1년 기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뒤 수여된다.

수준 10인 Doctoral Degree의 입학을 위해서는 Honours Bachelor Degree가 필수로 필요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Master Degree를 선호한다. Honours Bachelor 학위를 갖고 입학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Research Master Degree 혹은 임시 박사과정생으로 등록하며, 이 초기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수준 10에는 고등박사학위 (Higher Doctorate)가 있다. 이는 탁월한 학습에 대한 인정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Higher Doctorate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국가역량체계는 학교, 대학교, 기술연구기관(Institutes of Technology, 이하 IoTs) 등이 부여하는 자격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학력평가기관(The State Examinations Commission, 이하 Sec)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 학습인정에 대한 자격 부여를 관장하고 있다. Iots는 국가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있으며 NFQ의 레벨 6~10까지 다양한 자격을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자격품질관리청(QQI)는 중등학교와 대학, 국가기술연구기관의 자격부여 권한과 아일랜드 학교 안과 밖의 교육을 레벨 1부터 레벨 10으로 통합하여학생, 청소년, 성인들이 학교나 어디에서 학습을 하든 일정 수준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등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이

NFQ를 통해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고 전통적인 대학과 학교로의 편입이 가능하게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필요에 맞춘 코스와 프로그램이 아일랜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NFQ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제공되는 편이다.4)

아일랜드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에게 NFQ 1~6 수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에 필요한 가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복귀, 또는 고등교육 진학을 원하는 사람, 진로를 바꾸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⁵⁾.아일랜드의 평생교육(Further Education & Training, 이하 FET) 프로그램은 견습과 같은 직장기반 직업교육, 대학이나 고등교육을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하는 기초적인 직업교육이나 훈련(예: PLCs, VTOS), 구직자나 재취업자를 위한 특정 직업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훈련, 오랫동안 노동경험이 없고 레벨 5/6 수준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재취업자를 위한 기초교육과 훈련을 겸비한 프로그램, 고등학교 미만의 저학력자를 위한 언어, 수, IT 기술 훈련, Youthreach, 지역훈련센터 등과 같은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직업기술훈련, 학교복귀프로그램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센터에서도 NFQ과정을 제공한다. Youthreach는 국가 교육기술부가 15~20세 사이의 조기 학업중단자에게 제공하는 공식 교육, 훈련 및 직업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이다. 교육부 교육훈련위원회(ET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중무휴이며 풀타임으로 제공된다. 아일랜드 전국에 110개의 센터가 운영된다6).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다르며, FETAC7) 인증, 중학교 졸업자격, 고등학교 졸업자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친구사귀기 등 사회적 경험, 자존감 향상, 직장경험, 여가활동 등을 경험하고 보호받고 판단 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격려 받고 청소년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선택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프로그램을 마친 후 고등교육 준비과정, 혹은 견습을 신청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NFQ 3~4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8)

⁴⁾ https://www.fetchcourses.ie/courses/fulltime 180727

⁵⁾ SOLAS.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y 2014-2019. http://www.solas.ie. 2018.8.3

⁶⁾ 아일랜드 인구가 2017년 현재 478.4만명, 한국의 약 1/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 센터가 커버하고 있는 규모를 추측할 수 있음.

⁷⁾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wards Council을 의미하며 2001년 설치된 아일랜드 평생교육 인정기구로 2012년 QQI에 그 기능을 넘겨주고 해체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Further_Education_and_Training_Awards_Council. 2018.9.20. 검색

⁸⁾ http://www.youthreach.ie/what-will-i-learn/(검색일: 2018년 9월 20일)

2) 견습교육

견습은 학생들이 현실세계를 접하면서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다. 아일랜드 뿐 아니라 독일, 스웨덴, 스코틀랜드, 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견습교육이 직업교육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①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경우, 견습은 평생교육청인 SOLAS가 관장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일 랜드 견습과정》은 국가자격체계(NFQ)의 5~10단계를 포괄하며, 2~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50% 이상의 현장학습이 실시되며, 온라인/실외학습/혼합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공방법으로 제공되는 편이다. 견습생들은 고용주와 정식 계약 하에 고용되며, 월급을 받을 수있다. 견습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은 SOLAS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uthority)이며, 이 기관은 견습생 및 국가견습생 등록을 승인한 고용주의 국가등록유지 등 견습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진다. 견습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Junior Certificate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스웨덴

스웨덴의 견습교육은 교육부 견습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견습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4년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에 별 차이가 없고 직업과정 입학률이 저조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33%에 이르는 등이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 고등학교 교육 개혁과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2014년 고등학교 견습고용법이 제정되었고 학교 견습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윤철경, 2018: 13).

견습에는 학교기반견습과 직장기반견습이 있다. 학교기반 견습은 학교에 남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견습활동이다. 학교에서는 건설 등 직무와 관련된 수업과 영어 등 보편적 교과목 수업을 하고, 매일 학교에 가지만 연간 5주(고등학교 3년 과정이므로 3년 동안 15주)는 직장체험을 한다. 직장기반 견습은 직장에 더 머물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3년 동안 50%를 직장에서 학습한다. 1주에 3일 정도는 기업에서 실습하고, 중소기업(50명 정도 인원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 학교가 책임지고 사업주를 관리하며 노동규율이 엄격한 편이어서 노동 착취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작업장을 반드시 찾아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나 꼬문(기초지자체)도 이 책임을 갖고 있다. 견습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10명 중 9명이 직업을 찾았고, 중도탈락률도 낮았다. 견습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①학생들

⁹⁾ 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Pages/EmployerInfo.aspx 2018.8.3.

이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다른 것을 원하다는 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회사라는 점, © 회사는 어떤 직원이 필요한 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며 ② EU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고 ③ 견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90%가 직업을 찾았고 도중에 그만 두는 비율도 적다는 점 등이다. (윤철경, 2018: Lanlingscentrum 면접자료).

스웨덴의 학교는 12개 직업교육과정과 6개 대학입학 교육과정 등 1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외 입문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직업교육과정 학생 중 10만명이 학교기반 견습에, 1만명은 직장기반 견습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교육과정은 3년 과정으로 3분의 2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는 일반교과수업을 실시한다. 견습과정은 학생, 부모, 학교, 고용주 간의 훈련계약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험, 안전,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는 학생1인당 500유로, 회사에는 주3회 기준 학생 1인당 3,200유로, 회사 훈련담당직원에게는 학생1인당 1,0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견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습보조금으로 250유로를 받는 데 일반학생(150유로)보다 100유로가 더 많다. 견습교육 소요예산은 학생1인당 연간 15,000유로 정도이다.

③ 스코틀랜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이하 SDS)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스코틀랜드 전역에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을 전달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2017년 기준 69개의 커리어 센터를 운영되고 있다.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

SDS에서는 학교에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SDS의 취업자문관¹⁰⁾이 직접 학교에서 광범위한 직업정보 자문 및 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초등 5학년부터 중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활동으로, 연령과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실시한다.

¹⁰⁾ 교사출신이 아닌 취업지원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교사들이 실제적인 직업동향을 파악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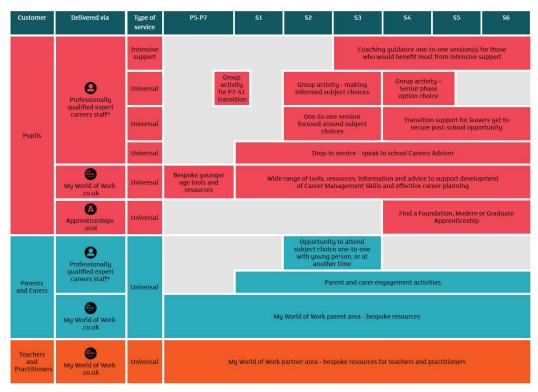


그림 2. SDS의 Career Service 개요

출처: 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what-we-do/scotlands-careers-services/our-careers-service-in-schools/ (검색일: 2018.8.14.)

Skills Development Scotland는 다양한 견습과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SDS에서 제공하는 견습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있다.

- Foundation Apprenticeship: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직장기반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장기반학습기회로 2년 동안지속된다. 과목에는 토목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서비스 등의 과목들이 있다. 주 1회제공된다.
- Modern Apprenticeship: 매년 2만 5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찾고 지원한다. SDS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고용주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회사맞춤형 견습제도라고 볼 수 있다.
-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 석사과정 수준의 견습과정으로 9개 대학에서 운영한다. 일반대학에서는 직무교과를 20%, 일반교과를 80% 제공하는 반면 이 과정에서는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 순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교/대학/고용주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1개 (Glasgow, Edinburgh, Moray 등)의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지역 집단을 지정하였다. 이 지역 집단 지정의 목표는 고용주가 학교 및 대학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고용주가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글 래스고가 2014년에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글래스고에서는 35개의 중고등학교가 기업과 3~5년간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워크숍, 직장방문, 직장배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11)

④ 독일

독일의 견습제도¹²⁾ 이중도제훈련(Dual Apprenticeship Training)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중도제훈련에서 참여자는 회사에서는 훈련생이고 직업학교에서는 학생이 된다. 직업학교에서는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이론을 배우고, 사내훈련에서는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다 (정주연, 최희선, 2013: 48). 중소기업과 직업학교가 서로 협력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협력은 법에 의해 규제된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주당 최대 4일은 기업에서, 2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현장에서 8주, 직업학교 4주 등으로 장기간을 정해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원적 직업교육에는 현장실습 교육 외에 일주일에 적어도 12시간의 직업학교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도제훈련은 2년~3년 정도 지속되지만 직업교육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국가가 인정한 직업에 대해서만 이원적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기준 국가가 이정한 직업교육과정은 349개 로 파악된다(이철선 외, 2016: 113). 교육과정 동안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임금과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2015년 직업교육생의 평균임금은 세금 포함 서독지역 약 107만 7,000원, 동독지역 한화 약 99만 6,000원이다. 또한 이외에도 직업교육생에게 교통비와 소정의 용돈이 국가로부터 지원된다 (이철선 외, 2016: 113)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이중도제훈련 외에도 직업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하는 전일제 직업학교 교육도 있다. 수공업 및 산업분야 외 직업교육, 어시스턴트 관련 직업,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직업교육은 주로 전일제 직업학교 교육으로 시행된다. 교육과정은 보편적으로 1년~3년 반 정도이다.

학교에서 견습을 제공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견습 프로그램도 있다. Zukkunftsstarter

¹¹⁾ https://www.dywglasgow.com

¹²⁾ 독일 교육연구부 직업훈련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bmbf.de/en/the-german-vocational-training-system-2129.html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독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 http://edpolicy.kedi.re.kr/frt/board 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095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18.10.1. 인출)

(미래 선발) 프로그램¹³⁾은 25~35세의 젊은 실업자와 청년,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견습제도이다. 기존의 견습제도는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했었다. 이 제도는 최근 연방노동사회부와 연방 고용청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으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조기 훈련이며, 이들에게 실업보험,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학사 학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120,000명의 참가자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견습을 위한 준비교육도 진행한다. 견습 준비 교육(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이하 BvB)은 직업교육 자리를 구직하지 못한 청소년, 학교졸업장이 없거나 이주배경, 또는 장애로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직업교육 진입 기회개선을 위한 직업교육 준비과정이다. 고용지원청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면담을 하여 학생의 적성 분야를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방안을 지원한다. 다양한 직업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성격의 교육운영자가 BvB를 운영한다. 이러한 기관은 민간기관이지만 고용지원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위한 실질적 능력을 향상하기위해 실습을 겸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학력부족으로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예상되는 학생들은 BvB의 지원을 받아 하우푸트슐레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을 위한 실질적 능력, 일반교육 외에도 참여 학생들은 인성교육 및 사회성 훈련도 함께 받으며 언어교육, 기본적인 IT-미디어 교육, 직업교육 자리 구직을 위한 지원훈련도 받게 된다. 교육기간은 10개월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매월 250유로(한화 약 32만 4,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Bildungskette(Education Chain, 교육연계)는 학업에서 직업으로 원활히 이행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노동사회부(BMAS), 연방고용기관(BA)이 협력하는 사업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교육을 완료하도록 돕는다. 목표는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이 견습을 받아 직업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직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개별적, 체계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7학년부터 시작되며, 잠재력 분석(Potenzialanalysen), 직업진입 동행(Berufseinstiegsbegleitung), 직업예비교육의 3단계(능력구축-확실한 목표설정-미래를 위한 설계)로 이루어진다. 잠재력 분석을 시작으로 현장 경험을 통한 직업 예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돕고 있다. 또

¹³⁾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bmas-und-ba-unterstuetzen-zukunftsstarter.h tml와 독일 잡센터 홈페이지 https://www.jobcenter-ge.de/Jobcenter/Jerichower-Land/DE/Beratung-Vermittlung/Zukunftsstarter/Zukunftsst Knoten.html의 내용을 요약정리함(2018.10.1.인출)

한, 학교졸업 후 적합한 직업교육 자리를 찾거나 과도기적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에 도달하도록 돕는다(정수정, 2015.12.23.).

3) 무업청소년 발굴과 교육 지원

①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9세까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학령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장이 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지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당국은 이러한 청소년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지 못할 시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발굴활동을 실시한다(윤철경, 2018).

스톡홀름의'UEDB(Ungdoms-och elevdatabasen, Youth and pupil data base)'에는 16~19세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과 학생 데이터베이스 UEDB를 모니터링하여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청소년, 16-19세의 청소년, 스톡홀름 시에 신고·등록된 청소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무업청소년을 발굴한다.14)

2013년 기준 스톡홀름 거주 16-29세 청소년은 176,700명이며 이 중 9% (16,700명)은 무 업청소년이다. 이 중 50% 정도는 소재 파악이 안되는 데 20-29세 연령대는 10대 청소년에 비해 더 소재 파악이 어렵다.

코뮨 Job Center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아웃리치 외에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홍보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장애나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초점 집단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요원을 통한 직접적인 아웃리치 외에 SNS, 전화, 우편, 센터 방문 등을 활용한 간접적 아웃리치를 병행하고 있다.

Job Center의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한가지는 센터에 등록, 참여한 청소년만이 사회복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뮨 Job Center에서는 무업청소년 특성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업준비가 잘된 청소년, 직업을 찾기에 장애 요인이 있는 청소년, 비행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구직과정, 실습교육, 유급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력서 작성, 직업 검색, 직업 코치, 학생상담등의 서비스를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Drop-in center를 운영한다.

학교에서도 학업중단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문과정 프로그램으로 9년제 기초교육를 마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를 보충시키고 직업교육과정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민 대상 스웨덴어 프로그램 등 언어코스 수강이 많다. 학업중단학생도 직업교육 입문과정(1년에서 4년)을 통해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다.

¹⁴⁾ Storsthlm 홈페이지 http://www.storsthlm.se/utbildning-och-arbetskraft/gemensam-gymnasieregion/dengemensamma-ungdoms--och-elevdatabasen-uedb.html에서 인출함 (검색일: 2018.8.10.)

학교장은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며 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당국은 NEET에 대해 입문과정을 실시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도 무업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업청소년을 위한 학습동기강화 코스는 18~25세의 직업이 없는 무업청소년(고용부 시스템 등록자)을 대상으로 하며(18세미만의 경우, 해당 비용은 코뮨에서 부담), 고교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한다. 13주간의고교과정 보충수업을 지원한다. 스웨덴 고용부(Arbetsformedlingen)는 18-25세 NEET 청소년이 발견되면 학습동기 강화코스를 수강하도록 권한다. 당초 정부는 25% 정도를 이 프로그램의 성공률로 기대했으나 참여자의 40%가 동기강화 코스 후 1년 이내 일반과정에 참여했다. 동기강화 프로그램 참여률은 해당자의 70% 수준이었으며 참여자의 90%는 프로그램에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에서는 '16+ Data Hub System'을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의무교육 끝나는 연령인 16세이전에, 학교교사가 학교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SDS에 전송하여 20세까지이 정보가 업데이트 되며, 이 정보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정부 등과 공유된다(윤철경, 2017: 19).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16+ 데이터 구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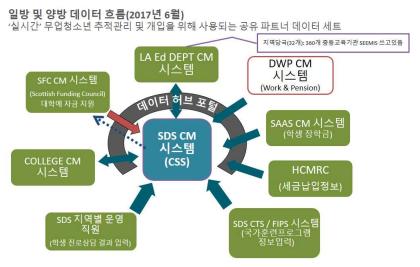


그림 3. 16+ 데이터 허브 구축방법

출처: 윤철경 (2018) 방문기관별 활동내역: 영국, 덴마크. p.13

이 시스템은 2012년에 구축되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도입하였다. 정부 및 참여기관에서 받는 정보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 7월에 정보공유지원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안에서 SDS가 관련정보를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에 이를 보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16+ Data Hub System'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360개 중등교육기관, 청년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 SDS의 국가훈련프로그램 참여정보, 영국고용부의 정보 등이 여기에 입력되고 이 정보들은 국가지표에도 활용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SNS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어떤 것이라도 하게 한다. 연락이 오면 Job centre 등으로 연계시킨다(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38).

SDS에서는 데이터허브를 활용하여 무업청소년을 발굴한 뒤 이들을 지원하는 'NEXT STEP'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17,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정도 지원되며, 이 안에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지원 혹은 집단 서포트를 지원하며, 무업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도 6개월 간 지속될 수 있다(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44).

3. 결론

유럽국가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16세부터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 만18세까지 직업교육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을 해서도 직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군대 2년 등 직업사회로 나가는 길이 근 10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일-학습 병행제나, 선취업-후학습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방향이다. 이러한 정책이 확대되고 탄력을 받으려면 직업교육이 현장감 있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NFQ는 학교를 떠나도 학습은 어디서나 가능하며 대학으로 가는 길은 한국과 같이 단선형이 아니라 다양하게 선택해도 충분하다는 사회적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 학교밖에서 취득한레벨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고 진학을 가능하게 한다. 명문대학들부터평생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대학개방정책은 대학진학의 입구에서 좌절하고 N수를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준비 학원에 몰려들며 쏟는 청소년의 시간과 정열을 다른 곳에 쓸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는 시안만 논의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학교,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지금의 서열화되고 일원화

된 청소년들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급히 도입되었으면 한다.

견습교육은 이제 유럽국가의 대세이다. 한국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한국 교육의 무력한 교실을 개혁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견습 등을 통해 직업을 찾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업중단예방은 학교가 다양한 선택적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생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때 의미가 있다. 학교는 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위해 남으라고 하는 상태가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일반고등학교가 입시가 아니라 의미없이 교실을 지키는 절반의 학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직업교육과정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만 19~24세 약 36만 명(고졸 미만 학력자,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 포함), 만 7~18세 약 39만 명(국내거주자: 3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무업청소년의 규모를 산출한 바에 따르면 연령집단별로 볼 때 15~19세(3.9%), 20~24세(14.3%), 25~29세(21.2%)로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늘어난다. 고졸 미만,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급증하여 15~19세(0.8%), 20~24세(45.9%), 25~29세(40.3%)로, 20~24세 연령층에서 무업비율은 절반 가까이 되며 25~29세 연령층에서도 40% 수준이어 10명 중 4명이 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무업화가 매우 심각하다.

학교에 머물고 있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의 교실에서의 무기력, 20대 초반에 있는 후기 학교 박 청소년의 규모와 무업화 비율을 고려할 때 사업장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견습교육, 평생교육기관, 청소년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을 세밀하게 연계한 학력, 자격부여체계가 필요하다.

학교를 중단하면 교육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있던, 학교 밖으로 나가던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학령기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도 학교의 신고를 통해, 또는데이터허브의 관리를 통해 접촉점을 유지하고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한다. 학교, 평생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시설, 청소년시설 들이 모두 개입하며 청소년들이 자기 필요에 맞는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학력과 자격을 획득할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떠난 후라도 청소년들을 교육사회적 지원체계 안에 머물게 하고 이들에게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보장해 주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수당은 지역당국과 학교밖청소년을 이어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며 이러한 끈을 연결함으로써 지역당국은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표1. 유초중등교육 학생 수

(단위:명)

				(단위 : 명)
_	_ =		학생수	
구분		2016	2017	2018
F	우치원	704,138	694,631	675,998
초	등학교	2,672,843	2,674,227	2,711,385
<i>ਤ</i>	· 한교	1,457,490	1,381,334	1,334,288
	소계	1,752,457	1,669,699	1,538,576
	일반고	1,256,108	1,193,562	1,096,331
고등 학교	특목고	67,607	67,960	66,693
	특성화고	290,632	274,281	252,260
	자율고	138,110	133,896	123,292
특	수학교	25,502	25,670	25,860
고등	공민학교	61	53	64
고등	기술학교	897	795	652
각종학교		8,159 7,87		8,543
방송통신중학교		3,241	3,970	4,476
방송통	신고등학교	10,996	10,378	9,881

출처: 2018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5

부표 2. 유초중등교육 취학률

(단위:%)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8	50.6	97.4	97.9	92.4
2017	50.7	97.3	94.2	93.7
2016	49.8	98.6	94.3	93.1

주 ①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수 / 취학적령 인구) x 100

취학적령: 유치원(만3세~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출처: 2018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10.

부표 3. 고등학교 졸업후 상황

(단위: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기타	진학률
	일반고	407,600	316,590	8,756	82,254	77.7
	특목고	22,818	13,160	5,187	4,471	57.7
2018	특성화고	91,886	33,072	37,995	20,819	36
	자율고	44,241	32,132	421	11,688	72.6
	합계	566,545	394,954	52,359	119,232	69.7
	일반고	419,461	324,234	8,942	86,285	77.3
	특목고	23,272	13,239	5,461	4,572	56.9
2017	특성화고	96,022	31,466	48,001	16,555	32.8
	자율고	44,853	32,984	380	11,489	73.5
	합계	583,608	401,923	62,784	118,901	68.9

- 주 1 진학률 = (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연도 졸업자) x 100
 - ② 기타는 무직자 및 미상, 입대자, 특수학교전공과 진학자 포함

출처: 2018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9.

부표 4. 고등교육기관 입학/휴학/졸업자수

(단위: 명)

	구분	입학자수		휴학	자수	졸업자수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일반대학	343,076	342,841	583,494	566,293	335,650	323,735	
2214	산업대학	3,018	2,821	8,625	4,029	9,270	6,642	
대학	교육대학	3,863	3,866	412	434	3,857	3,792	
	전문대학	200,021	198,110	232,834	218,608	171,210	168,780	
	기타	62,683	62,948	90,223	87,480	60,937	60,291	
	대학원	122,920	123,702	43,874	43,340	97,921	97,511	
	합계	735,581	734,288	959,462	920,184	678,845	660,751	

- 주 ① 기타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포함
 - ② 대학원은 대학부설대학원과 대학원대학 포함

출처: 2018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12.

부표 5. 고등교육 기관 학업중단율

(단위:%)

학년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2017	6.8	4.3	8.0	7.6
2016	6.7	4.1	0.5	7.7
2015	7.5	4.1	0.6	7.5

주 ①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재적 학생수× 100

②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원은 제외함

출처: 2018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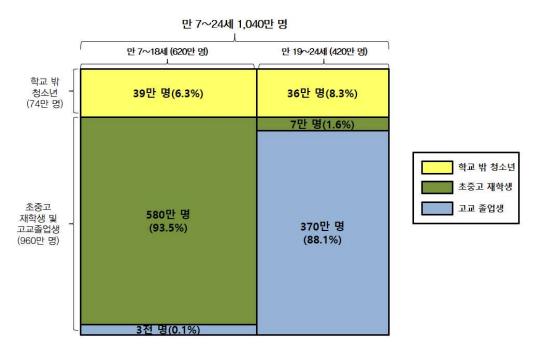


그림 4. 만 7~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출처: 윤철경(2018). 학교박청소년지역사회 지원모델 연구I. 제6장(미간행)

부표 6. 다문화 학생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합계
2018	93,027	18,068	10,688	429	122,212
2017	82,733	15,945	10,334	375	109,387
2016	73,972	15,080	9,816	318	99,186

주 1 다문화 학생: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출처: 2018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11.

부표 7. 연령구간별 무업청소년의 비율

[단위: 천 명(%)]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15~	-19세	20~	24세	25^	-29세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자			전체	고졸미만	전체	고졸미만	전체	고졸미만
학 생 (휴학생 포함)			2,670	2,187	1,625	1	430	5
	= 1		(88.8)	(96.8)	(52.8)	(1.7)	(12.9)	(8.9)
		취 업 자	96	10	977	29	2,151	29
		T 11 71	(3.2)	(0.4)	(31.8)	(48.3)	(64.3)	(51.8)
		정규교육기관 통학 (1)	65	38	1	-	0.1	_
			(2.2)	(1.7)	(0.0)	(0.0)	(0.0)	(0.0)
		입시학원 통학 (2)	46	1	10	-	_	_
		마시막면 급 막 (4)	(1.5)	(0.0)	(0.3)	(0.0)	(0.0)	(0.0)
비	실업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12	1	52	2	63	_
학	및	기관 통학 (3)	(0.4)	(0.0)	(1.7)	(3.3)	(1.9)	(0.0)
생	비경제	001 51 711 (4)	3	0.3	60	16	205	11
	활동	육아 및 가사 (4)	(0.1)	(0.0)	(1.9)	(26.7)	(6.1)	(19.6)
	인구	쉬었음, 군입대 대기,	36	7	122	7	118	7
		심신장애 (5)	(1.2)	(0.3)	(4.0)	(11.7)	(3.5)	(12.5)
		-1 (-)	78	16	230	5	378	5
		그 외 (6)	(2.6)	(0.7)	(7.5)	(8.3)	(11.3)	(8.9)
연령구간별 인구 수		3,006 (100.0)	2,260 (100.0)	3,077 (100.0)	60 (100.0)	3,345 (100.0)	56 (100.0)	

출처: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주 1)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 가사 및 육아경험은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함
 - 2) 그 외의 경험으로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기타 등의 사유가 있음
 - 3) OECD기준 무업청소년은 (1)+(2)+(3)+(4)+(5)+(6)임.

부표 8. OECD 15~19세 무업청소년 비율 순위(2013년 기준)

(단위: %)

۸ ۵۱	72104	2000	2000	2010	0011	2010	0010	0014	(단취: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독일*	3.7	3.8	3.7	3.5	3.0	2.8	2.9	2.5
2	체코	2.7	3.5	3.8	3.7	4.0	3.2	3.2	3.0
2	라트비아	6.0	6.8	6.4	7.3	7.2	3.2	3.8	3.1
4	폴란드	2.4	3.6	3.6	3.9	3.9	3.5	4.0	5.2
4	룩셈부르크	2.1	2.7	6.3	2.3	2.9	3.5	2.4	2.6
4	슬로베니아	4.4	2.5	3.2	3.4	3.8	3.5	4.6	5.0
7	노르웨이*	4.0	4.2	3.5	3.2	3.0	3.6	3.5	2.8
8	스웨덴*	4.4	5.5	5.3	4.1	4.1	4.1	4.3	3.5
8	네덜란드	2.1	3.6	3.1	3.4	2.4	4.1	3.6	3.6
8	일 본 *	4.1	4.9	4.6	4.8	3.8	4.1	3.7	- ·
11	덴마크	4.0	5.0	5.5	5.3	5.7	4.6	3.5	3.7
11	에스토니아	4.9	8.0	6.1	6.4	6.8	4.6	7.0	5.5
13	핀란드*	5.1	5.1	5.1	5.1	4.7	4.8	5.5	5.2
14	스위스*	9.4	8.1	4.8	4.9	4.7	5.0	4.7	3.9
15	오스트리아	5.7	6.6	5.7	5.8	4.8	5.1	7.2	5.7
16	슬로바키아	5.7	4.5	4.6	5.3	5.6	5.4	5.7	6.3
17	헝가리	5.7	5.6	4.6	4.8	4.8	6.0	6.8	6.1
17	아이슬랜드	4.5	7.3	6.2	6.8	7.1	6.0	5.5	3.5
19	캐나다	7.1	8.1	8.2	7.7	7.3	6.7	7.1	6.7
19	벨기에	5.5	5.7	5.9	6.1	8.3	6.7	5.4	4.3
21	포르투갈	7.1	6.9	7.4	8.0	7.9	6.9	6.1	5.5
22	OECD평균	7.6	8.4	7.9	8.0	6.9	7.1	6.8	6.3
23	호주	6.3	8.3	8.1	7.8	7.2	7.3	7.2	6.0
24	뉴질랜드	7.0	9.4	8.6	8.6	8.7	7.7	7.1	7.1
24	한국	7.0	7.0	8.5	8.7	8.5	7.7	_	
26	프랑스	5.8	6.8	7.9	7.1	6.9	7.8	7.9	7.4
27	미국	7.6	8.8	7.6	7.1	7.7	8.4	7.6	7.0
28	영국*	9.8	9.6	10.0	9.5	9.6	9.1	8.4	8.7
28	이스라엘*	22.2	24.7	23.6	24.2	10.7	9.1	7.8	8.8
30	그리스	8.2	7.9	7.5	8.3	10.7	9.3	10.5	8.4
31	아일랜드	8.5	11.0	10.1	9.4	9.6	10.6	9.1	8.0
32	이탈리아	9.6	11.2	12.5	11.4	12.0	11.0	11.2	11.4
33	스페인	11.2	14.2	13.5	12.5	11.8	11.2	9.7	9.1
34	칠레		17.0	_	16.1		12.7	_	_
35	멕시코	17.8	18.4	17.6	18.1	17.0	15.5	15.3	14.5
36	터키	37.1	28.7	25.6	24.8	-	22.2	21.0	18.7
	l t i					l			

부표 9. OECD 20~24세 무업청소년 비율 순위(2013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국/18 룩셈부르크	9.8	8.7	7.5	8.5	10.3	8.2	9.0	9.3
2	아이슬랜드	5.2	11.5	12.2	11.0	10.0	8.7	9.4	6.6
3	네덜란드	5.6	7.9	7.4	6.9	7.1	9.5	10.4	8.8
4	스위스	9.1	10.9	11.1	10.6	12.1	10.2	12.4	12.2
5	독일*	14.0	13.7	13.7	12.6	11.2	10.3	10.1	9.3
6	<u> </u>	7.0	9.4	9.0	10.4	10.7	10.9	10.7	10.2
7	일본*	11.1	12.6	12.4	12.1	12.4	11.0	10.1	
8	오스트리아	12.0	12.0	13.4	10.9	11.7	12.1	12.0	11.7
9	 스웨덴*	12.9	16.5	14.2	12.9	13.5	12.9	12.0	11.8
10	덴마크	8.2	10.1	12.1	11.9	14.5	13.4	12.7	12.4
11	슬로베니아	10.3	11.4	9.3	11.3	11.4	13.7	13.4	17.2
12	캐나다	13.3	15.5	15.6	14.9	15.1	13.9	14.8	14.4
12	호주	10.7	11.6	11.2	11.7	12.2	13.9	13.2	13.1
14	체코	10.6	13.1	13.6	12.8	13.4	14.2	12.3	11.6
15	핀란드	12.0	15.1	15.8	14.3	15.2	15.5	15.6	18.3
16	뉴질랜드	14.1	17.6	17.8	16.5	16.9	15.6	14.5	14.9
17	에스토니아	10.7	19.8	22.4	15.8	17.1	16.8	16.1	15.0
18	라트비아	14.0	27.3	30.4	21.6	20.3	17.5	16.6	13.3
19	이스리엘*	37.5	37.5	37.4	37.4	18.7	18.1	18.5	18.6
20	OECD평균	15.5	18.3	18.7	18.3	17.6	18.2	17.4	16.9
21	벨기에	14.1	16.1	18.0	17.1	17.5	18.6	18.9	15.8
22	미국	17.2	20.1	19.4	18.5	17.7	18.8	17.5	15.8
23	영국	18.3	19.1	19.3	19.1	20.2	19.1	17.0	15.6
24	프랑스	16.6	20.0	20.6	20.3	20.1	19.4	18.4	20.9
25	폴란드	15.6	16.4	17.6	18.6	18.9	20.2	19.2	18.5
26	네 테코슬	16.6	17.1	22.1	21.4	20.2	21.0	18.6	18.8
27	칠레	_	27.5	_	24.6		21.1	_	_
28	아일랜드	14.6	20.8	26.1	26.1	25.7	22.0	21.2	19.8
28	포르투갈	13.5	15.7	16.4	18.7	22.7	22.0	23.9	20.9
30	한국	22.2	23.0	23.5	23.3	22.5	22.2	-	_
31	멕시코	26.5	27.6	26.1	26.2	25.0	25.2	24.9	25.3
32	헝가리	18.4	20.9	21.5	22.4	22.5	26.1	20.6	18.4
33	스페인	19.0	25.9	27.0	28.9	30.6	32.4	29.0	27.2
34	그리스	16.7	17.8	21.1	24.1	30.4	33.1	31.3	28.1
35	이탈리아	22.0	24.8	27.1	28.4	31.5	33.7	35.0	33.9
36	터키	46.1	46.1	43.7	39.6		35.9	36.3	33.2

부표10 . OECD 25~29세 무업청소년 규모 순위(2013년 기준)

(단위: %)

									(단귀: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룩셈부르크	13.0	11.9	7.6	10.5	10.9	6.5	12.6	12.4
2	아이슬랜드	6.7	14.0	14.9	11.0	11.1	9.1	11.0	7.8
3	스웨덴	9.5	11.5	11.6	10.2	11.1	10.3	11.1	10.8
4	스위스	10.1	12.8	12.8	10.9	11.3	11.3	11.8	8.4
5	노르웨이	9.2	10.6	13.0	11.8	11.4	12.6	13.3	14.0
6	네덜란드	7.8	9.6	9.9	10.3	10.6	12.9	13.4	12.1
7	오스트리아	13.8	15.2	15.5	13.5	13.7	14.1	14.7	13.0
8	독일*	17.0	16.9	17.8	15.7	14.6	14.7	13.4	12.8
9	핀란드	12.4	15.5	16.8	15.6	15.4	16.0	17.0	18.2
10	캐나다	15.0	16.4	16.8	17.2	17.4	16.1	17.6	17.6
11	호주	14.1	16.8	15.9	14.6	15.1	16.9	16.7	15.5
12	일본*	18.2	18.5	18.5	17.9	18.0	17.3	15.8	
13	덴마크	8.6	12.3	14.3	16.2	16.2	17.7	16.1	15.2
14	영국	15.8	18.0	18.1	17.3	18.3	17.9	17.0	16.2
14	이스라엘*	22.9	24.2	22.4	21.5	17.7	17.9	15.4	15.1
16	뉴질랜드	16.0	17.9	20.1	17.9	18.9	19.0	17.5	17.9
17	체코	17.7	20.1	20.4	19.5	20.4	19.4	18.9	18.9
18	에스토니아	18.5	28.2	26.1	20.8	21.0	19.6	18.1	15.6
19	슬로베니아	9.9	11.6	12.4	15.6	15.7	19.8	20.3	19.4
20	OECD평균	17.3	19.9	20.3	20.2	19.7	20.5	20.2	19.3
21	미국	19.5	21.8	21.2	21.7	20.2	20.6	19.8	20.0
22	프랑스	19.7	19.9	21.0	21.5	22.4	21.6	22.5	23.4
22	포르투갈	15.1	14.8	15.7	18.1	18.3	21.6	22.7	19.5
24	라트비아	16.1	25.6	29.3	27.6	26.7	22.5	19.3	18.7
25	칠레	_	27.3	_	24.9		22.6	_	_
26	폴란드	21.5	20.8	21.9	21.6	22.4	24.1	21.6	20.9
27	아일랜드	14.3	22.0	24.2	28.1	26.5	24.3	23.6	21.2
28	한국	25.5	26.5	25.9	24.9	24.7	24.5	_	-
29	헝가리	23.1	25.1	28.6	26.6	27.3	27.0	23.7	21.5
30	슬로바키아	24.7	24.9	27.5	27.8	27.5	27.5	28.2	23.5
31	멕시코	29.5	30.4	29.3	29.2	28.2	27.8	28.4	27.5
32	이탈리아	24.5	26.4	28.2	28.4	29.0	31.8	35.4	35.3
33	스페인	18.3	25.7	27.8	28.9	31.6	34.7	31.8	30.4
34	터키	43.5	44.9	41.8	40.2	. -	36.7	38.1	35.4
35	그리스	21.3	22.1	23.8	30.0	37.1	41.1	41.2	39.9
	벨기에	16.5	16.3	18.3	18.0	18.5	_	19.8	20.2
	-	-							

참고문헌

- 윤철경 (2018). 방문기관별 활동내역: 아일랜드, 스웨덴.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2018). 방문기관별 활동내역: 영국, 덴마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간행)
-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Ⅱ** (연구보고 17-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 (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정책보고서 2016-1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수정 (2015.12.23.) 독일의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현황. (검색일: 18.6.29.)http://edpolic 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 10057&pageIndex=4&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128&searchTopi 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
- 정수정 (2016.1.27.) 독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 (검색일: 18.10.1.) http://edpolicy.kedi. 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 oardArticleSeg=150095
- 정주연, 최희선 (2013). 도제훈련제도의 국가별 특성 및 한국직업훈련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2013-194). 서울: 산업연구원.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주요 선진국 정책탐방**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세종: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독일 교육연구부 직업훈련시스템 홈페이지 (검색일: 2018.10.1.) https://www.bmbf.de/en/the-german-vocational-training-system-2129.html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 (검색일: 2018.10.1.)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 tteilungen/2016/bmas-und-ba-unterstuetzen-zukunftsstarter.html
- 독일 잡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18.10.1.) https://www.jobcenter-ge.de/Jobcenter/Jerichower -Land/DE/Beratung-Vermittlung/Zukunftsstarter/Zukunftsst_Knoten.html
- 스웨덴 Storsthlm 홈페이지 (검색일: 2018.8.10.) http://www.storsthlm.se/utbildning-oc—arbetskraft/gemensam-gymnasieregion/den-gemensamma-ungdoms—och-elevdatabasen-uedb.html
- 스코틀랜드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Glasgow 홈페이지 (검색일: 2018.8.14.)

https://www.dywglasgow.com

- 스코틀랜드 Skills Development Scotland 홈페이지 (검색일: 2018.8.14.) https://www.skill sdevelopmentscotland.co.uk/what-we-do/scotlands-careers-services/our-careers-service-in-schools/
- 아일랜드 NFQ 홈페이지 (검색일: 2018.8.3.) http://www.nfq-qqi.com/
- 아일랜드 Youthreach 홈페이지 (검색일: 2018.9.20.) http://www.youthreach.ie/what-will-i-learn/
- 아일랜드 견습과정 홈페이지 (검색일: 2018.8.3.) 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 Pages/EmployerInfo.aspx
- 아일랜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검색일: 2018.07.27.) https://www.fetchcourses.ie/courses/fulltime
- FETAC (2012). (검색일: 2018.9.20.) https://en.wikipedia.org/wiki/Further_Education_and_ Training_Awards_Council.
- SOLAS (2014).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y 2014-2019. (검색일: 2018.8.3.) http://www.solas.ie.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하려

이화여대 교육사회학 박사

경력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복지분과위원회)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평가위원 등

연구

2016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1,11

2013 2014, 2015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1,11,111

2013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연구

2013 청소년 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2012 학업중단학생 종단 정책연구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Chul-Kyung Yoon

The Director of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Rate of entering school in Korea is very high with 98%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hich is compulsory education, and 92% for high school. The rate of entering higher education among high school graduates is 70%. As of 2018, the percentage of school drop-outs is 0.5% for elementary schools, 0.7% for middle schools, 1.5% for high schools (1.3% for general high schools and 2.7% for special high school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the highest disruption rate of 6.7% (2018, Education Statistics). On an international level, school drop-out rates at all educational levels are low. Thanks to the traditionally high educational power of Korean society, South Korea has a high enrollment rate in the world, popularized by higher education. Additionally, among 70 OECD member countries, PISA score of South Korea belongs to high rank in 2015 (as of 2015, 2018, education statistics): reading (third place to eighth place), math (first place to fourth place), science (fifth place to eighth place). The index indicates that Korean education is very excellent.

There are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First, there are many helpless students in class. Korean schools have a uniform structure that prepares student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from pre-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Among the 2,358 high schools, the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which are vocational schools, is only 420, accounting for only 17.8% (excluding alternative education specialized schools). In terms of the number of students, it is 252,260 out of 1,096,331 (the number included alternative education specialized schools). It is just 23 %. They are all attending schools which prepare for university. Competition to enter prestigious universities is fierce and this is the main goal of high school education.

Because of this, the sense of helplessness of students who cannot keep up with this is deepened. If a student attends 2/3 of yearly attendance days, the student goes to higher grade automatically. Although the drop-out rate is low, there are plenty of students in the classroom who have lost their motivation to lear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another way out of the school-centered education system.

Second, it has been less than five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sponsive system for out-of-school adolescents. It is still in its infancy, so it is still vulnerable. The number of dropouts who are aged between 7 and 18 years compared to school-age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390,000 (6.3% of the population), and among the population of those aged from 19 to 24, the number of students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is 360,000 (8.3%). (Yoon et al., 2018:non-published book). The grade in which the highest number of school dropouts takes place is first year in high school (age 16). Students hold themselves until the entrance of high school. However, when they go to high school which focuses on education for entering university, they begin to break away. The main reason they leave school is that school study is not meaningful to them. Once they leave school and are not connected with friends or out-of-school adolescent cent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m outside school.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connect them with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before they leave school, it is still vulnerable.

Third, there ar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to out-of-school adolescents. There is no educational support for them. Life out of school is difficult. First of all, adults are not generous to adolescents who are in different places, when they are supposed to be at school. Actually, the things about which out-of-school adolescents complain the most are th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of society. Out-of-school adolescents say that society considers them as problematic adolescents and that their opportunity is limited, because they are out of school. If they are at school, they can get educational benefits which is worthy of 10 million won every year. However, once they leave school, they cannot receive it. General equivalency diploma, various expenses for culture, art, athletics, and tuition for alternative school become the burden of parents. Adolescents, who are difficult financially at home, become part of low income labor of Korean society in order to make a cost of living and allowance. In addition, they may become reclusive loners who do not come out of house or be exposed to delinquency on street. For adolescents in school age, whether

they are in or out of school,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education, which is suitable for them.

Fourth, many adolescents stay at school for a long time without preparation of jobs so it leads to delay the entrance into jobs or to jobless status. According to OECD, an adolescent without a job is "not an employed person but an adolescent from 15 to 29 in age who stops study or does not take education or training." The rate of unemployed youth in Korea as of 2013 is 7.7% (24th place) in 15-19 age group, 22.2% (30th place) in 20-24 age group, and 24.5% (28th place) in 25-29 age group. In the age group,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was higher than the OECD national average. 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Norway, and Sweden,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is low, which shows that the transition process from school to job is relatively smooth. In the case of Korean adolescents, the details of unemployment are as follows: 15-19 age group attending regular education institution (2.2%) or entrance examination school $(1.5\%)^{1)}$; 20-24 age group taking a rest or waiting to join military service (4.0%). In age group from 25 to 29, the rate of status without a job goes higher in this order: child rearing and housework, rest, and waiting for military service. However, in the case of adolescents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they have been involved in childcare and housework since the age of 20-24(26.7%).

2. Educational Invention of European Countries²⁾

I will explore the educational policy of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give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which Korean education faces.

1)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NFQ

European countries operate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and try to use it in commonly in EU. Ireland's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NFQ)³⁾ is a

¹⁾ OECD categorizes adolescents, who are not students but go to educational institute or school for entrance examination, as unemployed adolescents.

²⁾ It is the content of "Research I on Model for Local Society's Support for Adolescents outside School." (Research Fellow, Korea Adolescent Policy). It is not published yet. Therefore, please do not quote it.

³⁾ http://www.nfq-qqi.com/ 2018.8.3

system which consists of 10 levels and integrates the acquisition of academic degree, qualification, and training.

It includes not only school but also lifelong education, training, and training sand academic degree in higher educ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NFQ is owned by a national organization called Quality & Qualification Ireland (QQI).

Levels of NFQ are divided into 10 stages on the basis of what a learner needs to know, understand, and can do based on the given qualification.



Figure 1. Ireland's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Levels 1 and 2 are intended for learn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disabilities, or those who have no basic degree, which means basic literacy and numeracy processes. Level 3 is a process of learning a practical skill, a basic social skill which is applicable to other areas. Upon completion, Junior Certification is acquired. Level 4 leads to employment in a basic vocational level, the acquisition of job skill and individual skill, and learning acknowledgement of individual skill level. Level 5 helps to learn an extensive skill which is special vocationally and needs theoretical understanding. Generally, level 5 means that one can work independently. Upon completion, Leaving Certificate is given. Leaving Certificate is the final course of Ireland's middle school system, which takes two years of preparation at least.

Level 6 helps to develop a comprehensive skill which contains vocationally spec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needs detailed theoretical understanding. It means that one can work independently, because it contains an advanced vocational skill. Upon completion of two-year program, Higher Certificate (special bachelor in South

Korea) is given.

Bachelor degree is divided into level 7 ad level 8. Level 7 is a general bachelor degree and level 8 is bachelor degree with honor. Level 7 is generally a three-year program and for it, one has to complete 180 credits. For level 8, one has to complete 60 credits within one year. Generally, it is possible for people who have a bachelor degree with honor. Exceptionally, people with level 7 also can approach it.

Level 9 is a master course. In Ireland, there are two kinds of master degree, Taught Master Degree and Research Master Degree. It takes one or two years to get taught master degree and needs 60 to 120 credits, while research master degree is two years long and 120 credits. After one year program, Post-Graduate Diploma is awarded. For admission to level 10, doctoral degree, it is necessary to have an Honours bachelor degree. Some schools prefer a Master Degree. People who admitted with Honours Bachelor are registered as Research Master Degree or temporary doctorate course student at early stage and are able to get admission after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early stage. Level 10 is a Higher Doctorate. It is acknowledgement of excellent learning. Generally, learners have first doctorate degree before achieving a Higher Doctorate.

Ireland's NFQ is connected with the qualification which school, university, and Institutes of Technology (IoTs) give. The State Examinations Commission (Sec) is responsible for granting qualifications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graduation. IoTs is a national institute which consists of 13 organizations and has the authority to grant various qualifications which range from level 6 to level 10 of NFQ. Ireland's QQI has authority to give qualifications of middle school, university, and IoTs and integrate education in and out of Ireland's school with level 1 to level 10. So, students, adolescents, and adults are able to receive a certain level of qualification, if they learn whether in school or in other places.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are provided in places beyond school, such 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and adolescent facilities are acknowledged as equal qualification through NFQ and admission into traditional university and school is possible.

In Ireland, anyone over the age of 16 is eligible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courses and programs tailored to a variety of needs are conducted throughout Ireland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curriculum, level 1 to level 6 of NFQ, are generally provided. ⁴⁾

The purpose of Ireland's lifelong education is to provide individual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to qualify for NQF levels 1 to 6 and help in gaining valuable skills needed for employment. It targets those who want to return to education, or who want to go to higher education, or who want to change their career. Its goal is to reduce the loss of social exclusion by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m to develop their potential and live a fulfilling life.⁵⁾ Ireland's Further Education &Training (FET) has a variety of types: job education which is based on workplace, such as apprenticeship, basic voc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which is necessary in preparatory course to go to university or higher education, such as PLCs and VTOS, skill education or training for special jobs which is geared for job seekers or the reemployed, programs which integrate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for people who have no work experience for a long time or the reemployed who want to take level 5 or level 6 program, language, number and IT skill training for people with less than high school, Youthreach, adolescents-targeted education and vocational skill training, such as local training center, and back to school program.

Adolescent centers also provide the course of NFQ. Youthreach is an adolescents' facility which is operated by national education and skill department and provides official education, training, and job-experiencing program, targeting people who suspended study early from 15 to 20 in age. Education Training Board (ETB) in Education Department operates it and it is not closed throughout year. It is full time. Throughout Ireland, 110 centers operate. ⁶⁾ Program varies by center. It has various programs, such as FETAC certification, ⁷⁾ qualification for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high school graduation. In addition, it helps adolescents to have social experience, for example, making friends, improvement of self-esteem, experience of workplace, and leisure activity. It helps them to get much support in an environment of being protected, not judged, and respected. It encourages adolescents to develop their ability as much as possible and guide them to choose career which is suitable for them.

⁴⁾ https://www.fetchcourses.ie/courses/fulltime 180727

⁵⁾ SOLAS.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y 2014-2019. http://www.solas.ie. 2018.8.3

⁶⁾ Population of Ireland is 4.784 million in 2017. It is 1/10 of Korean population. So, the size, which this center covers, can be estimated.

⁷⁾ It means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wards Council. It is Ireland's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 which was built in 2001. In 2012, it gave its function to QQI and it was dissolved. https://en.wikipedia.org/wiki/Further_Education_and_Training_Awards_Council. Search (9/20/2018).

Adolescents are provided with a variety of career options and can apply for higher education preparation, apprenticeship or work after finishing the program. This center runs programs of NFQ $3\sim4.8$

2) Apprenticeship Education

Apprenticeship is an innovative educational method in that students learn what they need as they approach the real world.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Sweden, Scotland and Switzerland, as well as Ireland, have a support system for apprenticeship education as a major way of vocational education.

1 Ireland

In the case of Ireland, apprenticeship is a typical program operated by SOLAS which is lifelong education office. Ireland's apprenticeship course⁹⁾ has 5 to 10 stages of NFQ and it takes 2 to 4 years. In addition, over 50% of field learning is offered and a variety of flexible methods, such as online, outdoor learning, and mixture are provided. Apprentices are hired under a formal contract with employers and can be paid. The national authority overseeing the apprenticeship is SOLAS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uthority). It is responsible for matters related to apprenticeship, such as retaining the national registration of employers who approve the registration of apprentices and national apprentices. In order to be an apprentice, one has to be at least 16 years of age and be eligible for a Junior Certificate.

② Sweden

Apprenticeship training in Sweden is handled by the Apprenticeship Support Cen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4, the center was established. The following problems occurred.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general course and vocational course in high school curriculum, and low admission rate for vocational course. In addition, a rate of study suspension in high school reached 33 %. Accordingly, the issue of high school education reform was raised in 2011. As a result, High School Apprenticeship Act was enacted in 2014 to change vocational education in high schools and a policy was developed to support the school

⁸⁾ http://www.youthreach.ie/what-will-i-learn/(09/20/2018 search date)

⁹⁾ 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Pages/EmployerInfo.aspx 2018.8.3.

apprenticeship system (Yoon, 2018:13).

In apprenticeship, there are school-based apprenticeship and workplace-based apprenticeship. School-based apprenticeship is an apprenticeship activity in which there is more time to stay in school. In school, classes related to work, such as construction, and universal classes, such as English are provided. Although students go to school every day, they gain work experience five weeks a year (Because it is a three-year high school, 15 weeks for three years) Workplace-based apprenticeship is for students who want to stay in the workplace and learn 50% at work for 3 years. They practice in a company about three days a week and m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mpanies with about 50 employees) participate. As the school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mployer and labor discipline is rigorous,, labor exploitation does not take place often. School has a responsibility to visit a workplace necessarily at which students work, but Commune (basic local government) also has this responsibility. 9 out 10 who completed apprenticeship program found jobs and the rate of dropouts was low. The reasons why apprenticeship education is emphasized are as follows: 1) students want a different curriculum from general school education curriculum, 2) it is a company which has knowledge, 3) company knows what kind of employee is needed, 4) EU emphasizes it, 5) 90 %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pprenticeship education found jobs and the rate of dropout was low. (Yoon 2018: Lanlingscentrum interview material)

Swedish schools run 18 curriculums, including 12 vocational courses and 6 university entrance curriculums, as well as an introductory course program. Among vocational education course students, 100,000 students participate in school-based apprenticeship, while 10,000 students participate in workplace-based apprenticeship. Vocational training course is 3-year course. Two thirds of the vocational training courses provide vocational training and the rest carry out general classes. Regarding apprenticeship course, training contract between students, parents, school, and employer is mandatory along with insurance and safety. School pays 500 euros per student. Company pays 3,200 euros per student 3 times a week. A worker in charge of student training is paid 1,000 euros per student. A student, who participates in pprenticeship, is paid 250 euros which is learning subsidy. It is 100 euros more than a general student who is paid 150 euros. Budget for apprenticeship education is 15,000 euros per student each year.

③ Scotland

Skills Development Scotland (SDS) is a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institute in Scotland. It provides youth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hroughout Scotland. There are 69 career centers throughout Scotland in 2017. It cooperates with various partner organizations, targeting adolescents from 16 to 19 in age, schools, and employers.

SDS provides vocational services to schools, where the employment advisors of SDS directly conduct extensive vocational information consulting and guidance services in schools.¹⁰⁾ . It is an activity from 5th grade to the secondary school, providing services tailored to the age and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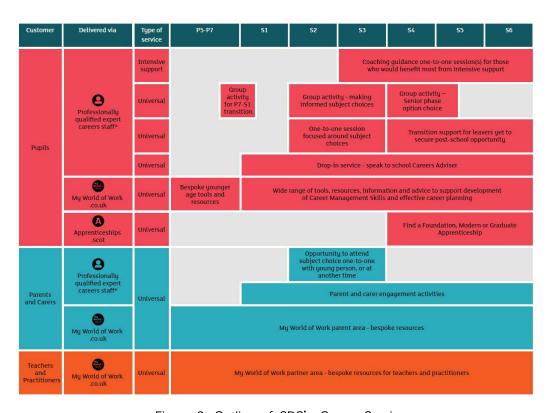


Figure 2. Outline of SDS's Career Service

Source: 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what-we-do/scotlands-careers-services/our-careers-service-in-schools/ (Date of Search: 08/14/2018)

88 -

¹⁰⁾ It is explained that professional workers, who are not teachers, are hired, because teachers are not good at understanding the actual trend of jobs.

Skills Development Scotland is responsible for various apprenticeship courses. Apprenticeship, which SDS provides, is as follows.

- Foundation Apprenticeship: It is a system which targets students and makes them approach workplace-based learning during school life. It is a workplace-based learning opportunity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lasts two years. Courses include civil engineering, software development, and financial service. They are provided once a week.
- Modern Apprenticeship: It is a system in which 25,000 students take internship every year and acquire qualification. They search and apply on the basis of online. SDS provides them with financial support and design so that employers can find competent people they want. Therefore, employers participate in it actively. It is a company-customized apprenticeship system.
-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 It is a master-level apprenticeship course and nine universities operate it. General universities provide 20% of job training and 80% of general class, while this course provides 80% of job training and 20% of general class.

Scotland government nationwide designated twenty one (Glasgow, Edinburgh, and Moray) local groups of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in order to encourage partnership of school, university, and employer. The objective of local group designation is to encourage and support employers to directly participate in school or university and hire more adolescents. Glasgow was appointed first in 2014. As a result, Glasgow has provided 35 secondary schools with opportunities to work with companies for 3-5 years to carry out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workshops, workplace visits and work placements...11)

4 Germany

Germany's apprenticeship¹²⁾ is based on Dual Apprenticeship Training. In Dual Apprenticeship Training, a participant is a trainee in company and becomes a student in vocational school. In vocational school, theories are taught according to

¹¹⁾ https://www.dywglasgow.com

¹²⁾ Homepage of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Germany's education research department, https://www.bmbf.de/en/the-german-vocational-training-system-2129.html and network information center of education policy "Current Condition of Germany's Middle Stage Vocational Education"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095 Its content is summarized (10/01/2018 withdraw)

a set curriculum, and in-house training is practiced (Jeong and Choi, 2013:48). The fact that small businesses and vocational schools cooperate with each other is a big characteristic. This cooperation is regulated by law. Students generally receive education 4 days a week at a company and 2 days at school at maximum. However, they sometimes receive education for an extended period, including 8 weeks at a work field and 4 weeks at vocational school. In dual vocational education, at least 12 hours of vocational school class a week has to take place other than field practice education.

Although apprenticeship training lasts 2-3 years, it can be reduced depending on the ability of a student who takes vocational education. Adolescents under 18 in age can receive dual vocational education only for jobs which the nation acknowledges. As of 2013, the number of vocational education courses is estimated to be 349 (Lee, et al., 2016:113) During the educational course, students receive the benefits of a fixed wage and social security insurance from the company. The average wage for vocational trainees in 2015 is about 1,077,000 won including tax in West Germany and about 996,000 won in East Germany. Additionally, transportation expenses and a certain amount of allowance are provided to the vocational trainee from the country (Lee, et al., 2016:113).

In addition to dual apprenticeship training which takes place in company and school, there is all day vocational school education by which vocational school provides most of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ssistant related occup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other than the handicrafts and industry is mainly carried out by full-time vocational school education. The curriculum is universally one to three and a half years.

There is an apprenticeship program for young adults who have not been provided with apprenticeship at school. Zukkunftsstarter program¹³⁾ is an apprentice system for 25-35 years old unemployed, young adults, and inexperienced laborers. Previous apprentice system targeted school graduates. This system is a joint project undertaken by the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and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It provides early training for early adulthood. It aims to provide

¹³⁾ Homepage of Labor Society Department in Germany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bmas-und-ba-unterstuetzen-zukunftsstarter.html and Homepage of Job Center in Germany https://www.jobcenter-ge.de/Jobcenter/Jerichower-Land/DE/Beratung-Vermittlung/Zukunftsstarter/Zukunftsst_Knoten.html Its content is summarized (10/01/2018 withdraw)

unemployment insurance, social security and obtain a bachelor's degree..

From 2013 and 2015, more than 100,000 people participated in it. It aims to have 120,000 participants by the end of 2020.

Moreover, it operates preparatory education for apprenticeship.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BvB) is a vocational education preparation course for young people who could not seek vocational education, or who have difficulties in entering vocational education due to lack of school diploma, migration background, or disability.

The Professional Employment Counselor of the Employment Service Administration provides aptitude tests and interviews for adolescents who need support, and recommends the aptitude field of the student and provides the appropriate education plan for the student. BvB is operated by the educational operator of social enterprise who has various vocational training. This organization is a private organization, but funded by the Employmen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Students participate in education courses so that they can improve practical ability for jobs which they have chosen. Further, students, who have a difficulty in entering vocational education due to lack of academic background can achieve a qualification for Hauptschule graduation through the support of BvB. In addition to practical ability for jobs and general education, participating students receive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ty training. They also receive language education, basic IT-media education, and support training for seeking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 period is 10 months and participant students receive 250 euros of supporting fund every month.

Bildungskette (Education Chain) is a program which helps transfer process from school to job. As a cooperative project between Germany's Federal Education and Research Department (BMBF), 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BMAS), and Federal Employment Organization (BA), it helps to prevent study suspension and complete education. Its goal is to enable as many young people as possible to start their job training with apprenticeship. Accordingly, it attempts to start orientation for vocation individually and systematically at early stage.

It starts from 7th grade and consists of potential analysis (Potenzialanalysen), entering into a job (Berufseinstiegsbegleitung), and 3 stages of vocation preparatory education (ability-making, clear goal setting, and planning for future). Starting with potential analysis, it provides vocational preparatory education through field

experience so that students can choose their suitable career. It also consistently helps them to achieve certificates of school graduation. Additionally, it helps them to find appropriate vocational education after school graduation or to reach vocational education successfully through transitional program and practice (Cheong, 2015.12.23).

3) Finding of Unemployed Adolescents and Education Support

1) Sweden

In Sweden, one can enroll in school until the age of 19. If an adolescent suspends study, the president of school is supposed to report it to local authorities. If local authorities receive a report, they send a letter to the adolescent. If they do not receive a reply, they actively search for the adolescent by making a phone call or visiting a house (Yoon, 2018)

In "Ungdoms-och elevdatabasen, Youth and pupil data base of Stockholm," every information of adolescents from 16 to 19 in age is included., It finds unemployed adolescents by monitoring resident registration and database UEDB and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dolescents who are not enrolled in school, adolescents from 16 to 19 in age, adolescents which are reported and registered in Stockholm. 14) In 2013, adolescents from 16 to 29 in age, who reside in Stockholm, are 176,700. 9% of them (16,700) are unemployed adolescents. 50% of them are not found. In particular, adolescents from 20 to 29 in age are more difficult to be found in comparison with teen adolescents.

Commune Job center makes a good achievement in finding adolescents by using homepage, Facebook, Instagram in addition to outreach. In order to search for handicapped adolescents or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crimes, secluded adolescents, it does indirect outreach through SNS, phone calls, mail, center visit as well as the direct outreach of professional staff.

Also, in order to attract adolescents to register job center, it allows only participated adolescents to receive social welfare.

Commune Job center offers a customized program for each characteristic of

¹⁴⁾ Homepage of Storsthlm http://www.storsthlm.se/utbildning-och-arbetskraft/gemensam-gymnasieregion/dengemensamma-ungdoms--och-elevdatabasen-uedb.html From this, it is withdrawn (search date: 09/10/2018)

unemployed adolescents. There are programs, such as adolescents who has well-prepared vocational preparation, handicapped adolescent in finding a job, a program for delinquent adolescents, job-searching process, practice education, and internship with pay. It operates Drop-in-center in which people can use resume writing, job searching, job coach, and student counseling without appointment.

School also operates a program for students who have suspended study. The introductory program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missed the 9-year basic education to make up for the missing part of the 9-year basic education and to get into the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here are many language courses, such as Sweden language course for immigrants. Students who suspended study are supported equally and educated through the entrance course of vocational education (from 1st grade to 4th grade). The president of school is supposed to report to local authorities, if there is a student who suspends study. Local authori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 entrance course of NEET.

Lifelong education facility also runs a program for adolescents without a job. The learning motivation course is for unemployed adolescents (those registered in labor department system) from 18 to 25 in age (Commune pays expenses for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and provides support in order for them to achieve a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It supports 13-week supplementary class of high school curriculum. Once a NEET adolescent from 18 to 25 in age is found, Swedish Ministry of Employment (Arbetsformedlingen) encourages the adolescent to take a course of learning motivation. Originally, the government expected 25% as a success rate of this program. 40% of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general course within a year after the course of motivation reinforcement. The rate of motivation reinforcement program was around 70% of the participants. 90% of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program positively.

② Scotland

Scotland's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Institute (SDA) can figure out where all adolescents are located and what they do through '16+ Data Hub System.' In this system, before the age of 16 when compulsory education is over, school teachers input the information of students in school system and send it to SDS. Until the age of 20, this information is updated and shared with the government which has

partnership (Yoon, 2017:19). The data of 220,000, who participate in university, college, and apprenticeship course, is included.

This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2 as a safe net for adolescents who suspended study.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formation, which is given by the government and participant organization, are very important. In July 2017, legislation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support was pass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SDS is to establish relevant information and send it to organization which needs it. Various information comes into '16+ Data Hub System.' They include 360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information on how young people pay taxes after their employment, information on SDS participation in national training programs, information on Employment Department of England. This information is utilized for national index and for finding out adolescents who do nothing. They are contacted through a social media message. If a reply comes, it connects them to job center (Center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support, 2018:38)

16+ Data flows One way & two way data flows (June 2017) Shared partner data set used for 'real-time' NEET tracking and interventions LA Ed DEPT CM DWP CM system SFC CM system Hub Porta SAAS CM SDS CM system system COLLEGE CM (CSS) SDS Regional system (Nationa Operations Staff

Figure 3. Way of 16+ Date Hub Establishment

Source: Yoon (2018) Activity List of Each visited Organization: England, Denmark. P.13.

After finding out adolescents without a job by using data hub, SDN operates its own program, "NEXT STEP" which supports the adolescents. The program, newly launched in 2017, targets 17 and 18 year olds who have not been able to enter the society after their academic suspension, using data from the data hub.. It provides support until the age of 25 in the case of vulnerable groups. It provides support for 6 months. Within this period, it helps them to continue study or get a job. It provides one on one support or group support. It can last up to six months after getting out of unemployment (Center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support, 2018:44)

3. Conclusion

Given the education policies of European countries, one starts career planning and career education from 16 years old.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situation in which adolescents graduate from high school without vocational education until the age 18 or do not have a measure for jobs even after university graduation, they are delayed in entering the vocational society for approximately 10 years due to 3-year high school, 4-year University, and 2-year military service. Expanding the system of both work and school or employment first and learning second is a very necessary direction. In order to expand and motivate this policy, vocational education needs to be made concretely so that it can be realistic and convincing.

NFQ gives a social sign that learning is possible anywhere even out of school and that a way to go to university is not a single track like the case of South Korea but it is enough to make various choices. Acquired levels outside school are acknowledged as equal value in entering university, so it makes admission to university possible. It is necessary for prestigious universities to have reformation so that students with lifelong education can study with general students.

Although the efforts of Keunhye Park's government failed, university open policy needs to lead the time and passion of adolescents who were frustrated at the entrance of university admission or dedicate for employment preparatory schools after university graduation to be used elsewhere. Korean KQF is not born yet, although its draft is being discussed. I hope that school, lifelong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university are soon connected in an integral way so that it can change

the career of adolescents which is hierarchical and unilateral.

Apprenticeship education is a mainstream of European countries. South Korea tries to introduce apprenticeship school in which both industry and school ar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reform helpless class of Korean education so that more students can find jobs through apprenticeship. Prevention of study suspension is meaningful when school provides various selective education course and education courses which are suitable for students. The condition in which school does not change itself and asks students to stay in school for a graduation certificate should not last longer. General high schools have to develop the course of vocational education actively for half of the students who stay in class meaninglessly rather than entrance examination for university.

Regarding the size of outside-of-school adolescents, the number of those aged from 19 to 24 year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60,000 (including thos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and those with general equivalency diploma), approximately 390,000 from 7 to 18 in age (domestic residents: 360,000)

According to statistics of adolescents, which is based on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2017,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is as follows: 3.9% for those aged from 15 to 19 years, 14.3% for those aged from 20 to 24 years, and 21.2% for those aged from 25 to 29 years. The rate increases along with the age group. In the case of adolescents who are outside of school,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the rate increases radically: 0.8% for those aged from 15 to 19 years, 45.9% for those aged from 20 to 24 years, and 40.3% for those aged from 25 to 29 years. The rate of unemployment among those from 20 to 24 in age is almost half. Among those from 25 to 29 in age, 4 out of 10 adolescents are unemployed and its rate is 40%. Unemployment of thoe out-of-school adolescents is very serious.

Considering helplessness in class for adolescents in their late teens who stay in school and the size and unemployment rate of out-of-school adolescents in their early 20's,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o give academic degree and qualification in which apprenticeship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adolescents organiza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es are closely connected.

Stopping school is not the end of education responsibility. Educational opportunity should be guaranteed whether in school or outside of school. Although school-aged adolescents leave school, their contact point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the reporting of the school, or the management of the data hub and their educational opportunity should be guaranteed. School, lifelong educational facility, fac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adolescent facility need to intervene all together so that adolescents can choose their appropriate programs and achieve academic degree and qualification. Before or even after they leave school, adolescents need to stay within educational and social support system. Further, educational system, which guarantees education or training opportunity for them, should be established. Adolescent pay should be a minimum measure to connect local authorities with out-of-school adolescents. Through this connection, local authorities will be able to guarantee an educational opportunity for school-aged adolescents.

Supplementary Table 1 Number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Cat	Category		Number of Students	
Cate	egory	2016	2017	2018
Kinde	rgarten	704,138	694,631	675,998
Elementa	ary School	2,672,843	2,674,227	2,711,385
Middle	: School	1,457,490	1,381,334	1,334,288
	Subtotal	1,752,457	1,669,699	1,538,576
	General High School	1,256,108	1,193,562	1,096,331
High School	Special High School	67,607	67,960	66,693
	Specialized High School	290,632	274,281	252,260
	Independent School	138,110	133,896	123,292
Specia	l School	25,502	25,670	25,860
High Citiz	zen School	61	53	64
High Sk	ill School	897	795	652
Miscellane	eous School	8,159	7,872	8 543
Air and Correspond	Air and Correspondence Middle School		3,970	4 476
Air and Correspor	ndence High School	10,996	10,378	9 881

Source: 2018 main index of education statistics pocketbook, p 5.

Supplementary Table 2.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Enrollment Rates

Year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018	50.6	97.4	97.9	92.4
2017	50.7	97.3	94.2	93.7
2016	49.8	98.6	94.3	93.1

Footnote: Enrollment Rate = (number of school-aged students / school age population) x 100 School age: kindergarten (3-5 in age), elementary school (6-11 in age), middle school (12-14

in age), high school (15-17 in age)

Source: 2018 main index of education statistics pocketbook, p10.

Supplementary	/ Table 3.	Situation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Cappioiniontal	, iable c.	Oitaation	artor riigiri	0011001	Gradadion

(Category	Graduates	People Attending School	People Employed	Other	Entrance Rate
	General High School	407,600	316,590	8,756	82,254	77.7
	Special High School	22,818	13,160	5,187	4,471	55.7
2018	Specialized High School	91,886	33,072	37,995	20,819	36
	Independent High School	44,241	32,132	421	11,688	72.6
	Total	566,545	394,954	52,359	119,232	69.7
	General High School	419,461	324,234	8,942	86,285	77.3
	Special High School	23,272	13,239	5,461	4,572	56.9
2017	Specialized High School	96,022	31,466	48,001	16,555	32.8
	Independent High School	44,853	32,984	380	11,489	73.5
	Total	583,608	401,923	62,784	118,901	68.9

Footnote: Rate of going to school = those going to school among graduates in applicable year /graduates in applicable year x100

Other is the unemployed and unknown, those joining military service, including those who go to special school

Source: 2018 main index of education statistics pocketbook, p9.

Supplementary Table 4. Number of Admission/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Graduat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Category			f Admitted lents	Number of Absent	Temporarily Students	Number of Graduates		
	o ,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General University	343,076	342,841	583,494	566,293	335,650	323,735	
	Industry University	3,018	2,821	8,625	4,029	9,270	6,642	
University	Education University	3,863	3,866	412	434	3,857	3,792	
	Junior College	200,021	198,110	232,834	218,608	171,210	168,780	
	Other	62,683	62,948	90,223	87,480	60,937	60,291	
Graduate School		122,920	123,702	43,874	43,340	97,921	97,511	
To	otal	735,581	734,288	959,462	920,184	678,845	660,751	

Footnote: Other includes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Cyber University, Skill University, miscellaneous university, Major University, Distant University, lifelong learning facility, lifelong learning facility in university inside company, and function university.

Graduates include University-attached graduate school and graduate university

Source: 2018 main index of education statistics pocketbook, p12.

Supplementary Table 5. The Rate of Study Suspension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Year	Higher Education Institute	General University	Education University	Junior College
2017	6.8	4.3	0.8	7.6
2016	6.7	4.1	0.5	7.7
2015	7.5	4.1	0.6	7.5

Footnote: Rate of study suspension =number of students who suspended study/number of registered students x100

Graduates school is exclud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Source: 2018 main index of education statistics pocketbook,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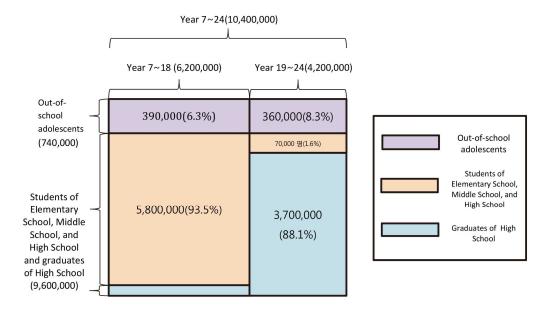


Figure 4. The Size of Out-of-School Adolescents

Source: Yoon (2018), "Research I on Model for Local Society's Support for Adolescents outside School." Chapter 6 (not published yet)

Supplementary Table 6.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Yea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Miscellaneous School	Total
2018	93,027	18,068	10,688	429	122,212
2017	82,733	15,945	10,334	375	109,387
2016	73,972	15,080	9,816	318	99,186

Footnote: 1. Multicultural student: domestic birth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children of immigration, children of foreign family

Source: 2018 main index of education statistics pocketbook, p 11.

Supplementary Table 7.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in Each Age Group

(Unit: 1000 (%))

			15~1	19Years	20~2	24Years	25~29Years	
2016	2016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Total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Total	Less than High School Diploma
Stude		ing students on a leave f absence)	2,670 (88.8)	2,187 (96.8)	1,625 (52.8)	1 (1.7)	430 (12.9)	5 (8.9)
		The Employed	96 (3.2)	10 (0.4)	977 (31.8)	29 (48.3)	2,151 (64.3)	29 (51.8)
		Attending to regular educational institutes (1)	65 (2.2)	38 (1.7)	1 (0.0)	(0.0)	0.1 (0.0)	(0.0)
		Attending to entrance examination school (2)	46 (1.5)	1 (0.0)	10 (0.3)	(0.0)	(0.0)	(0.0)
Non- Stude nts	The Unemplo yed and Economi	Attending to schools and organization for employment (3)	12 (0.4)	1 (0.0)	52 (1.7)	2 (3.3)	63 (1.9)	(0.0)
	cally Inactive	Child rearing and housework (4)	3 (0.1)	0.3 (0.0)	60 (1.9)	16 (26.7)	205 (6.1)	11 (19.6)
	Populati on	Rest, waiting for joining military service, handicap in mind and body (5)	36 (1.2)	7 (0.3)	122 (4.0)	7 (11.7)	118 (3.5)	7 (12.5)
	Other (6)	78 (2.6)	16 (0.7)	230 (7.5)	5 (8.3)	378 (11.3)	5 (8.9)	
The r	number of	population in each age group	3,006 (100.0)	2,260 (100.0)	3,077 (100.0)	60 (100.0)	3,345 (100.0)	56 (100.0)

Footnote: attending to regular educational institutes, attending to entrance examination school, attending to schools and organization for employment, child rearing and housework, a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previous one week at the time of the survey.

Other experiences include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preparation for admission to school Based on the criterion of OECD, unemployed adolescents are (1)+(2)+(3)+(4)+(5).

Source: 2016 Statistics Korea..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riginal Source

Supplementary Table 8. OECD Rank of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from 15 to 19 in Age (2013) (Unit: %)

Rank	Country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Germany	3.7	3.8	3.7	3.5	3.0	2.8	2.9	2.5
2	Czech Republic	2.7	3.5	3.8	3.7	4.0	3.2	3.2	3.0
2	Latvia	6.0	6.8	6.4	7.3	7.2	3.2	3.8	3.1
4	Poland	2.4	3.6	3.6	3.9	3.9	3.5	4.0	5.2
4	Luxembourg	2.1	2.7	6.3	2.3	2.9	3.5	2.4	2.6
4	Slovenia	4.4	2.5	3.2	3.4	3.8	3.5	4.6	5.0
7	Norway	4.0	4.2	3.5	3.2	3.0	3.6	3.5	2.8
8	Sweden	4.4	5.5	5.3	4.1	4.1	4.1	4.3	3.5
8	Netherland	2.1	3.6	3.1	3.4	2.4	4.1	3.6	3.6
8	Japan	4.1	4.9	4.6	4.8	3.8	4.1	3.7	
11	Denmark	4.0	5.0	5.5	5.3	5.7	4.6	3.5	3.7
11	Estonia	4.9	8.0	6.1	6.4	6.8	4.6	7.0	5.5
13	Finland	5.1	5.1	5.1	5.1	4.7	4.8	5.5	5.2
14	Swiss	9.4	8.1	4.8	4.9	4.7	5.0	4.7	3.9
15	Austria	5.7	6.6	5.7	5.8	4.8	5.1	7.2	5.7
16	Slovakia	5.7	4.5	4.6	5.3	5.6	5.4	5.7	6.3
17	Hungary	5.7	5.6	4.6	4.8	4.8	6.0	6.8	6.1
17	Iceland	4.5	7.3	6.2	6.8	7.1	6.0	5.5	3.5
19	Canada	7.1	8.1	8.2	7.7	7.3	6.7	7.1	6.7
19	Belgium	5.5	5.7	5.9	6.1	8.3	6.7	5.4	4.3
21	Portugal	7.1	6.9	7.4	8.0	7.9	6.9	6.1	5.5
22	OECD average	7.6	8.4	7.9	8.0	6.9	7.1	6.8	6.3
23	Australia	6.3	8.3	8.1	7.8	7.2	7.3	7.2	6.0
24	New Zealand	7.0	9.4	8.6	8.6	8.7	7.7	7.1	7.1
24	South Korea	7.0	7.0	8.5	8.7	8.5	7.7	-	
26	France	5.8	6.8	7.9	7.1	6.9	7.8	7.9	7.4
27	United States of America	7.6	8.8	7.6	7.1	7.7	8.4	7.6	7.0
28	England	9.8	9.6	10.0	9.5	9.6	9.1	8.4	8.7
28	Israel	22.2	24.7	23.6	24.2	10.7	9.1	7.8	8.8
30	Greece	8.2	7.9	7.5	8.3	10.7	9.3	10.5	8.4
31	Ireland	8.5	11.0	10.1	9.4	9.6	10.6	9.1	8.0
32	Italy	9.6	11.2	12.5	11.4	12.0	11.0	11.2	11.4
33	Spain	11.2	14.2	13.5	12.5	11.8	11.2	9.7	9.1
34	Chile	- .	17.0	1	16.1	- .	12.7	_	_
35	Mexico	17.8	18.4	17.6	18.1	17.0	15.5	15.3	14.5
36	Turkey	37.1	28.7	25.6	24.8	_	22.2	21.0	18.7

Supplementary Table 9. OECD Rank of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from 20 to 24 in Age (2013) (Unit: %)

					. 7.90 (Z	/			(01
Rank	Country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Luxembourg	9.8	8.7	7.5	8.5	10.3	8.2	9.0	9.3
2	Iceland	5.2	11.5	12.2	11.0	10.0	8.7	9.4	6.6
3	Netherlands	5.6	7.9	7.4	6.9	7.1	9.5	10.4	8.8
4	Swiss	9.1	10.9	11.1	10.6	12.1	10.2	12.4	12.2
5	Germany*	14.0	13.7	13.7	12.6	11.2	10.3	10.1	9.3
6	Norway	7.0	9.4	9.0	10.4	10.7	10.9	10.7	10.2
7	Japan*	11.1	12.6	12.4	12.1	12.4	11.0	10.1	- .
8	Austria	12.0	12.0	13.4	10.9	11.7	12.1	12.0	11.7
9	Sweden*	12.9	16.5	14.2	12.9	13.5	12.9	12.0	11.8
10	Denmark	8.2	10.1	12.1	11.9	14.5	13.4	12.7	12.4
11	Slovenian	10.3	11.4	9.3	11.3	11.4	13.7	13.4	17.2
12	Canada	13.3	15.5	15.6	14.9	15.1	13.9	14.8	14.4
12	Czech Republic	10.7	11.6	11.2	11.7	12.2	13.9	13.2	13.1
14	Czech Republic	10.6	13.1	13.6	12.8	13.4	14.2	12.3	11.6
15	Finland	12.0	15.1	15.8	14.3	15.2	15.5	15.6	18.3
16	New Zealand	14.1	17.6	17.8	16.5	16.9	15.6	14.5	14.9
17	Estonia	10.7	19.8	22.4	15.8	17.1	16.8	16.1	15.0
18	Latvia	14.0	27.3	30.4	21.6	20.3	17.5	16.6	13.3
19	Israel*	37.5	37.5	37.4	37.4	18.7	18.1	18.5	18.6
20	OECD average	15.5	18.3	18.7	18.3	17.6	18.2	17.4	16.9
21	Belgium	14.1	16.1	18.0	17.1	17.5	18.6	18.9	15.8
22	United States of America	17.2	20.1	19.4	18.5	17.7	18.8	17.5	15.8
23	England	18.3	19.1	19.3	19.1	20.2	19.1	17.0	15.6
24	France	16.6	20.0	20.6	20.3	20.1	19.4	18.4	20.9
25	Poland	15.6	16.4	17.6	18.6	18.9	20.2	19.2	18.5
26	Slovakia	16.6	17.1	22.1	21.4	20.2	21.0	18.6	18.8
27	Chile	İ	27.5	_	24.6		21.1	İ	_
28	Ireland	14.6	20.8	26.1	26.1	25.7	22.0	21.2	19.8
28	Portugal	13.5	15.7	16.4	18.7	22.7	22.0	23.9	20.9
30	Korea	22.2	23.0	23.5	23.3	22.5	22.2	1	-
31	Mexico	26.5	27.6	26.1	26.2	25.0	25.2	24.9	25.3
32	Hungary	18.4	20.9	21.5	22.4	22.5	26.1	20.6	18.4
33	Spain	19.0	25.9	27.0	28.9	30.6	32.4	29.0	27.2
34	Greece	16.7	17.8	21.1	24.1	30.4	33.1	31.3	28.1
35	Italy	22.0	24.8	27.1	28.4	31.5	33.7	35.0	33.9
36	Turkey	46.1	46.1	43.7	39.6		35.9	36.3	33.2

Supplementary Table 10. OECD Rank of the Rate of Unemployed Adolescents from 25 to 29 in Age (2013) (Unit: %)

			110111 2	0 10 20	, .go (_0.0,			(01110. 70)
Rank	Country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Luxembourg	13.0	11.9	7.6	10.5	10.9	6.5	12.6	12.4
2	Iceland	6.7	14.0	14.9	11.0	11.1	9.1	11.0	7.8
3	Sweden	9.5	11.5	11.6	10.2	11.1	10.3	11.1	10.8
4	Swiss	10.1	12.8	12.8	10.9	11.3	11.3	11.8	8.4
5	Norway	9.2	10.6	13.0	11.8	11.4	12.6	13.3	14.0
6	Netherland	7.8	9.6	9.9	10.3	10.6	12.9	13.4	12.1
7	Austria	13.8	15.2	15.5	13.5	13.7	14.1	14.7	13.0
8	Germany	17.0	16.9	17.8	15.7	14.6	14.7	13.4	12.8
9	Finland	12.4	15.5	16.8	15.6	15.4	16.0	17.0	18.2
10	Canada	15.0	16.4	16.8	17.2	17.4	16.1	17.6	17.6
11	Australia	14.1	16.8	15.9	14.6	15.1	16.9	16.7	15.5
12	Japan	18.2	18.5	18.5	17.9	18.0	17.3	15.8	
13	Denmark	8.6	12.3	14.3	16.2	16.2	17.7	16.1	15.2
14	England	15.8	18.0	18.1	17.3	18.3	17.9	17.0	16.2
14	Israel	22.9	24.2	22.4	21.5	17.7	17.9	15.4	15.1
16	New Zealand	16.0	17.9	20.1	17.9	18.9	19.0	17.5	17.9
17	Czech Republic	17.7	20.1	20.4	19.5	20.4	19.4	18.9	18.9
18	Estonia	18.5	28.2	26.1	20.8	21.0	19.6	18.1	15.6
19	Slovenia	9.9	11.6	12.4	15.6	15.7	19.8	20.3	19.4
20	OECD average	17.3	19.9	20.3	20.2	19.7	20.5	20.2	19.3
21	United States of America	19.5	21.8	21.2	21.7	20.2	20.6	19.8	20.0
22	France	19.7	19.9	21.0	21.5	22.4	21.6	22.5	23.4
22	Portugal	15.1	14.8	15.7	18.1	18.3	21.6	22.7	19.5
24	Latvia	16.1	25.6	29.3	27.6	26.7	22.5	19.3	18.7
25	Chile	-	27.3	-	24.9	-	22.6	-	_
26	Poland	21.5	20.8	21.9	21.6	22.4	24.1	21.6	20.9
27	Ireland	14.3	22.0	24.2	28.1	26.5	24.3	23.6	21.2
28	Korea	25.5	26.5	25.9	24.9	24.7	24.5	-	_
29	Hungary	23.1	25.1	28.6	26.6	27.3	27.0	23.7	21.5
30	Slovakia	24.7	24.9	27.5	27.8	27.5	27.5	28.2	23.5
31	Mexico	29.5	30.4	29.3	29.2	28.2	27.8	28.4	27.5
32	Italy	24.5	26.4	28.2	28.4	29.0	31.8	35.4	35.3
33	Spain	18.3	25.7	27.8	28.9	31.6	34.7	31.8	30.4
34	Turkey	43.5	44.9	41.8	40.2	. –	36.7	38.1	35.4
35	Greece	21.3	22.1	23.8	30.0	37.1	41.1	41.2	39.9
	Belgium	16.5	16.3	18.3	18.0	18.5	_	19.8	20.2

References

- Yoon, Chul-Kyung (2018). Country Visits Report: Ireland, Sweden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Yoon, Chul-Kyung (2018). Country Visits Report: UK, Denmark.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Yoon, Chul-Kyung et al. (2018). Research I on Model for Local Society's Support for Out-of-School Teens.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ot published yet)
- Yoon, Chul-Kyung et al. (2017). Research II Customized Measures According to the Route of Out-of-School Youth. (Research Report 17-R14).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ee, Chul-sun et al(2016). Research on Youth Policy of Other Countries (Policy Report 2016-11).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eong, Su-jeong (2015.12.23.) School dropout prevention policies in Germany. (Retri eved: 18.6.29.)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 MenuId=54&nTbCategorySeq=10057&pageIndex=4&pageCondition=10&nTbBoard ArticleSeq=150128&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 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
- Cheong, Su-jeong (2016.1.27.) (Retrieved: 18.10.1.) Vocational education of secondary level in Germany.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095
- Cheon, Ju-yeon et al. (2013). Implications of Characteristics of Apprenticeship System in Other Countries and Implications on Innovation of Korean Vocational Education (Policy Report 2013-194). Seoul: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2018). An Abroad Training Report on School Dropout Preven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Sejong: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An Annual Report of Education Statistics. Chung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Germany (Retrieved:2018.10.1.) https://www.bmbf.de/en/the-german-vocational-training-system-2129.html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of Germany (Retrieved: 2018.10.1.)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6/

bmas-und-ba-unterstuetzen-zukunftsstarter.html

Job Center of Germany (Retrieved: 2018.10.1.) https://www.jobcenter-ge.de/Jobcenter/Jerichower-Land/DE/Beratung-Vermittlung/Zukunftsstarter/Zukunftsst_Knoten.html

Storsthlm of Sweden (Retrieved: 2018.8.10.)http://www.storsthlm.se/utbildning-oc-arbetskraft/gemensam-gymnasieregion/den-gemensamma-ungdoms—och-elevdata basen-uedb.html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Glasgow of Scotland (Retrieved: 2018.8.14.)https://www.dywglasgow.com

Skills Development Scotland (Retrieved: 2018.8.14.) 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what-we-do/scotlands-careers-services/our-careers-service-in-schools/

NFQ of Ireland (Retrieved: 2018.8.3.) http://www.nfq-qqi.com/

Youthreach of Ireland (Retrieved: 2018.9.20.)http://www.youthreach.ie/what-will-i-learn/Apprenticeship in Ireland (Retrieved: 2018.8.3.) 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Pages/EmployerInfo.aspx

Furthur Education Training Course Hub (Retrieved: 2018.07.27.) https://www.fetchcourses.ie/courses/fulltime

FETAC (2012). (Retrieved: 2018.9.20.) https://en.wikipedia.org/wiki/Further_Education_and_Training_Awards_Council.

SOLAS (2014).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Strategy 2014-2019. (Retrieved: 2018.8.3.) http://www.solas.ie.

Chul-Kyung Yoon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Dropout Prevention & Alternative Educ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ducation

PhD in Sociology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Work Experience

Member of Youth Policy and Advisory Committee (Welfare Subcommittee)

Member of National Council for School Violence Measures

Member for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of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Northeast Asia Member of Youth Protection Evaluation Committee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Research

2016 2017 Customized Measures for Performance Channel of Out-of-School Teens I, II

2013 2014, 2015 out-of-school Teens Panel Survey and Support Plan I, II, III

2013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of drop-Out Student Education Support Project

2013 Study on Introduction of Juvenile Impact Assessment

2012 Policy Study on Termination of Drop-out Students



◆ 제1세션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

대안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 방안

Institu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Jong Tae Lee Director, ERICK(Educational Resear ch & Innovation Center in Korea)

대안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 방안

이 **종 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1. 서론 : 대안교육 제도화의 필요성

사람들은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하여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대안학교는 겉보기에도 일반적인 학교와 아주 다른 내용과 방식을 가져야 한다. 교과서가 없거나 있어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이 없거나 있어도 성적에 별로 신경을 쓰지않아야 하며, 교실 수업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프로젝트 등 외부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대안학교들은 당연히 정규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대안학교 다니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선입견을 바탕으로 하여 대안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사정을 가진 아이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예체능 분야에 특기를 가진 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남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 까닭에 공부도 잘 하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아이가 대안학교에 간다고 하면 뭣 하러 그런 학교에 가느냐고 적극 만류한다.

우리나라에 근대 학교가 등장한 것은 약 130여 년이 되었고, 대중화한 것은 아무래도 해방 후 혹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학교'에 관한 고정 관념은 매우 깊게 뿌리를 내렸다. 그 핵심은 국가의 통제와 지원,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엄격한 규율, 시험 성적에 의한 서열화와 진학 등이다. 대부분의 교사나 부모들은 시험 성적이 곧 개인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학교제도의 운영 원리가 되었고,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교육문화로 정착되었다.

불과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근대 학교제도가 이처럼 철용성을 이루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대안 교육이나 대안학교를 특히 낯설게 보고 따라서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

¹⁾ 서양식 근대학교의 시작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존속해 온 '배재학교'(1885년 설립)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133년째이고, 1895년 고종의 「교육조서」를 기준으로 하면 123년째이다.

는 데 그치고자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다름'에 대한 관용이 낮아서 대안학교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 대안학교가 공식적(제도적)으로 등장한 지 올해로 만 20년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대안학교들은 여전히 경계 혹은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외적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이다. 윤철경 등(2017)에 따르면,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초중고 학생 5만 명 정도가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들 중 학교 복귀나 유학 등을 택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아 있는 수가 35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 중에도 마음은 떠난 채 몸만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부와 담을 쌓은 지 오래이며 기존의 학교 문화와 교사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당연한 귀결로 이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한다. 요컨대, 오늘날의 학교는 예전에 알고 있었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학교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는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학교체제(제도, 교육과정, 학교 문화 등)는 더 이상 새로운 세대의 호응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내려진 지 오래이다.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특성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들을 적극 환영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기존의 학교교육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군이기 때문이다. 특히 35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정규 학교로 인가 받은 특성화중고등학교나 각종학교 대안학교들을 제외한 수백 개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활동비와 학교 시설 유지비, 그리고 교사인건비를 거의 전액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반 학교들은 교육 시설이라 하여 교통안전이나 교육환경 보호, 각종 세제, 보건 의료, 전기요금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만,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훨씬 높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불법' 시설이다. 동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학교와 유사한 교육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동 시행령 67조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몇 학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마디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보아도 훌륭하고 또 그곳의 학생이나 부모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더구나 그 학생들 중 상 당수는 그곳이 아니면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은커녕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학교제도는 산업시대의 산물로서 이미 그 수명이 끝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상황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은 미래의 마중물로 여겨 오히려 반겨야 할 대상이다. 우리 사회가 대안교육을 홀대하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관행(기존의 학교제도)에 의한 새로운 변화(대안교육)의 억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의 해결 방향은 대안교육의 제도화, 즉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쉽 지 않은 일이다. 이하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안교육 제도화의 현 수준과 한계

우리 사회에서 대안교육은 이미 제도화의 길을 걸었다. 다만,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 장에서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그 한계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1) 현행 대안교육 제도화의 수준

① 제1차 제도화 : 특성화(중·고등)학교 설립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학교와 성격이 다른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논의는 1990년대 초중반 무렵 시작되었다. 80년대 후반 경제적으로 풍요한 환경에서 자란 도시의 일부 학생들이 90 년대 초반에 중고생이 되면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공부 잘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기존 의 학교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이 만화나 자동차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몰두하면서 수업이나 교사의 요구를 무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비 행이나 일탈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학교문화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단아들이었 다.2)

²⁾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두 가지의 선행 사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89~1992년 사이에 유례없이 급증한 청소년 자살이다. 이로 인해 199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교육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등장하였고, 1993년 봄에 발간된 한국교총의 기관지 『새교육』은 당시 상황을 '한국교육의 총체적 위기'로 진단하였다. 다른 하나는 전교조 창립으로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1994년 1차 복직하면서 겪은 정신적 충격이었다. 이들은 해직 전 학생들과는 격의 없는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5년 만에 만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아무런 교감이 될 수 없는 낯선 아이들로 변해 있었다.

1994년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1년 뒤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약칭 5·31 교육개혁 방안)'에는 이러한 성향의 아이들을 위한 '대중문화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듬해 10월에는 교육부가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 중도탈락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중도탈락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대안학교 설립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후 1년 남짓한 준비를 거쳐 1998년 3월, 산청 간디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한국 최초로 대안교육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특성화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중학교)와 제91조(고등학교) 이다. 이 조항은 5·31 교육개혁의 일환(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1996~1997에 진행된 교육관계법 제·개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성격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등학교 중도탈락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의 대안학교 설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고 중학교 설립은 이보다 좀 늦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2018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출처: 교육부 2018. 4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특성화중학교(대안교육)[17교 : 공립5교/사립12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시재소
대구	한울안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창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8편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신독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저나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ï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전남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ï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공립	'18	함평군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70-	-10	0 = 0 = 1, 1 = 2 = 1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지정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부산	지구촌고등학교	사립	'02	연제구	충남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03	서천군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03	동구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강화군	和田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전북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화성시		고산고등학교	공립	'18	완주군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수원시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영광군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전남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안성시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주시
강원	팔렬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산청군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건비나	원경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청원군	경남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산청군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천안시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26교 : 공립5교/사립21교]

② 제2차 제도화 : 각종학교 대안학교 제도의 도입

의미상으로 볼 때 대안교육이 가능한 특성화학교의 등장은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국가 주도의 거대한 관료체제로 운영되는 학교 제도 속에서 학부모들이 대안교육을 체감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영향력 측면에서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1994년부터 시작된 공동육아 운동의 여파로 2000대 초반에 이르러 상당수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초등 수준의 대안학교의 설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3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초등교육 과정이 의무교육이라는 점과 초등학교에서는 중도탈락이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 수준의 대안학교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그러한 시도가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제65조)을위반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자녀들을 기존의 학교에 내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도전의 첫 결실은 2001년 봄 부천 산어린이학교와 광명 법씨학교의 개교였다. 당시산어린이학교의 개교에 대해 교육청은 물론 공안기관들까지 나서서 관심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물리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후 수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러한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³⁾ 공동육아 운동은 70년대부터 빈민탁아운동을 해 온 일부 운동가들에 의해 기존의 수용소 방식의 어린이집 대신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기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은 획일적이며 통제 위주의 교육, 그리고 시험과 성적 경쟁을 일삼는 기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수 없다고 생각했다.

교육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이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제재해야 했으나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부가 선택한 전략은 급증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었다. 일단 그들의 존재나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교육 관련 법령 체제 아래에 둘 수 있는 방안을찾자는 것이었다. 그 산물이 바로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60조의 3 신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의3(대안학교)

-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시행일 2006.3.25]]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한 이 조항은 실제로 2년 뒤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인 '대안학교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이 난항에 부딪쳐 2007년 6월에서야 공포되었기 때문이다.4) 그러나 이 시행령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사실상 정규학교인 특성화학교와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2년 뒤(2009년 11월) 이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로써 시설 기준은 물론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배치등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아울러 이들 학교가 타학교 학생들을 위탁받아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2차 법제화는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제정한 당초의 취지는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기존의 대다수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인가 후 학교 고유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과정이 교육청 간섭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물론 상당수의 대안학교들은 완화된 기준조차 충족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그 결과 제2차 법제화는 대안교육과 거리가 먼 새로운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⁴⁾ 당시 정책연구를 통한 시행령 초안은 2006년 초에 교육부에 제출되었으나 학교 설립 인가,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을 지나치게 완화시켰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1년 이상 논의를 거쳐 사실상 특성화학교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 공포되었다.

변질, 활용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경기 TLBU글로벌학교나 서울의 실용음악학교처럼 보통의 사립학교를 손쉽게 설립하는 통로가 되었고, 이후에는 주로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합법화 통로로 활용되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사립 대안학교들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2~2013년부터 공립학교 설립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교육청 산하의 부적응 학생 위탁 교육기관을 각종학교 형태로 전환한 것이어서 위탁기능 위주로 운영되지만, 일부 학교들은 자체 학생 모집을 병행하기도 한다. 한 가지특이한 사례로 서울시의 오디세이 학교를 들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일종의 전환학년제 형태로 고1 1년 과정의 오디세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2018년부터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례는 각종학교 대안학교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각종학교 대안학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출처: 교육부 2018. 4월 대안학교 및 대 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대안학교(각종학교)[39교 : 공립11교/사립28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설립 연도	ᅟᄼᇄᇧ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지재소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고)	새립	6 9	중구	신당동	강원	해밀학교(중)	새립	'18	강원 홍천군
서울	여명학교(고)	새	'10	중구	남산동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새립	'11	충북 음성군
시스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충북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고)	공립	'12	종로	숭인동	ਠੜ	다다예술학교(초·중 통합)	새립	'17	충북 청주시
대구	대구해올중고등학교(중·고 통합)	망	'18	대구	달서구		은여울중학교(중)	용	'17	충북 진천군
	인천청담학교(고)	새	'11	연수	동춘동	ᄎ나	여해학교(중)	용	'13	충남 아산시
인천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망	'12	남동	구월동	충남	드림학교(고)	새	'18	충남 천안시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망	'13	남동	논현동	저나	월광기독학교(중)	새	'18	전남 함평군
광주	월광기독학교(초)	새	'14	서구	화정동	전남	성요셉상호문화학교(고)	새	'18	전남 강진군
대전	그라시아스음악고등학교(고)	새	'12	서구	롱메고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새	'11	경북 포항시
케다	그라시아스음악중학교(중)	새	'17	서구	콩미모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중·고 통합)	새립	'13	경북 문경시
울산	울산두남중고등학교(중·고 통합)	공립	'17	울산	울주군	경북	산자연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TLBU글로벌학교(초·중통합)	새	'08	경기	고양시	01	나무와학교(중)	새	'14	경북 영천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새립	11	경기	연천군		링컨학교(중·고 통합)	새립	'17	경북 김천시
	쉐마기독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유파스학교(고)	사립	'18	경북 경산시
경기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새립	11	경기	용인시		꿈키움중학교(중)	공립	'14	경남 진주시
0/1	경기새울학교(중)	양	'13	경기	이천시	거나	지리산중학교(중)	새립	'14	경남 하동군
	광성드림학교(초 중 통합)	사립	'14	경기	고양시	경남	고성음악고등학교(고)	공립	'17	경남 고성군
	하늘꿈학교(중·고 통합)	새립	'16	경기	성남시		밀양영화고등학교(고)	공립	'17	경남 밀양시
	중앙예닮학교(중·고 통합)		'18	경기	용인시					

③ 보조(완)적인 조치들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으로는 위탁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그리고 대안교실 사업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직접적인 대안교육 제도화 사례는 아니지만, 사업 또는 정책의 형태로 대안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보조적인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탁 대안교육〉

엄밀하게 말해서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을 본래적 의미의 대안교육이라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정책은 주로 학교 부적응이나 징계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격리하고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초기의 특성은 약화되고 위탁 프로그램에 대안교육적인요소들을 가미하려는 노력이 경주되면서 대안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위탁 대안교육이란 어떤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적은 그대로 둔 채 다른 교육기관 (혹은 시설)에 보내서 일정 기간 대안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학생을 수탁하는 기관은 대안교육을 하는 정규 학교일 수도 있고(특성화학교 중 부적응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 각종학교 대안학교일 수도 있다.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비인가 대안학교 일부에서도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시설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을 만들기도 한다.

위탁 방식의 대안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었다. 5) 서울시교육청은 점증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 '대안교육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내 3곳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위탁 대안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위탁된 학생은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지만, 시험이 있을 때는 원적 학교에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위탁 기간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뒤에 전국 각지에 생긴 위탁 대안교육 기관들은 대개 1~3 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위탁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위탁 대안교육 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 발전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비진학고3 학생들을 위한 직업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산업정보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3년부터 이 중 한 곳(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위탁 대안교육을 전담하는 '꿈타래학교'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대안교육지원센터'이를 설치하

⁵⁾ 위탁교육의 효시를 90년대 후반 각 시도교육청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학생 수련원 등에 보내 일주일 정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이 당시의 프로그램은 비록 일부에서 대안교육이라고 부르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순화교육의 성격이 더 강했다.

⁶⁾ 이 기관은 2013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개칭하였고, 현재 시내 46개 기관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다.

고 시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맺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기관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위탁 대안교육 MOU를 체결, 운영해오고 있다. 다른 시도 교육청들의 경우 위탁교육은 대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탁 전문 교육기관을 부설하거나 민간 청소년복지기관 또는 위탁교육 자체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과 협약을 맺어 학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실시한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전남 교육청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한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 위탁 과정을 병설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대개의 위탁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설 자체도 열악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방식은 상당한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다. 그러나 학교로서는 본교 학생들도 다수가 지도하기 어려운 부적용학생들인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위탁학생들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일이었다. 결국 이학교의 위탁 과정은 5년만에 학생 수련원 부설의 별도 과정(이음학교)으로 분리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립으로 설립된 각종학교 대안학교들 중에서도 위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상과 같은 위탁 대안학교들에 관한 전국적 현황은 아직 정리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에 살펴 볼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과 관련한 정책이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에 대한 호칭은 90년대 중후반에 '중도탈락자'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것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점차 '학업중단자'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학교를 그만 두었을 뿐이지 학업 자체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시되었다. 이 호칭은 널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2012년에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14년 여가부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호칭이 공식화되었다.

'지원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을 의무교육 단계(초·중) 취학의무 유예자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자, 고교 과정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입학 후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초중고 취학 연령층에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학교 밖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해에 206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 법률은 대안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육지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주로 검정고시 준비를 돕거나 정규 학교에 복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권유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대안교육 제도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이 법률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일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나 건강진단비를 지원받기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비나교사 인건비의 일부도 지원을 받고 있다. 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중학교 단계를 졸업하고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위 센터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도한다. 이처럼 학교밖청소년 지원 정책은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최소한이나마 기댈 언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안교실 정책〉

교육부의 공식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4582)는 대안교실이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이며, 2013년부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의 대안교실 관련 연수 자료 역시 이와유사하게 대안교실을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으로 정의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학교 안에서통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학년별로) 대안학급을 만들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교실이다. 교육부의 2014년 보도자료에따르면, 당해연도에 대안교실을 운영한 학교가 1,542교이고 참여한 학생들이 17,949명이었다. 조사 대상 학생 중 58.5%가 자신의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고 56.2%가 결석, 지각, 조퇴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3년간의 대안교실 운영 학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현재 대안교실은 많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교과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나름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자나 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대안교실을 설치하거나 담당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교실을 설치한 학교에서도 대개는 경험이 적은 기간제 교사나 신참 교사들이 그 운영을 맡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도		201	5년			201	6년		2017년			
	고	중	초	소계	뎌	중	초	소계	고	중	초	소계
서울	40	31	2	73	65	34	4	103	68	34	8	110
부산	3	85	0	88	7	57	0	64	6	59	0	65
대구	6	21	2	29	7	25	6	38	0	19	11	30
인천	12	33	8	53	11	24	9	44	19	33	20	72
광주	7	14	5	26	13	12	5	30	11	14	0	25
대전	16	14	0	30	12	17	0	29	6	17	0	23
울산	4	6	3	13	6	12	7	25	6	21	7	34
세종	1	1	0	2	4	2	0	6	4	3	0	7
경기	62	129	25	216	87	153	41	281	60	181	15	256
강원	16	17	1	34	19	13	2	34	17	18	2	37
충북	11	3	1	15	13	4	3	20	8	10	2	20
충남	48	11	0	59	51	15	0	66	37	13	0	50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12	23	5	40	14	21	5	40	9	30	2	41
경북	21	14	3	38	28	22	7	57	29	31	0	60
	123	193	238	554	138	193	262	593	121	184	0	305
제주	10	10	0	20	10	14	0	24	9	15	0	24
합계	392	605	293	1,290	485	618	351	1,454	410	682	67	1,159

〈최근 2015~2017 대안교실 운영 학교 현황(2017년 대안교실 연수자료에서 인용)〉

2) 현행 대안교육 제도의 한계

① 특성화(중·고등)학교의 문제

한국에서 대안교육 제도화의 물꼬를 텄던 특성화학교는 학교교육의 변화에 나름의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⁷⁾ 내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중요한 것들 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안교육에 관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는 모두 획일성과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만, 특성화학교는 정규학교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로 각기 다른 근거 법률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양자는 외견상 설립 인가를 위한 기준이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 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교사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⁷⁾ 많은 사람들은 혁신학교 성과가 대안학교의 실험적인 노력들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⁸⁾ 이 '대안학교'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법률적 용어임을 나타낸다.

등의 온갖 지원을 보장받지만, 후자(공립 제외)는 현재 거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법적인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로부터 '학교'로서의 지위를 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각종학교 대안학교의 '대안학교'라는 명칭으로 인한 혼동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법안 제정 당시부터 줄기차게 변경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나 학술적인 글에서 대안학교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것이 보통명사인지 법률적 용어인지 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여간 큰 불편이 아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거나 심지어 설립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로 호칭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셋째, 특성화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일선 학교들이 번번 이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안학교의 특성이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장학사들은 주어진 규정과 지침에 따라 특성화학교들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감독하면서 일반 학교들과 동일하게 바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98년 3월 개교시 교육부장관 명의로 시달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지침'에서 보통 교과와 판이한 '특성화 교과'의 개설을 허용했고 이미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지율학교 제도에 기대어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화중학교는 그러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현행 교육과정 편성 원칙의 20% 증감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대안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편성 여지가 너무 적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특성화학교 역시 대안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각종학교 대안학교의 경우처럼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한 학교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어야할 것이다.

② 각종학교 대안학교의 문제

각종학교 대안학교 제도에 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일관된 원칙이 없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학교들(예컨대, 특정 종교교육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도 인가를 받은 곳이 있다. 아마도 아직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인가 과정이 느슨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이미 당초의 설립 취지와는 판이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제도가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 특정종교 편향의 교육을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영리 목적의 교육활동을 합법화해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원이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들 학교 중에는 매우 영세한 상황에서 오직 교육적인 열정만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장차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지원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의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각종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현재로서 아무런 전망도 없다.

이상의 문제들과 별개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지만 여전히 비합법 영역에 남아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비단 '불법 영역'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들 학교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적인 불신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3. 추가적인 대안교육 법제화 노력들

기존의 대안교육 관련 제도는 이미 두 가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 수백 개에 이르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학교 대안학교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1) 제18대 국회의 대안교육 법제화 시도

제18대 국회의 김춘진 의원은 2009년 '대안교육기관 등에 관한 지원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비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의 제도권 밖 대안교육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설립 인가나 학력인정을 해주지는 않더라도 모든 대안학교들로 하여금 등록하게 하고 또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다. 등록이나 신고는 최소한 이들을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였었다. 이를 두고 대안교육 관계자들이나 교육학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2) 19대 국회의 대안교육 법제화 시도

김춘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대안교육 관련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였다. 그는 이전의 법 안이 국내 대안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 첫해인 2012년 가을에 이를 정리하여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것들은 이전의 법안을 손질한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비인가 대안학교의 등록제, 홈스쿨링 신고제, 장관 직속의 대안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다고 본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2건이었는데, 비교적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안학교 관계자들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다. 당초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등록제에 대하여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교육부가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 현장들은 강제로 폐쇄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즉, 대안교육연대는 물론 많은 대안학교 현장들이 강력 반발하였고 공개적인 시위와 성명서 등을 통해 교육부를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19대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재발의한 법률 제·개정안 역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3) 20대 국회의 대안교육 법제화 시도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대안교육 관련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먼저 김병욱 의원 등이 2017년 9월에 '대안교육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대안 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국회에서 김춘 진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에서 홈스쿨링 부분이 제외한 것 외에는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부와 법제처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세연 의원 등이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등록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김병욱 의원 안과 유사하나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 역시 동일한 상태로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재로서 이들 두 법안의 입법 전망은 밝지 않다. 교육부 검토 의견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 자체에 부정적이고('신중 검토'), 그밖에 학교 명칭 사용이나 취학의무 유예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기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와 다른 형태의 대안교육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형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안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것은 기 존의 이원화된 대안교육 제도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 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 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2019년 중에 대안교육 제도에 관한 교육부 안이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제3차 대안교육 제도화의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

1) 핵심 쟁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제화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앞의 두 차례 제도화에 이은 '제3차 제도화'가 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한 노력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안교육 제도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답은 '대안교육 제도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제도화가 곧 법제화라고 볼 때, 그동안의 법제화 과정에서 끝내 넘지 못한 벽을 그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를 보자. 이 조항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초등교육 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3년의 중학교 교육을 의미한다.

-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률에서는 취학의 권리와 의무로 변질되고 있다. 즉, 교육을 받고 시키는 일이 학교에 다니는 일로 치환된 것이다. 아래 제1항에서 '학교를 둔다.'는 표현은 외견상 자연스럽지만, 여기서말하는 '학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성립되는 법률적 용어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4조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으며, 동법 제65조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제67조 제2항에서는 그 운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9)

대통령령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서는 '학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 즉 시설·설비, 교사(校舍), 체육장, 교지(校地),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학교'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설립 인가'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괴롭히는 '학교'의 실체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학교'가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이 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①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새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학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엄청난 재원이다. 대표적으로 체육장과 교실을 짓는 데 필요한 교지는 아무리 작아도 3~4천평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 지역의 경우 평당 천만 원이라고 할 때 교지를 마련하는 데에만 줄잡아3~4백억이 필요하다. 기준을 완화한 각종학교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뜻만 가지고 도전한 대안교육 실천가들에게는 도전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다른 하나는 까다로운 인가 과정이다. 위의 조항에서는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이 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고 길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교육청 실무자가 인가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면 민간인 설립자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이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간섭과 개입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엄격하게 표준화 되어 있고 학교 운영은 관료적 방식으로 세세하게 통제되고 있다. 교육제도 안에서 이러한 관행을 벗어난 교육철학이나 교육활동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

⁹⁾ 이 벌칙은 본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6년 5월 29일에 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해서 도입된 NEIS 체제는 학교의 운신 폭을 훨씬 더 제약한다. 이런 체제 아래서는 제대로 된 대안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당수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들이 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보통의 학교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은 이런 현실의 단면을 말해준다. 상당수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3차 대안교육 제도화의 핵심 쟁점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지위를 갖도록 할 조건과 방식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상식이나 교육학적인 눈으로 볼 때 틀림없는 학교이다. 교육학에서 말하는학교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학교'가 된다. 이 양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2) 제3차 대안교육 제도화의 추진 방향

누구든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대안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벽이 너무 높다. 따라서 대안교육 제도화의 핵심은 이들 장벽의 높이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즉, 학교 설립에 필요한 물리적 기준을 대폭 낮추고, 실무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가되도록 하며,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교사 집단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두 측면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만이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지극히 상업적이거나 특정 종교 또는 극단적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을 공권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가의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격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한 국민들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이불가피한데,국가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교육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명분일 수 있다. 국가만이 공공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주체도 아니고 국가가 개입했다고 해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이, 국가 혹은 공권력이 교육 내용이나 학교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도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컨대, 국가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위 세가지 장벽을 크게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해결의 실마리는 '장벽을 낮춘다'는 말의 새

로운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양적 개념, 즉 조건의 기준이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두 차례의 제도화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접근으로는 다양한비인가 대안학교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도 배제되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화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변화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질적 변화란 기존 학교체제의 구조 변화 혹은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가급적 기존 학교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보완적으로 시행 가능한 변화의 방향들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① 학력인정 방식의 전환

우리나라는 학교 설립의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대신 출석일수의 2/3 이상만 채우면 실제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학력에 턱없이 미달되더라도 졸업장을 받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대안교육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법령에 규정된 학교 설립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출석보다는 교육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학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중등학교 졸업자격 시험 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초기의 교육이 내용이나 방식, 진도 등에서 학교 혹은 개인별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의 대안학교나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들은 별도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교육의 성과로 학교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10)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최소한 의 학교교육 질 관리를 위해서 학교 제도 전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장의 전면적인 도입은 상당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비인가 대안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도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이 제도가 기존의 방식에 비해 매우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왕 실시되고 있는 검정고시 제도와 연계하면 의외로 쉬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검정고시를 새롭게 인가되는 대안학교들의 졸업자격 시험으로 가름하되, 이들 학교가 시설이나 교사(教師)에 관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출 경우 검정고시 과목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학교제도 틀 안에서 대안교육이 존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¹⁰⁾ 그렇다고 국가가 대안학교나 사립학교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이나 위생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청)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립학교협의체가 국가의 인정 하에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

② 학교 설립 준칙주의 시행

5·31 교육개혁 당시 '고교 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된 적이 있었다.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된 목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준칙은 현행 법령(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상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높은 문턱이었지만, 이 높이를 각종학교 대안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춘다면 현행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시키는 데 유효할 것이다. 준칙주의는 인가 과정에서 교육청의 자의적 방해나 지연 행위를 상당 부분 배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1)

그런데, 준칙주의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자유학교 설립 방식처럼 형식적인 기준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자유학교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다. 자유학교법 제2장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적시하지 않은 채 '개교 전년도 8월까지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을 구비해야 하는데, 신설 1년차는 14명, 2년차는 24명, 3년차부터는 32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건물은 관할 지역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칙에 대한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다. 학부모가 교장을 선임하며, 별도로 감독관을 임명하여 학업성취도 등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간섭은 거의 없지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유사시에 개입할수는 있다(송순재 외, 2016).

물론 이러한 준칙주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교육적 상식이 구비되어 있어 야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듯이, 만일 특정한 종교 이념이나 과도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들이 많다면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③ 미래사회에 대비한 실험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입법(대만 사례)

기존의 학교제도는 근대 산업사회와 함께 등장하고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따라서 지식기 반사회 등장 이후 많은 미래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과 학교제도를 역설해 왔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2000년대 초에 OECD가 제시한 핵심역량 개념이나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각국의 교육과정 개혁 및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학교 설립이 그 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지나치게 무감각하게 대응해 왔다. 2016년 초

¹¹⁾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 자원의 부족이다. 기존의 공립학교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웬 학교 신설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소규모라는 점과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권한 밖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지난 2년 동안 교육을 포함해 국내의 모든 분야에서 위세를 떨쳤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제안들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6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선언적인 내용만있을 뿐 기존 학교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담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2022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정시 확대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기존 학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창안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 교육이나 정부가 소홀히 한 미래사회 대비 노력을 대신 해온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존 학교제도의 미래상을 예견하고 준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개척적이고 실험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실험교육 관련 정책은 매우 시사적이다.

Taipei Times(台北時報, 2018. 1. 21) 보도에 따르면, 12) 대만에서는 1999년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설립 및 비전통적인 교육 시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후 실험교육기관들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한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 '공립 초·중학교 운영 민간위탁법' 13)를 제정, 공포하였고, 2018년 1월에는 '학교형태 실험교육법¹⁴'와 '고등학교 이하 단계 비학교유형 실험교육법' 15)을 제정, 공포하였다. 2018년 1월 현재 대만의 실험교육기관은 61개(공립 51, 사립 3, 비 학교기관 7)이고 학생 수는 4,841명이었다. '학교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는 실험교육이 초중등 수준을 넘어고등교육 수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¹²⁾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태욱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¹³⁾ 영문 법명: Act Governing the Commissioning of the Operation of Public Elementary and Junior Secondary Schools to the Private Sector 이 법의 목적은 공립 초중학교의 운영에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¹⁴⁾ 영문 법명 : Enforcement Act for 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 이 법의 목적은 '교육혁신과 학교 기반 실험교육을 진작시키고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교육방법과 내용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¹⁵⁾ 영문 법명: Enforcement Act for Non-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 at Senior High School Level or Below 이 법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호하고 학교 밖에서도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도 록 하기 위한 것임.

④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특례(일본 사례)

2015년부터 시행된 '학교박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거나 학교 복귀를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혹은 공부가 싫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그다지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학력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정고시가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기는 하나 배워야 할 내용이나 방식이 학교의 그것과 똑같아 여기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많지않다. 최근 일본의 부등교 학생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례 입법 사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16)

2016년 12월 7일 일본 참의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일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일본의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하여 초당파의원연맹 의원들이 만든 법률안으로서 부등교 학생들이 정규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각종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률의 기본 이념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7)

- 1. 모든 학생이 풍부한 학교생활을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 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 2. 등교거부학생이 할 다양한 학습 활동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별 등교 거부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등교거부학생이 안심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 정비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다.
- 4. 의무교육단계의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 나이 또는 국적 기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그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길러 풍부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기타 관계자의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동법 제6조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해 야 할 기본지침에 '등교거부 학생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조는 등교거부 학생에 대한 모든 상황을 교직원 및 관계자들이 공유하도록

¹⁶⁾ 이하의 내용은 이종태(2017)에서 부분 전재한 것임.

¹⁷⁾ 이하의 내용은 이종태(2017)에서 부분 전재한 것임.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교거부 학생에 대하여 그 실태를 고려하여 특별히 편성 된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비 및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교육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하고 있다.

법 제정 운동에 앞장 선 아사쿠라 가케키 도쿄슈레 이사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일본 내의 대안교육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학교교육 틀 안에서 부등교자들이 의무교육을 이행하도록 돕는다는 한정적인 의미로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학교 밖의 다양한 대안교육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주류 세력들이 기존의 공교육 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 의미를 갖는 법의 제정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양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본의 보수 세력은전자를 기존의 공교육 제도를 부정하거나 결정적 흡결을 가진 것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공교육 제도를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봄으로써양자를 구분하여 후자만을 인정하고 있다.

5.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은 시작하자마자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해방 후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도 남북 분단과 강력한 군사 독재체제 하에서 관리되었다. 그 결과 오랫동안 학교교육은 교육적 배려보다는 정권과 이념적 안보를 위한 통제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고 오늘의 경직된 체제로 굳어졌다. 우리나라가 현재 대안교육에 가장 인색한 나라로 남게 된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할 것인가를 국가가 세세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존 학교체제를 뛰어넘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성공 여부는 우리 교육이 구태를 벗고 미래로 향하는 문을 나서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서울:교육개혁위원회

송순재 외 편저(2016). 『덴마크 자유교육』 개정판. 서울:민들레

윤철경 외(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Ⅱ. (연구보고 17-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태(2017). 2017 대안교육포럼 자료집. 서울: 대안교육연대.

Rachel Lin et al. (台北時報).(2018.1.21.) Taipei Times. New law widens scope of experimental education (검색일: 2018. 1. 21)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18/01/21/2003686165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

학력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경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한울고등학교 교장

저서

대안교육 이해하기(민들레, 2007)

사회정책의 제3의길 :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공저, , 백산서당, 2008)



Institu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Jong Tae Lee

Director, ERICK(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in Korea

1. Introduction: Need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People seem to have a few preconceptions about alternative education or alternative schools. First of all, alternative schools should seemingly have very different contents and methods from ordinary schools. The schools should not pay much attention to textbooks whether they have textbooks or not. They should not pay much attention to grades whether they have exams or not, and they should run curricula based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various field works and projects rather than regular classes. Therefore, alternative schools tend to think that they are not regular schools. In other words, if you say academic degree is attainable while attending an alternative school, people will be surprised. Finally, based on the previous two preconceptions, I think that alternative schools have children with special circumstances only- for example, children who have hard time fitting in to school life, have special talents in the field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or children whose parents have a very different educational philosophy. Therefore, if a child who is an exemplary student and gets good grades goes to an alternative school, the child is dissuaded.

It has been about 130 years since the modern form of school appeared in Korea, and it became popularized after the liberation or after the 1960s. ¹⁾ Despite that, preconceptions about 'school' have been deeply rooted throughout our society. At its core are government control and support, formalized curriculum and rigorous discipline, and ranking and admission by test scores. Most teachers and parents

¹⁾ Although there are some theories about the beginning of Western-style modern school, it is the 133th yea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isappearing School' (established in 1885) that has existed since the establishment, and based on the "Educational Record" of Kojong in 1895 It is 123 years.

believe that test scores are personal capability. This idea became the principle of the school system, and an educational culture which is difficult for anyone to reject.

The reasons why the modern school system was form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bout 50 years, can be analyz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this article,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is situation makes alternative education or alternative school particularly more unfamiliar and therefore difficult to root into our system. Our society especially has a lower tolerance for 'different', so the alternative schools face more difficulties. It has already been 20 years since alternative schools have emerged officially (institutionally) into the system, but they are still subject to vigilance or rejection.

Nevertheless, the problem is that the situation itself is helping to deteriorate rather than resolve the crisis facing our education system. There are two external forms of crisis. One is the fact that many students continue to leave institutional schools. According to Yoon Chul Kyung et al. (2017), there are about 50,000 elementary and middle/high school students leaving the school every year, yet of those, there are about 350,000 students who decide not to go back to school or study abroad but to stay out of school. The other one is that many of the children who remain in school are only staying physically but without their minds. Most of them have long been not studying hard and taking actions that refuse existing school culture and teacher authority. As a natural consequence, they graduate from school without necessary knowledge and moral judgment skills for society. In short, today's schools have already become something that is not, compared to what they once knew or expected of.

Alternative education and alternative schools have an alternative meaning to this educational reality. It has long been diagnosed that the existing school system (system, curriculum, school culture, etc.) is no longer acceptable to new generations. Time has chang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have changed as well. If we pay attention to this point, our society should welcome and support alternative education and alternative schools because they are the source that can help overcome the challenges faced by the existing schooling. Especially, it is the only alternative for 350,000 out-of-school youth.

But reality is the complete opposite. Hundreds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except for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are almost

entirely financially dependent on paren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school facility maintenance, and faculty costs. Regular schools are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us enjoy countless benefits such as traffic safety, education environment protection, various kinds of tax, health care, electricity bill, etc.. However,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whose students have much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 schools are not getting any support. Not only that,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re, in fact, 'illeg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mary school education law. According to Article 65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use of the name "school" is forbidden and educational activities similar to schools should not be conducted. Article 67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stipulates that violation of the ordinance leads to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fines of up to 20 million won. Some schools have recently been accus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this provision and are being prosecuted at court.

This circumstance is unreasonable in a word. This is becaus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alternative schools which are great in term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where students and parents are highly satisfied, and many of them have no choice but to stay there to learn,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is illegal rather than supporting it. That is not the only problem. The existing school system is a product of the industrial age and it has long been argued that the time for the existing school system is over and thus that a new paradigm of education system is demanded. Therefore, various educational attempts by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should be welcomed as the way to the future.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our society is neglecting alternative education will only be seen as the suppression of new changes (alternative education) by the past practices (existing school system).

The solution to this irrationality is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that is, institutionally recognizing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But it is not as easy as you can see from the fact that the 10 year efforts have not been very fruitful. In the following, we will look at what are clues to the solution and prerequisites that must be met for that.

2.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In our society, alternative education has already taken a step to the institutionalization. Yet, it is still only partly recognized. In this chapter, we will divide the contents into three components and identify the limitations.

1) Current state of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① The first institutionalization: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schools (middle and high schools)

The debate about building school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existing regular schools in Korea began around the mid-1990s. In the late 1980s, some of the students in the city growing up in an economically affluent environment became a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 in the early 90s. And, there was a phenomenon of challenging the long-settled school culture, 'obedient to teachers with good grades.' Some students immersed themselves in their favorite fields, such as cartoons and cars and showed a tendency to ignore the demands of class and teachers. They did not disobey or misbehaved, but fly or deviate, but they were heretics who were difficult to be accepted in the conventional school culture.²⁾

One year after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Education Reform Committee in 1994, it announced the "Educational Reform Measures for Establishing a New Education System for Leading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abbreviated to the May 31 Education Reform Plan) which included the idea of opening up 'popular culture school' (Educational Reform Commission, 1995) for those students. In October of the following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dropout prevention" which was aimed primarily at preventing the growing number of school dropout. In March 1998, six alternative

²⁾ There are two precedents for this change. One is the unprecedented increase in youth suicide between 1989 and 1992. As a result, the slogan "President of Education" appear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1992, and the "New Education" of KFTA published in the spring of 1993 diagnosed the situation as "a total crisis of Korean education". The other one was the psychological shock that teachers who had been dismissed as the foundation of the union had suffered during their first reinstatement in 1994. Although they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pre-dismissal students, the children they met in five years turned into strange children who could not emotionalize.

specialized high schools including Sancheong Gandhi High School opened after a year or so prepar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lternative education has entered the conventional system.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schools is Article 76 (middle school) and Article 91 (high schoo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s provision was made during the educational reform legislation process between 1996 and 1997 as part of the May 31 education reform (build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reflecting the policy of creating the new kind of school mentioned above. However, at that time, the dropout of high school was outstanding, so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high school was the pri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middle school was promoted a little later. Since this progress is a widely-known fact, further explanation is to be skipped.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status of the specialized middle and high schools that are currently operating in 2018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2018. Status of alternative schools and alternative education specialized middle and high schools in April).

Specialized middle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17 schools: 5 public/12 private]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h ment	Location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h ment	Location
Doogu	Hanulan Middle school	Private	'18	Dalseonggun	Congress	Palryeol middle school	Private	'11	Hongchungun
Daegu	Gachang middle school	Private	'18	Dalseonggun	Gangwon	Gajeong middle school	Public	'17	Chuncheon city
Gwangju	Pyeongdong middle school	Public	'14	Gwanju city	- Jeonbuk	Jeonbuk Donghwa middle school	Public	'09	Jeongup city
	Durye nature middle school	Private	'03	Hwasung city	Jeonbuk	Jipyeongsun middle school	Private	'02	Kimjae city
	Leewoo middle scool	Private	'03	Sungnam city		Yongjeong middle school	Private	'03	Bosunggun
Gyeonggi	Hunsan middle school	Private	'03	Yongin city		Sungji songhak middle school	Private	'02	Younggwanggun
	Joongang catholic school	Private	'06	Suwon city	Jeonnam	Cheongram middle school	Public	'13	Gangjingun
	Hangyeoreo middle school	Private	'06	Ansung city		Nasan arts middle school	Public	'18	Hampyeonggun
					Gyeongnam	Namhae Sangju middle school	Private	'15	Namhaegun

Specialized high school	(alternative education)[26	schools: 5 public/21 private]
-------------------------	----------------------------	-------------------------------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 hment	Location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 hment	Location
Busan	Jiguchon high school	Private	'02	Yeonjaegu	Chungnam	Gongdongchae Vision high school	Private	'03	Seocheon gun
Daegu	Dalgubul high school	Private	'03	Donggu		Saein high school	Private	'99	Wanjugun
Incheon	Sanmaeul high school	Private	'00	Ganghwagun	Jeonbuk	Pureonggum high school	Private	'99	Mujugun
Gwangju	Dongmyeong high school	Private	'99	Gwangsangu	Jeonbuk	Jipyeongsun high school	Private	'09	Kimjae city
	Durae nature high school	Private	'99	Hwasung city		Gosan high school	Public	'18	Wanju gun
Gyeoggi	Gyeonggi daemyeong high school	Public	'02	Soowon city		Youngsansung high school	Private	'98	Younggwang gun
	Leewoo high school	Private	'03	Sungnam city	Jeonnam	Hanbit high school	Private	'98	Damyanggun
	Hangyeorae high school	Private	'06	Ansung city		Hanul high school	Public	'12	Koksunggun
	Jeonil high school	Private	'05	Chuncheon city	Gyeongbuk	Gyeongju hwarang high school	Private	'98	Gyeongju city
Gangwon	Palryeol high school	Private	'06	Hongcheon gun		Gandi high school	Private	'98	Sancheong gun
	Hyeonchun high school	Public	'14	Hyeongsung gun		Wankyeong high school	Private	'98	Hapcheon gun
Chungbuk	Yangup high school	Private	'98	Chungwongun	Gyeongnam	Jirisan high school	Private	'04	Sancheong gun
Chungnam	Hanmaeum high school	Private	'03	Cheonan city		Taebong high school	Public	'10	Changwon city

② The second institutionalization: Introduction of various schools to alternative school system

By definition, the emergence of a specialized school where alternative education is attainable is a change that can give unusual impact on the existing uniformed school education. However, in reality, in the school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led bureaucracy, it was too small for parents to experience the education in terms of quantity and impact. Moreover, in the aftermath of the co-parenting movement that began in 1994, many elementary school parents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chools at elementary level in the early 2000s, but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respond to these requests at that time.³⁾

³⁾ The co-parenting movement began with the idea that some activists who have been carrying out the poverty-stricken child movement since the 1970s have decided that instead of the existing camp-type daycare centers, parents will be the subject and educate children in a nature-friendly and communal way. Parents who raised their children here thought that they could not send their

The main reason behind that was that elementary education curriculum was compulsory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did not face the problem of dropout. As a result, some parents have started opening alternative elementary schools based on their experiences in establishing and running cooperative child care centers. Of course, they knew that such an attempt was a violation of the current law (Article 65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but decided that they could no longer leave their children to the institutional school. The first outcome from these challenges were the opening of the Bucheon Children's School and the Kwangmyung Byupssi School in the spring of 2001. At that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ublic security agencies showed some interest in opening the alternative school for children at the time, but did not take physical or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all. For the following few years, thes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especially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increased dramaticall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in a dilemma. It was legally necessary to sanction, but it was physically hard to sanction parents' actions for their children's desirable education. The strategy chose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to draw the increasingly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into the system. First, it recognized their existence or necessity and sought ways to place them under educational institution. The result is the revis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Article 60-3),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05. The contents are as follows.

Article 60-3 (Alternative Schools)

- ① For students who want to stop their studies or want to receive education tailored t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t is a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lternative school") that offers different kinds of education such as experience-oriented education or on-the-job training, education focusing on temperament, which falls in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0 (1). And, Article 21 (1), Article 23 (2) and (3), Article 24, Article 26, Article 29, Article 30–4, and Article 30–7 shall not apply to alternative schools.
- ② Alternative schools can integrate and operate the cours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hildren to a school that had uniform, controlled education.

③ Establishment prerequisites, curriculum, school term, educational qualification of alternative school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stipulated in March 24 2005] [[Effective as of 2006.3.25]]

This provision, which was supposed to be implemented one year later, actually took place two years later. This was because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was promulgated in June 2007 due to difficulties. However, this enforcement ordinance, in fact, provided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tandards of schools were virtually similar to those of specialized schools, which are regular schools, so that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could not be even approachable. The Ministry of Education largely revised this rule two years later (November 2009). This has greatly expanded the school's autonomy in terms of curriculum, textbooks, teacher placement, as well as facility standards and allowed these schools to be entrusted to educate other schools' students.

Yet, as a result, the second legislative process did not attain its original purpose. The original intention of Article 60-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to attract alternative schools outside the school system, but the majority of the existing unaccredited schools did not apply for accreditation. The key reason was the fear that the school's own philosophy of education or curriculum could be constrained by intervention by the school board. Of course, it was also important that a number of alternative schools were in poor conditions that could not meet even the relaxed standards.

As a result, the second legislation began to be transformed and used as a means to meet new educational demands far from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early days, it became a channel to easily establish ordinary private schools like Gyeonggi TLBU Global School or Practical Music School in Seoul, and later it was used as a legalized passage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mainly for religious education. Of course, in some rare cases, private alternative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for maladjusted students. From 2012 to 2013, however, a new trend has emerged, namely the

⁴⁾ The draft of the Enforcement Decree through the policy study was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early 2006, but it was suspended due to excessive relaxation of school establishment authorization, curriculum, and teacher qualifications, and after one year of discussion.

establishment of public schools. Most of these schools are based on the entrustment function, which is the transfer of maladjusted student entrusted education institutions under the school board to various types of schools, but some schools also have their own student recruitment. One particular example is the Odyssey School in Seoul. Since 2015,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been operating a kind of transitional grade type for grade 10 Odyssey School for the first year, which has been converted to various alternative schools since 2018. This example illustrates that various alternative schools can be used as a variety of means to implement new types of education.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schools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2018. Status of alternative schools and alternative education specialized middle and high schools in April)

Alternative schools (different kinds of schools)
[39 schools : 11 public schools/28 private schools]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 hment	Location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 hment	Location
	Seoul practical music high school (high)	Private	te '09 Joonggu Gangwon		Gangwon	Haemil school (middle)	Private	'18	Gangwon Hongcheongun
Caral	Yeomyung school (high)	Private	'10	Joonggu Namsandong		Global Sunjin school (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1	Chungbuk Eumsung gun
Seoul	Jiguchon school (elementary)	Private	'12	Guro Ohryeudong	Chunabuk	Korea Politech Dasong school (high)	Private	'12	Chungbuk Jaecheon city
	Seoul Dasom tourism high school(high)	Public	'12	Jongro Soongindong	Glullgouk	Dada arts school(elementary·middle integration)	Private	'17	Chungbuk Cheongju city
Daegu	Daeguhaeol middle and high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integration)	Public	'18	Daegu Dalseogu		Eunyaeul middle school (middle)	Public	'17	Chungbuk Jincheongun
	Incheon cheongdam school (high)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Chungnam	Yaehae school (middle)	Public	'13	Chungnam Asan city	
Incheon	Incheon haemil school (middle, high integration)	Public립	'12	Namdong Guwoldong	Chungham	Dream school (high)	Private	'18	Chungnam Cheonan city
	Incheon hannuri school (elementray, middle, high integration)	Public	'13	Namdong Nonhyeondong	Jeonnam	Walgwang school (middle)	Private	'18	Jeonnam Hampyeonggun
Gwangju	Walgwang school (elementary)	Private	'14	Seogu Hwajeongdong	Jeonnann	St. Joseph culture school (high)	Private	'18	Jeonnam Gangjingun
	Gracias music high school (high)	Private	'12	Seogu Domadong		Handong global school (elementary·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1	Gyeongbuk Pohang city
Daejeon 	Gracias music middle school (middle)	Private	'17	Seogu Domadong	Gyeongbuk	Global sunjin school (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3	Gyeongbuk Mungyeong city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 hment	Location	City	Name of school (level)	Туре	Year of establis hment	
Ulsan	Ulsandunam middle high school (middle, high integration)	Public	'17	Ulsan Uljugun		San nature school (middle)	Private	'14	Gyeongbuk Youngcheon city
	TLBU global school(elementary·middle integration)	Private	80,	Gyeonggi Goyang city		Tree and school (middle)	Private	'14	Gyeongbuk Youngcheon city
	Tuesday morning arts school (high)	Private	'11	Gyeonggi Yeongcheon gun		Lincoln school(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7	Gyeongbuk Kimcheon city
	Shema school (elementary·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1	Gyeonggi Yangju city		Upass school (high)	Private	'18	Gyeongbuk Gyeongsan city
Gyeonggi	Saenarae school (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1	Gyeonggi Yongin city		Ggumkium middle school (middle)	Public	'14	Gyeongnam Jinju city
	Gyeonogi saeul school (middle)	Public	'13	Gyeonggi Icheon city	Cananam	Jirisan middle school (middle)	Private	'14	Gyeongnam Hadong gun
	Gwangsung dream school (elementary-middle integration)	Private	'14	Gyeonggi Goyang city	Gyeongnam	Gosung music high school (high)	Public	'17	Gyeongnam Gosung gun
	Haneul dream school (middle high integration)	Private	'16	Gyeonggi Sungnam city		Milyang movie high school (high)	Public	'17	Gyeongnam Milyang city
	Joongang Yaedam school (middle-high integration)	Private	'18	Gyeonggi Yongin city					

(3) Assistive measures

The relevant policies include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out-of-school youth support policies, and alternative classroom projects. These are not direct exampl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but they are supplementary measure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form of projects or policy.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There are quite some skeptical views about whether alternate education in the form of entrusted education can be called alternative education in its original meaning. This policy was primarily created from the motivation to isolate and protect students who are unable to attain normal school life due to school maladjustment or disciplinary measures. Over time, however, these early characteristics h a v e dwindled,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add alternative educational elements to the entrusted program, making it one area of alternative education.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is a program that allows a student to take alternative educ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y sending him or her to an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facility) when having some issues or problems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status. The institution entrusting students here may be a regular school for alternative education (schools whose main target is students with maladaptive behaviors at the specialized schools) or various types of alternative schools. In addition, entrusted education is being offered at accredited lifelong learning centers or som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In some areas without these institutions, institutions or individuals who are engaged in welfare projects may establish facilities for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It was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at started alternative education on the entrusting system for the first time.⁵⁾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t up the 'Alternative Education Comprehensive Center' in 2001 as a countermeasure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maladjusted students and appointed three accredit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in the city of Seoul as an entrusting alternative curriculum management institution. The entrusted student is trained according to the program provided by the trustee institution, but when taking exams, he or she is sent to the primary school to take the test. The period could be temporary or permanent until graduation if desired. Nevertheless, the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that opened later across the nation tend to prefer a temporary period of about one to three months.

Since then,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developed into various forms. In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re were three industrial information schools that could be called vocational entrusted education institutions for non-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ince 2003, one of them (Seoul Industrial Information School) established and operated 'Ggumtarae School' ⁶⁾ which is in charge of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 Meanwhile, the city of Seoul opened 'Alternative Education Support Center' in 2001 and financially supported it by networking with unaccredited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city. And,

⁵⁾ In the late 1990s, the boards of education began to send out students with maladjustment to the student training center for a week or so to receive special education. However, even though some of the programs at that time were called alternative education, the nature of enlightenment education was actually stronger.

⁶⁾ This institution was renamed a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in 2013' and currently has network contracts with 46 institutions.

some of these institutions have sighed MOU on entrusted alternative education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othe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ntrusted education is usually offered in the form of entrusting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s to juvenile training facilities or entrusting students with contracts with facilities established for the main purpose of private youth welfare institutions. Then in 2012, Jeon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ed a specialized high school (Hanul High School) for alternative education and introduced a new way to consolidate the entrusting process. This approach attracted considerable expectations in light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outsourced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lacked educational expertise and had poor facilities.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schools to accept entrusted students regularly as maladjusted students were already difficult to teach. After all, the entrusting process of this school was separated into separate courses of a student training center (joint school) within 5 years. As mentioned above, among the various alternative schools established by the public, there are more and more schools that perform entrusting functions.

Unfortunately, there is no organized national data for such school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If the contents reviewed so far are related to the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or facilitie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the Office of Education, the following contents are related to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label of a teenager who dropped out of school was 'dropout' in the mid-late 1990s, but gradually changed to 'those who discontinued studying' because of the negative image it had in the 2000s. However, in the 2010s, criticism was raised that they only quit the school but not stopped studying itself just because they left school, and the alternative was 'youth outside school'. This title has broadly shaped social consensus. In particular,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s 'Out-of-School Student Support Ordinance' was enacted in 2012,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4 enacted the 'Out-of-School Student Support Law' (hereafter referred to as 'support law'), which made the title official.

'Support Law' prescribes out-of-school adolescents as the ones who are not enrolled in the compulsory education stag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ose who have been absent for more than three months, those who have not enrolled in high school, or have been expelled or expelled after enrollment. In short, it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ll young people who are not currently attending school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The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counseling, education, employment, and self-reliance to these youths, and establish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respectively. This law was enacted in 2015, and 206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were established throughout the country.

This law does not mention direct support for alternative education. Even if it says 'educational support,' it is mostly about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sing to help prepare for the general equivalency diploma or return to regular school.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ponder about this legislation in relation to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because the students in th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are "outside school". In other words, out-of-school youth support under this law is the only legitimate benefit for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ccordingly, after 2015, som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have begun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for food expenses and health checkups. In some areas, some of the school expenses and faculty costs are also supported. In addition, adolescents who have graduated from unaccredited alternative middle schools may benefit from the support program for the general equivalency diploma provided by the center. As such,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policy can be regarded as a last resort for the alternative school students who are not part of the system.

(Alternative classroom policy)

According to the official blog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ttp://if-blog.tistory.com/4582), alternative classroom is a separate class that organizes and manages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s to replace part or all of the regular education curriculum. It is introduced as part of the expansion of alternative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Similarly, the data on the alternative education classes of the Korea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Education Discontinuance and the Alternative Education Support Center for the Youth Policy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lso defines alternative classrooms as classrooms that run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s separated from general classes to meet diverse and special

educational need. In summary, in an alternative classroom,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in attending regular classes are gathered separately (by grade), and alternative education classes are provided to meet their need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4, there were 1,542 schools and 17,949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alternative classroom in the year. Of the students surveyed, 58.5% recognized their positive changes, and 56.2% answered that their absences, lateness, and early leave have decreased.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school management in the last three years.

As shown in the table, the alternative classrooms are currently located in many schools and appear to be a breakthrough for many students who are not interested in regular classroom instruction or are unable to keep up with the schedule. However, in order for this program to be more practically helpful to the students, the passive awareness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needs to be improved. This is because they generally tend to be reluctant to set up or take charge of alternate classrooms. Therefore, even in the school where the alternative classroom is established,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less experienced teachers or the new teachers take charge of the classroom, and as a result, they do not achieve satisfactory results despite their good intent.

⟨Table-⟩ Recent status of schools that operate alternative classrooms between 2015 and 2017 (Cited in the 2017 training materials for alternative classroom)

province		20	15			2016				2017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 ntary School	Sub total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 ntary School	Sub total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 ntary School	Sub total	
Seoul	40	31	2	73	65	34	4	103	68	34	8	110	
Busan	3	85	0	88	7	57	0	64	6	59	0	65	
Daegu	6	21	2	29	7	25	6	38	0	19	11	30	
Incheon	12	33	8	53	11	24	9	44	19	33	20	72	
Gwang-ju	7	14	5	26	13	12	5	30	11	14	0	25	
Deajeon	16	14	0	30	12	17	0	29	6	17	0	23	
Ulsan	4	6	3	13	6	12	7	25	6	21	7	34	
Sejong	1	1	0	2	4	2	0	6	4	3	0	7	
Gyeonggi	62	129	25	216	87	153	41	281	60	181	15	256	
Gangwon	16	17	1	34	19	13	2	34	17	18	2	37	
Chungbuk	11	3	1	15	13	4	3	20	8	10	2	20	

province		20	15			20	16		2017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 ntary School	Sub total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 ntary School	Sub total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 ntary School	Sub total
Chungnam	48	11	0	59	51	15	0	66	37	13	0	50
Jeonbuk	0	0	0	0	0	0	0	0	0	0	0	0
Jeonnam	12	23	5	40	14	21	5	40	9	30	2	41
Gyeongbuk	21	14	3	38	28	22	7	57	29	31	0	60
Gyeongnam	123	193	238	554	138	193	262	593	121	184	0	305
Jeju	10	10	0	20	10	14	0	24	9	15	0	24
total	392	605	293	1,200	485	618	351	1454	410	682	67	1,159

b. Limitation of the current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① Problems of specialized schools (middle and high schools)

The specialized school, which has been making efforts to institutionalize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has been reviewed as having made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hange of school education,⁷⁾ but it has some internal problems. Some important points can be pointed out:

First, the system of alternative education is dualiz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school i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want to get away from uniformity and academic competition. However, a specialized school is a regular school, but an alternative school ⁸⁾ has different legal basis and forms. Both of them have a great difference not only in the standards for establishment approval, the formation of curriculum and operation, but also in the supports by the Office of Education. The former receives all kinds of financial support such as faculty costs and school operation expenses, but the latter (except for the public) is receiving almost no financial support at present. Even 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gal statu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at such a discrimination exists even though the state has granted 'status of a school.'

Second, it is a confusion issue because of the name of 'alternative school' of various alternative schools. In regard to this, the law has been changed since the

⁷⁾ Many acknowledge that innovative school performance has been highlighted in the experimental efforts of alternative schools.

⁸⁾ This alternative school is not a common noun, but a legal term under Article 60-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actment of the bill, but it is still unchanged. Therefore, it is a great inconvenience that every time we write alternative school in everyday conversation or academic writing, we should state whether it is a common noun or legal term. In addition, there is still an opinion that it is unreasonable to call the schools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or even establish as 'alternative schools.'

Third, in the case of specialized schools, there are no legal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curriculum, and the primary schools are in conflict with the curriculum supervisors in the Office of Education. School commissioner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alternative schools demand that they change the same as regular schools in accordance with given rules and guidelines while supervis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schools. Fortunately, in the case of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Specialized High School Curriculum Operation Guideline', which wa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March 1998, allowed the opening of the 'Specialized Curriculum.' Because of this, the practice has still been continuing based on the autonomous school system. However, since the specialized middle school did not have such a guide, only 20%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urrent curriculum formation principle is applied. As a result, there is little room for new programs to contain the value and contents of alternative education. Since middle schools, high schools, or even specialized schools are established to implement alternativ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give autonomy to a school on the ground of the formation of curriculum like the case of various alternative schools.

2) Problems of alternative schools

A full review is necessary for alternative school system. First of all, there are some schools in some regions that are not accredited at national level (for example, for the purpose of specific religious education only) because there is no consistent principle for each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relation to establishment accreditation. Perhaps it is because the granting process is loosely managed without the financial support. Next, as pointed out above,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the fact that this system has already been used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course, in a general sense, it is positive that this system facilitates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forms of school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can publicly recognize the education of a certain religious bias or legalize educational activities for commercial purposes. Finally,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support for schools established based on the original intent of the law. Some of these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run only with their educational enthusiasm in very inadequate situations. The students here may be put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han the students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students in the futur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re expected to receive different kinds of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upport Law", but there is no prospect for the students at various alternative schools at present.

Apart from the above problem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measures against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which were supposed to be brought into the legal domain by the system but still remain in the illegal domain are necessary.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illegal area cannot be neglected, but because it is realistic that these schools are in various disadvantages and difficulties, which may lead to educational distrust and social conflicts. I will elaborate later on this regard and make specific proposals.

3. Additional legislative efforts for alternative education

Although the existing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already has two legal grounds, it still h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hundreds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exist nationwide. As a result,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have been continuously mad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lternative schools.

1) Attempts to legislate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Jin-ji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itiated the "Support Bill for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in 2009. The key point of this measure was to provide a minimum legal basis for alternative education outside of the system, such as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nd home schooling. To do this, it stated that it should make all alternative schools and home schooling mandatory to register and report even if they are not accredited or approved for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r report meant that at least they would be released from illegal status,

and the state's support for these was defined only declarativel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with alternative education officials and educational scholars,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ach the legislation at the end and were automatically dismissed as the 18th National Assembly ended.

2) Attempts to legislate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Kim Chun-jin re-enacted legislation related to alternative education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He argued that the previous legislation did not fully reflect the problems faced by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and in the fall of 2012, the first year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he issued three measures. These are the 'Alternative Schools for Non-Inclusive Schools,' which is an alternative school, a home schooling notification system, and an alternative education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is the legal basi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 Item 3), which faithfully reflects opinions of the persons concerned with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deliberation of the bill, however, there was a great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alternative school officials. Initially, alternative school officials generally accepted the registration system, but the atmosphere was completely reversed by submitting an amendment that forc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close the unregistered alternative schools while obliging the registration. That is, many alternative schools and the alternative school association strongly objected and publicly denounc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rough public demonstrations and statements. In the aftermath of this, the legislative and amendment bill by Kim, Chun-jin was dismisse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3) Attempts to legislate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ve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related to alternative education is being tried. First, Kim Byung-wook and other lawmakers initiated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motion Act" in September 2017. The bill is intended to legaliz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nd focuses on establishing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levant supports. In order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support of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it now allows the establishment operation committee led by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be opened.

Overall, it is similar to the one proposed by Congressman, Kim Chun-jin, at the last National Assembly, except for the home schooling section. The bill is currently pending in the permanent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review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Legislation, but no concrete deliberations have yet been scheduled.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Kim Se-yeon and other congressmen initiated the 'Support for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ct'. It is similar to that of Congressman Kim Byung-wook in that it regards the registration system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s the core contents, but it emphasizes the suppor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alternative education more and the fact that it includes the establishment plan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support center. The bill is also pending in the permanent committee.

As of now, the legislative prospects of these two laws are not clear. Looking into the reviews by Ministry of Education,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itself ('careful review') is negatively viewed, and the same opinion is also given to the use of the school name or the school attendance.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reparing a different type of alternative education legislation while expressing a negative opinion on the recent bill. Although the specific direction and form are not yet determined, it is presumed based on the story of the practitioners who are in charge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work that the existing dualized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and th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which is being discussed now are to be comprehensively unified. It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commissioning policy research, and research outcomes are expected to come out at the end of the year or early next year. If it follows the schedule, the proposa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released in 2019.

4. Key Issues and directions for the thir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1) key issues

If a new legislation on alternative education is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tha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t will be the 'third institutionalization' following the two previous institutionalization. As we have seen, efforts have already been made over the past decade. Nevertheless, there is still no prospect of resolution. Why would that be? What is the fundamental problem to institutionalizing alternative education? Perhaps the answer should be foun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alternative education. When institutionalization is equal to legalization, it can be seen as an obstacle that has not been overcome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First, let's look at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which sets out the most basic things about education in our country. This provision sets 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ublic on education as follows. In paragraph 2, "Elementary education and education prescribed by law" means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education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 ①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y.
- ② All citizens are obliged to provide at least primary education and education prescribed by law to the children they protect.

Howe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s general education are transformed in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chool attendance in the sub-laws such as the Basic Education Law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ther words, getting and providing education gets replaced with the task of going to school. The term "schools are placed" sounds apparently natural in the following paragraph 1, but the term 'school' as used here is not a common noun in common sense but is a legal term that is established only when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 4 are met.

Article 9 (School Education)

- ① Schools are plac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 Basic matter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such as the type of school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chool, are set separately by law.

Therefore, Article 4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tipulates that when establishing a private school, it is required to obtain the accreditation of the superintendent with the standard prescribed by the Act. Article 65 of the Act does not accept the establishment authorization and uses the name of the school, and Article 67 (2) requires the operator to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if violating the law. ⁹⁾ In the Presidential Decree of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under High School Level', the specific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chool', such as the facilities and faculty, the athletic field, land, and profitable asset are stated. In addition, it encompasses these conditions and adds the condition of 'establishment approval' that decisively defines the character of 'school'.

This is the real meaning of the 'school' that disturbs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It is only 'school' when the above conditions are met, but it is difficult for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to cross this line.

Article 15 (Accreditation Standards of Schools of Each Class)

① The municipal/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pprove the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of school establishment with the following criteria in the following cases. In this case,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in the whole school should be 60 or more.

This provision serves two barriers to those seeking to establish a new alternative school. One is the tremendous financial resources needed to meet the conditions necessary to become a 'school'. Typically, the minimum amount of teaching materials needed to build physical education classrooms is between 3,000 and 4,000 pyeong. In the case of urban areas, 10-40 billion won is needed to prepare the land if the price per pyeong is 10 million won. It is difficult to try it for the alternative education practitioners who have started even by the relaxed standards. The other is a strict accreditation process. In the above clause, "approves it when applying for the accreditation of school establishment with the standards met", but in reality it is too much and too long to pass until it is judg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For whatever reason, the Office of Education officials demand the founder to

⁹⁾ This penalty was originally revised to enhance the fine on May 29, 2016, although it was originally "a prison sentence of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complement the documents, he or she has no choice but to accept it.

However, there is something more fearful than this in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That is th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by the Office of Education on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school including the curriculum. Korea's curriculum is strictly standardized and school administration is controlled in a bureaucratic way.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educational philosophy and educational activities outside of these practices in the education system. The NEIS system introduced for effective education administration limits the school's room for manoeuvre. Under such a system, proper alternative education is fundamentally impossible. The point that many of the specialized alternative schools have lost their identity as an alternative school and have been transformed into regular schools reflects this reality. These are the reasons why a number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that do meet the conditions do not apply for accreditation.

Therefore, the key issue of the thir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is to find the conditions and the way for th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to have the status of 'school'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Most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re unmistakably schools by common sense or educational views. In education, a school is a place where education takes place and education is done because it means that the teacher teaches students based on the curriculum. However, when viewe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t becomes 'school' only after passing the gateway of 'accreditation'. How will we narrow the gap between these two?

2) Direction of the 3r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chool' in Korea, anyone must go beyond the three barriers mentioned above. But for those who want alternative education, this barrier is too high. Therefore, the key to institutionalizing alternative education is to significantly lower the height of these barriers. In other words, the physical standards necessary for the school establishment should be significantly lowered, not automatically judged by practitioners but automatically approved according to objective standards, and autonomy of school operation and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e ensured. These measures are meant to drastically reduce state intervention and control of school education.

But, this seems not easy. It is because many people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the teacher group still think that education needs national intervention and control. This idea is justified in two respects. One is that only the state can guarantee the publicness of education. States can exercise public power on the education that is highly commercial, or that may mislead youth on the basis of certain religions or extreme ideologies. The other is that state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maintain equality among the people. Unless there is a strict socialist system,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 people is inevitable, and the state can mitigate educational inequality through welfare policy.

But this idea can be a simple justification. This is because the state is not the only one that maintains publicness, nor does it guarantee that the state will intervene. As is the case in European countries, it is also possible to mitigate educational inequalities without intervening in the content of education or school administration. Shortly, it is possible to greatly reduce the above three barriers without undermining the country's inherent function.

So how do you lower the three barriers? A clue to the solution can be found in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word 'lowering the barrier'. In general, the term is understood to be a quantitative concept, ie, to reduce the number or criteria of conditions. However, as it has been confirmed in the two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it is hard to find a way to embrace a variety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Even if the entry barriers are lowered, the excluded areas will continue to exist. Therefore, the new institutionalization should find its potential in qualitative change, not quantitative change. Here, qualitative change means the structural change or paradigm shift of the existing school system. In the following, I will try to propose several possible directions of changes that can be implemented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school system as much as possible.

① Conversion of method to recognize the degree

Korea is adopting a system that recognizes academic degree regardless of the result of actual education if 2/3 of the attendance is fulfilled instead of making conditions and procedure of the establishment strict. So, even if the basic education falls largely short, there is no problem of getting a diploma. However, this approach is an obstacl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As pointed out earlier,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re not actually recognized as 'schools' although

they actually provide quality educational services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set out in the statute.

Not many countries take this approac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Europe, recognize education based on the outcome of education rather than attendance. A good example is the secondary school graduation qualification test system. Under these systems, early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can enjoy a high level of autonomy and diversity at school or individual level in terms of contents, methodology, and curriculum schedule. Therefore, alternative schools in Europe and independent schools do not need to be accredited separately.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education can show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school. ¹⁰⁾

I strongly propose that Korea also actively review this transition. This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e whole school system for the minimum quality management of school education. However, since full-scale adoption at the moment may cause considerable confus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artial introduction to only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t first glance, this system may appear to be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s, but in conjunction with the general equivalency diploma system, there may be surprisingly easy solutions. For example, if the current general equivalency diploma is taken as a graduation test for newly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the general equivalency diploma will significantly simplify the system when the school has a certain level of requirements for the facility or faculty. This method can provide room for alternative education to exist within the existing school system.

(2) Enforcement of rules for school establishment

At the time of the May 31 education reform, the 'High School Establishment Rules' were implemented. Although the intent wa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schools, the main goal was to establish a specialized alternative high school. Of course, the rule at that time was still strict because it was based on the conditions in the current law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under each high school), but if this height is lowered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various

¹⁰⁾ However, the state does not neglect alternative schools or private schools. Regarding basic matters such as safety and hygiene, the state (the education office) has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private school council manages the quality of education under the approval of the state.

alternative schools, it will be valid to promo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This is because the school system will be able to largely eliminate the arbitrary obstruction or delay of the school district during the accreditation process.¹¹⁾

Meanwhile, we can think differently about the standard of the Normativsystem. For example, boldly omitting formal standards, such as the way a Danish autonomous school is founded. Establishment of an autonomous school in Denmark is not a approval system but a reporting system. Chapter 2 of the Free School Act stipulates that the specific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should not be disclosed, and that 'the school should notify the Ministry of Education until August of the previous year.' However, in order to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it is necessary to have a minimum capacity of 14 in the first year, the second year is 24, and the third year is 32 or more. School buildings must also be approved by the local authority an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Parents have authority over school operations. Parents may appoint principals and appoint supervisors to supervise academic achievement. There is little intervention by the education authorities on the school operation, but they have supervisory authority and can intervene in case of needs (Song, Sunjae et al., 2016).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is principle is possible only if there is a considerable level of morality and educational common sense in our society. As the reality shows, if there are many schools that are trying to educate themselves on specific religious beliefs or excessive competition for school entry, regulation will be inevita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levant social issues.

③ Alternative School Legislation as an Experimental School for the Future Society (Taiwan Case)

The existing school system has emerged and developed along with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since the emergence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many future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new paradigm of education and the school system, and many countries have sought ways to make this a reality. In the early

¹¹⁾ One of the reasons the office of education is reluctant to establish a school is the lack of student resources. The existing public schools can not fill the garden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non-immigrant alternative schools are small-scale and that they are out of authority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educational choice.

2000s, the examples are the core competency concepts proposed by the OECD and the reforms of curricula in various countries for the establishment of experimental schools.

But so far, our country has responded to this trend with too much insensitivi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present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Davos Forum) in early 2016, has been dominant in all areas of Korea, including educ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but failed to offer suggestions for practical change. The same was true at the government level. In December 2016,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there were some declarations on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mid- to long-term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ut it did not contain any problem about the existing school system itself. Moreover, regarding the reform of the 2022 college admission system, the expansion of the regular admission system for the scholastic ability tes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ugust was something that goes completely agains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is context, it is very important that experiences of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which developed the new forms and contents outside the existing schools even under the most difficult conditions during the last decade. Because such experiences can be seen as efforts to prepare the future society which our society's mainstream education has neglect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recognize and support their efforts. For example, one way to anticipate and prepare for the future of existing school systems is to legally recognize and support schools that practice pioneering and experimental education. In this regard, the recent Taiwanese policy on experimental education is very suggestive.

According to Taipei Times(台北時報, 2018. 1. 21), 12) in Taiwan, in 1999. The amendment of the Basic Education Law has provided leg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chools and non-traditional educational attempts, and the number of experimental educational institution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n.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is trend, the Government of Taiwan has decided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mote the "Act Governing the Commissioning of the Operation of Public Elementary and Junior Secondary Schools to the Private

¹²⁾ The contents are based on the data of Prof. Ha Tae-wook (Dean of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¹³⁾ in November 2014 and "Enforcement Act for 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¹⁴⁾ and "Enforcement Act for Non-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 at Senior High School Level or Below"¹⁵⁾ in January 2018. As of January 2018, there were 61 experimental institutions (51 public, 3 private, and 7 non-school) in Taiwan and 4,841 students. The 'school-type experiment education instruction ordinance' provides grounds for enabling experimental education to be conducted at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beyond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4 Educational Opportunity for Out-of-School Youth (Japan Case)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which was enacted in 2015, prescribes educational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but it only supports the preparation of the GED or recommends returning to school. However, I think it is hard to get support for this kind of support for young people who have left school because they hate school or studying. The best way is to get the necessary education and academic qualification without going back to school. Although the GED is an alternative to this, there are not many young people who are challenging it because the content and the method to learn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school. Recently, the special case of legislation for guarantee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provides a good clue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s a partial reprint of Lee Jong Tae (2017). ¹⁶⁾

On December 7, 2016,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Act on Secur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etc., corresponding to General Education at the Compulsory Education Level". This was a draft law drafted by lawmaker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based on the request of the Japanese alternative education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academic ability of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even if they did not return to the regular school

¹³⁾ English name: Act Governing the Commissioning of the Operation of Public Elementary and Junior Secondary Schools to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enable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public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¹⁴⁾ English name : Enforcement Act for 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promote education innovation and 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and education, expand opportunities for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 and promote various forms of educational development.

¹⁵⁾ English name: Enforcement Act for Non-school-based Experimental Education at Senior High School Level or Below.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protect students 'learning rights and parents' educational choices and to provid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outside the school.

¹⁶⁾ The following is a partial reprint of Lee Jong Tae (2017).

and received education at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basic idea of this law is stipulated in Article 3.17)

- 1. Ensure that all students have a good school environment so that they can receive education safely with good school life.
- 2. Students who refuse to go to school should b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support according to the situation.
- 3.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who refused to go to school can plan the school's environment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education safely.
- 4.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y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regardless of age, nationality, or other circumstances, while fully respecting the will of a person who has not received adequate training in the compulsory education level. Through the education, it will be possible to raise the level of self-reliance in society and to improve the education level so that it can lead to a fulfilling life.
- 5. Ensur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involved in secur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addition, Article 6 of the Act requires financial measures. Article 7 requires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to set up a basic guideline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refuse to attend school'. In addition, Article 9 allowed all faculty and staff to share the situation with students who refused to go to school. Article 10 stat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obliged to take special measures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s that provide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enhancement of school education for those education.

Asakura Kageki, leader of the lawmaking movement, explained that although the law does not fully recognize the alternative education in Japan, it partially recognizes it in a limited manner. It is said to recognize its role in meaning. In the early years, it attempted to enact a law that can recognize various alternative education outside the school lik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since the mainstream Japanese power including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trongly opposed the existing public education system, this establishment means a legal retreat. At first glance, it

¹⁷⁾ The following is a partial reprint of Lee Jong Tae (2017)

may be tha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but the conservative forces in Japan deny the former public education system or have a decisive defect while the latter is recognized a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at helps adolescents by separating the two from each other.

5. Closing

In Korea, as soon as school education start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tarted, and the process of popularization after liberation was also managed under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strong military dictatorship. As a result, for a long time, school education has been managed as a control system for regime and ideological security rather than educational consideration, and it has become a rigid system of today. The reason why Korea is now the most stingy country in alternative education seems to be found here.

But now it is time to get out of this system. The age in which the state closely intervenes and controls what people should learn is long past. In this regard, the success of alternative education legislation beyond the existing school system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touchstone to judge whether our education is taking off the old age and making its way to the future.

References

Education Reform Committee (1995). Educational Reform Measures for Establishing a New Education System Leading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Seoul: Education Reform Committee

Song, Soon Jae et al. (2016). "Danish Free Education" revised edition. Seoul: Dandelion Yoon, Chul-Kyung et al. (2017). Research II Customized Measures According to the Route of Out-of-School Youth.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Lee, Jong-tae (2017). Alternative Education Forum for 2017 Seoul: People's Solidarity of Korea Alternative Education

Rachel Lin et al. (台北時報).(2018.1.21.) Taipei Times. New law widens scope of experimental education (Retrieved: 2018. 1. 21)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18/01/21/2003686165

Jong Tae Lee Director, ERICK(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in Korea)

Education BS in Micro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in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Research Fellow,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Director,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Principal, Hanul high school

Books

Understanding Alternative Education (Mindeulle, 2007)

The third way of social policy: Seeking Korean Social Investment Policy (co-author, Baeksanseodang, 2008)



◆ 제1세션 교육체계 간 소통과 연계 ◆

지정토론 / 질의응답

Discussion / Q&A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Bang-Ran Ry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Young-Ryul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김영준 대안교육연대 부대표

Young-Jun Kim Vice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of Korea Alternative Education

지정토론 -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발전을 추구하며

류 방 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아일랜드 교육에 대한 Hogan씨의 발표를 통해 아일랜드 교육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교육계에서 아일랜드는 2013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작되던 즈음에 많이 알려졌다. 당시 아일랜드 교육에 대한 소개는 주로 전환학년(transition year, 혹은 연계 학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오늘 더블린시의 교육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존 국장님의 발표는 아일랜드 교육 전반에 걸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러한 상호 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이해증진은 물론 교육개선에도 도움이될 것이라 믿는다.

Hogan씨의 발표를 통해 아일랜드가 청소년들이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뉜다. 하나는 학교에 계속 잘 다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들에게 제2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한국의 문제 상황

학업 의욕을 상실한 청소년: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다니도록 하는 일은 모든 교육정책의 공통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은 초중등교육의 취학률, 졸업률은 물론 학업성취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나 학업 흥미도는 세계최저 수준이다. 학생의 학업 흥미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배움을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평생학습이 중요한 데, 학업에 대한 흥미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 특히 중등학교 수준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업 의욕을 상실한"청소년들이 많은 편이다. 몸만 학교에 있으면서 시간을 때우며 버티는 이른바 "잠재적 학업 중단자"(정연순·이민경, 2008; 류방란 등, 2007)라 불리는 위기 청소년들이 제법 있다.

학교밖 청소년: 한국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높지 않다.1) 그러나 수로 보면 해마다 초중등학교 학생 중 3만명 정도가 학업을 유예, 중단하고 있다. 그중 매년 약 2만명 가까운 학생들이고등학생들이다. 이 중 일부는 복교를 하거나 학교밖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제법 많을 것으로 보인다.

2.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과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예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과 다르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 있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학업중 단 예방의 차원에서 전자의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하여야 핵심적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Hogan 씨께서도 강조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일 것이다. 이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1) 학생의 특성 이해

학생들을 미리 정해진 학교에 맞추려하기보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잠재적 학업중단자로 분류될만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빈곤, 가정 돌봄 결여, 정서적 불안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관계"형성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류방란 등, 2008; 김경애 등, 2014). 이러한 신뢰를 발판으로 청소년들은 배움으로 조금씩 나아갈 힘을 얻는다.

2) 교육과정, 교수-학습 과정 혁신

교육과정 혁신에 씨줄과 날줄이 있다면, 씨줄은 개별화 추진의 원칙일 것이며, 날줄은 공동

			_	
1 \	/11/	하구이	ラス 드하っ	한언중단륙
11	\ TT. /	인파크	22221	의 납포인포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초등학교	0.4	0.5	0.6(0.3)	0.5(0.3)	0.5(0.2)	0.6(0.2)
중학교	1.0	0.8	1.0(0.8)	0.7(0.6)	0.6(0.5)	0.6(0.5)
고등학교	2.5	1.3	20.(1.7)	1.4(1.2)	1.3(1.1)	1.4(1.1)

^{* 2010}년 이후 ()는 면제(해외출국)자를 제외한 학업중단률임 http://kess.kedi.re.kr/index (2018. 11. 5. 인출)

체성 함양의 원칙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종래 유지되었던 강한 표준화 기조에서 점차 유연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교육과정 개별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이 존중되고 앞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문형 교육과정까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동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학업중단자를 예방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2) 학교 안과 밖의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학교에서만 해결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할만한 것은 최근 한국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다. 교육의 장을 마을로 넓히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을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서용선 등, 2015)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3) 학교밖 학습 경험의 인정: NQF과 KQF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마을에서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학교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교밖 학습 경험을 인증하여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 호환할수 있는 시스템인 아일랜드의 NQF는 인상적이다. 노동시장에서 학교밖 학습을 NQF를 통해차별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한국에서도 국가역량체계(Korea Qualification Framework, 이하 KQF)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련화를 꾀하고 있다. 학교밖 학습 인증은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의 교육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제도일 것인데,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중심의 교육 인식, 학교중심의 학력과 자격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풍토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류방란, 최윤선, 신희경, 이규재(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 류방란, 정바울, 정연순, 송혜정, 조은주(2014).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정연순, 이민경(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징. 한국교육 35(1), 79-102.

서용선, 김용련, 임경수, 홍섭근, 최갑규, 최탁(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수립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학력

서울대학교 문학사(교육학과)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경략

6억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연구본부장(2012) 서울시 교육복지정책 자문위 위원(-2018.2)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2018. 4) 국가교육회의 위원(현재)

저서

하교부적응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책임) 번곤층 교육적 취약성 구조 분석과 대응 방안(책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방안 연구(공동)



Discussion - Pursuing Education Development Through Interchange

Bang-Ran Ry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Mr. Hogan's presentation on Irish education provide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whole of Irish education. Ireland is well known in the Korean education community around the time of the free school semester system policy introduced in 2013. An introduction to Irish education at the time was mainly focused on transition years. Director John, who is in charge of today's promoting education policies in Dublin City is especially appreciated for helping to understand all aspects of education in Ireland. This interaction will help the two countries improve their interests as well as improve their education.

Mr. Hogan's presentation clearly shows that Ireland is working very carefully to help young people to get a good education at school. Policies for students who are not interested in studying are divided into two main trends. One is supporting students to continue attending school, and the other is to offer young people leaving school a second chance to learn.

1. A Problem Situation in Korea

Adolescents who have lost their academic motivation: Ensuring that all young people attend school well is a common goal of all education policies. In Korea, the school attendance rate, graduation rate,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the highest in the world, but the academic interest is the lowest. Student's academic interests are not only important as a factor in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important in that it is a factor to sustain learning.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lifelong learning is essential, and interest in learning is the most important asset for the future. However, many young people in Korea have lost their interest in studying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and their "willingness to study." There are quite a few youths in crisis called "potential school dropouts" (Jung Yeon-Soon, Lee Ming-Kyung, 2008; Ryu Bang-Ran, e.g., 2007), who only physically spend time in school.

Youths out-of-school: Korean students do not have a high academic failure rate. Howev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30,000 students are suspended from their studies every year. About 20,000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each year. Some of these students are going back to school or go through programs outside of school, but most of them will not.

2. The guarante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Policies for teens who stop or in crisis to discontinue study need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and in common. Here, the debaters will focus and discuss the youth of the former as a way to prevent the interruption in school.

If there is a key principle that must be considered before anything else in order to prevent academic disruptions, it would be the "equal opportunity guarantee" that Mr. Hogan also emphasized. This would not mean that standardized curriculum provides the same education to all students. It should allow students to have 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s by providing appropriate edu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tudents. Here are some suggestions.

1)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 student

Rather than trying to fit students into a pre-determined school, school education should adjust to students. Teenagers, who a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potential school dropouts, have a combination of difficulties, including poverty, lack of family care and emotional instability. Creating a "trusted relationship" for these teenagers should be a priority (Ryu Bang-Ran, e.g., 2008; Kim Kyung-Ae, e.g., 2014). With this trust in mind, teenagers gain the power to move on to learn.

2) Curriculum, teaching-learning process innovation

If there are longitudes lines and latitudes lines in the innovation of the curriculum, latitude will be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 and the principle of community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nation's national education process is gradually shifting from a strong standard-setting mechanism that has traditionally been maintained to a flexible one so that education can be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young people. Individualization of the curriculum should respect learner's self-directivity and allow them to learn on-demand courses where students can learn the subjects they want. The recent progressive school movement centered on teachers in Korea is believed to help prevent potential school disruptions and grow by learning by allowing all students to participate in classes.

3) The Connect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school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combination of difficulties students at high risk for the interruption in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students' daily life. For this, it is noteworthy that this is 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that is being tried in some parts of Korea recently. Schools and villages are naturally linked so that young people can grow into the main character of the village (Suh Yong-Sun, e.g., 2015) while widening the education field to the village and utilizing the resources of the village.

4) Recognition of Out-of-School Learning Experience: NQF and KQF

There are limits to the education that schools can provide to students. Students can learn from their work in the village and from various programs provided by private organizations. The NQF in Ireland is impressive, a system that can be compatible with education completed in schools by certifying out-of-school learning experiences away from the school-centered educational paradigm. It would be interesting to know how the NQF has allowed non-discrimination of off-school learning in the labor marker. Korea is also planning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Qualification Framework (KQF) below and refine the system. Out-of-school learning certification will be a system that can broaden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students at high risk for interruption in education,

which is important to get rid of school-centered educational awareness, school-oriented educational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in order to work.

Ryu Bang-ran, Choi Yoon-sun, Shin Hee-kyung, and Lee Kyu-jae (2007). Analysis of Education for School Maladjustments StudentsL High-School Focu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im Kyung-ae, Ryu Bang-ran, Jeong Baul, Jung Yeon-soon, Song Hye-jung, and Cho Eun-joo (2014). Study of Educational Welfare for School-leavers: Focusing on Life Career Developmen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eong Yeon-soon and Lee Min-kyung (2008).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academic disruptions that teachers are aware of. Korean education 35(1), 79-102.

Seo Yong-sun, Kim Yong-ryeon, Lim Kyung-soo, Hong Sub-geun, Choi Gap-gyu, and Choi Jeong-eun (2015). A Study on the Concept and Policy Direction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Gyeonggi Provincial Institute of Education

Bang-Ran Ryu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B.A., Educ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South Korea M.A., Educ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South Korea Ph.D., Educ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South Korea

Work Experience

Head of the Research Center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A member of education welfare policy

Vice President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8. 4)

A member of the National Education Council (-present)

Research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 of the Non-Adaptive Students in Korea: At the Center of High School An Analysis of Education Vulner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oor A Study on the Educational Welfare Plan for the Students outside of School (Joint research)



지정토론 -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교육기회 보장

최 영 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오늘 발표 내용은 우리사회의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발표자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현주소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유럽국가의 교육적 발명품인 국가역량체계, 견습교육, 무업청소년 발굴과 교육지원이라는 3가지로 구분하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론에서는 학교, 평생교육, 직업교육, 대학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들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셨습니다.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써, 본인은 센터장님의 발표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소년을 위해 추구해야할 정책과제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역량체계'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역량체계

국가역량체계라고 불리는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및 논의는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에 "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1)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유럽자격체계(Europe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177

¹⁾ 도입목적과 효과: (1) 학력중심사회 극복, 불필요한 스펙쌓기 극복: 학위가 없어도 다양한 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평가받아 채용이 될 수 있고, 승진, 보수 책정 및 경력 관리 시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사회 변화 추구 (2) 중복학습 부담 완화: 학교 내외의 다양한 학습결과(학위, 자격취득, 직업훈련, 경력 등)를 인정받아 일자리 진입 또는이동시 중복학습의 문제를 완화 (3) 교육훈련의 질 보장: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에 따라 수준체계를 설정하고 인정함으로써 교육훈련이 투입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질적 변화 가능 (4) 평생경력개발경로를 가시화: NQF가 구축되면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5) 국내외 자유로운 인력 이동 촉진: 학위는 물론 재직 중에 획득한 자격, 현장경력, 훈련결과의 등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하고 타국가 NQF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인력 이동 활성화 및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 가능

개국 이상에서 이 제도를 기 개발했거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자격체계(EQF)는 유럽 각 국가들의 자격체계를 연계시켜 학습자와 근로자의 국가간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각가 NQF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아일랜드의 국가역량체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의 경우 NQF의 목적은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 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3) 올해 안에 KQF 기본틀(정의, 8개 수준체계, 구성요소, 설명 지표)을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KQF는 평생학습, 결과중심, 진로제공 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평생 동안 학습(모든 학습을 의미)한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학교공부 이외에도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평가 인정하여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투입이 아닌 결과 중심의 제도입니다. KQF는 기존의 투입(input) 개념이 아닌 학습 결과(learning outcome)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몇 시간을 학습했느냐,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셋째, 진로지도를 수월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KQF는 8개의 수준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입직, 승진, 최고수준의 단계에 도달하기 까지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자격,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통합해서 효율적(경로, 시간, 비용)으로 자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가이드하는 제도입니다.

KQF가 도입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취업을 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훈련을 받았거나 하는 내용들이 평가·인정되어 그에 합당한

²⁾ NQF의 구축 목적은 단일화된 자격수준체계를 구축을 통한 자격 정보의 소통(communication) 활성화; 학습 결과(learning outcomes) 인정을 통한 개별 자격의 투명성 강화; 교육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축소; 학점 누적 및 인정(Credit accumulation and transfer); 선행경험학습 인정; 교육훈련에의 접근성 강화; 질 관리체계와 새로운 규제, 평가, 자격인증 메커니즘: 교육훈련 전달방식 개혁; 직업교육훈련과 기술자격의 위상 강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재정 기여 촉진; 국제적 인정과 노동 이동성 확대 등 국가별로 다양하다.

³⁾ 추진경과: 2013년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기본계획 수립(12월, 교육부고용부); 2014-15년 : 4개 분야 시범사 업 추진-헤어미용, 자동차정비, 숙박, IT; 산관학 MOU 체결: S/W 분야(6.10), 미용분야(12.10); 2016년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안) 설계 및 공청회 실시; 2017년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운영가이드라인(안) 개발 및 공청회 실시; 2018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자격정책심의회 통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올해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령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검정고시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 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학력

한양대학교 박사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Juris Doctor

경력

㈜오리콤, 차장

㈜신세기통신, 선임과장

연구

NQF 구축 시범사업(2015) 자격체제 관리·운영 방안(2016)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안) 설계(2016)

2017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사업



Discussion -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the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Young-Ryul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 think that the presentation today is a result of the presenter's many agonies and studies in order to guarantee an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dolescents in our society. The presenter presented the current situations of school education in our country and various ways to guarantee an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dolescents who are out of school.

The presenter divided the educational invention of a European country,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into three categories, apprenticeship education, excavation of unemployed young adults, and educational support and suggested the case of the foreign country. At the conclusion, the presenter insisted that it is necessary to bring in a system to change the career of adolescents in which school, lifelong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university are associated in an integrative way.

As a scholar who studies national policy, I was impressed by the presentation of the center director and I think that the presenter exactly pointed out the policy task which is to be sought from now on for adolescents in our country. Hoping that it can be helpful for the establishment of study and policy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present my opinions on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The study and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started 10 years ago. But, in December 2013, government started to work on "Basic Plan for Establishing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in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¹⁾ The goal and effect of introduction: (1) overcome of academic degree-centered society and unnecessary spec accumulation: fair assessment and evaluation and thus employment even without academic degree and seeking social change, such as evaluation and reflection at the time of

in 2008,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 was introduced. Currently, more than 177 countries developed this system or are working on its development.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 has a purpose to improve the mobility of learners and workers among countries by connecting the qualification framework of each European country. Therefore, European countries began to develop NQR. Bu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differs slightly. Ireland's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which the presenter suggested, is one of them. In foreign countries, the NQF has very various purposes, depending on the situations of each country.²⁾

In order to assess and acknowledge the various abilities of an individual on the basis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our country has worked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 which is "a level system which connects academic education, qualification, career at work, and completion of educational training one another on the basi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³⁾ Within this year, it prepares to notify the basic framework of KQF (definition, eight level system, components, and explanation index).

KQF has three characteristics which are lifelong learning, outcome-centeredness, and career offer. First, it is a system supporting lifelong learning systematically. It is a system acknowledging the contents (all learning's) which an individual has learned throughout

promotion, pay allotment and career management (2) relaxation of overlapping learning burden: job movement or relaxation of overlapping learning by acknowledging outcome of various learning's in and out of school (academic degree, completion of qualification, job training, career, etc.) (3) qualitative change from input to outcome by setting and acknowledging level system according to learning outcomes (4) visualization of lifelong career development path: possible support for developing career throughout lifetime by workers' doing working and learning simultaneously once NQF is established (5) facili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ee work force movement: based on equivalence of qualification during employment, career at work, and training outcome as well as academic degree, facilitation of free work force movement after entering labor market, facili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work force movement and creation of international jobs for domestic excellent work force by securing interchangeability with foreign NQF.

²⁾ The purpose of NQF establishment is communication facilitation of qualific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unified qualification level system; transparency reinforcement of individual qualifications through acknowledging learning outcomes; mismatch reduction between education and labor market; credit accumulation and transfer; acknowledgement of learning of previous experiences; reinforcement of approach to educational train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new regulation, certificate acknowledgement mechanism; innovation of delivery methods of education training; status reinforc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skill qualification; facilitation of civilians' financial contribution to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international acknowledgement and expansion of labor movement. To each country, these are various.

³⁾ The working process: 2013: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NQF (December,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mployment); 2014-2015: pilot project in four areas – hair beauty, Car repair, lodgment, IT; Industry, government, and school MOU contract: S/W area (6.10), hair beauty (12.10); 2016: design and public hearing o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2017: development of operation guideline for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and public hearing; 2018 passing o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at qualification and policy council.

lifetime. It is a system which acknowledges the various abilities of an individual as well as school education. It is a system which acknowledges an ability, assessing and acknowledging academic education, qualification, career at work, and the completion of educational training.

Second, it is a system focused on outcome, not input. KQF is a new way of introducing a concept of learning outcome rather than input. It does not ask how many hours of learning or work experience. It is a system which identifies and assesses what an individual can do eventually and acknowledges an ability of the individual.

Third, it is a system easing career guide. KQF consists of eight level systems. It is a system providing a guide at a national level in order for an individual to develop himself/herself effectively (path, time, and expense), by connecting and integrating systematically education, training, qualification, and career which are necessary for reaching from school to employment, promotion, and getting up to the highest level.

If KQF is introduced, there will be many benefits even for out of school adolescents. It will lead to assessment and acknowledgement of their employment out of school, certificate, or training to be and allow them to receive appropriate treatment.. This year, systematic ways to embody this, such as legislation are being studied.

Lastly, I have a question for the presenter. In our country, there are the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Self-Education and credit bank system for achieving an academic degree which are managed by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lso, there is General Equivalency Diploma which is operated by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rough this, adolescents can achieve an academic degree and go to university. Nevertheless, I will appreciate, if you further explain a reason why Korean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eeds to be brought in additionally.

Young-Ryul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Education PhD, Hanyang University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Juris Doctor

Work experience Deputy department head, Oricom Senior section chief, ShinSegi Telecom

Research
NQF pilot project (2015)
Qualification system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2016)
Korean model o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plan) design (2016)
2017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 establishmen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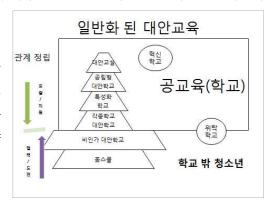


지정토론 - 대안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 방안

김 영 준¹⁾ 대안교육연대 부대표

1. 대안교육 법제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 1) 국가의 부처마다 불일치한 대응과 방치
- 문재인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약속.
 - 매년 5만명, 현재 대략 35만명이 학교 밖에 있고, 학생이 아니다.
 - 병무청 징병검사규정의 부록9 학력평가기준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중퇴자 로 평가"
 - 국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 모두의 아이인가?
- 비인가 대안학교가 몇 개이고,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 2) 이제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초기 대안교육은 '입시위주 교육반대, 학습자중심 교육'으로 공교육 한계를 극복하고자
- 대략 20여년이 지난 지금, 대안교육은 일 반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않을까.
 - 공교육제도내에 대안교실 1,150곳, 특성화학교 43개와 각종학교 대안학교 39개, 그중에 공립형21개, 통계조차 없는 위탁학교가 존재하고, 대안교육의 영향을 받은 혁신학교까지
 - 일반화 의미는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전 파되고, '학습자중심 교육'이라는 원칙



^{1) 2006}년, 아이를 비인가 대안학교인 '꽃피는학교'에 보내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 2010년부터 꽃피는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이사장 옥천순환경제공동체 공동대표

- 이 공교육에서도 받아들여지다는 뜻.
- 그럼에도 400~700개 비인가대안학교는 여전히 공교육 밖에 존재
-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
 - '부정과 배제'의 관계 → '협력과 도전, 포괄과 지원'의 공생·상생 관계로.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3)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1985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학습할 권리 선언. 1) 읽고 쓸 권리, 2) 탐구하고 분석할 권리, 3) 상상하고 창작할 권리, 4)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5)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 6)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라고 규정.
- 학습권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넘어 스스로 공부하고 알 권리이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변질된 법률의 변화를 통해 "교육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2.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1)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기존교육의 철학, 내용, 형식, 운영 등을 벗어나 끝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는데 있다. 제도화는 이런 대안교육의 '학교의 형식, 학제와 학년의 틀 등을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안교육제도를 일원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특성화학교와 각종학교 대안학교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3차 법제화가 또 다른 근거로 만들어진다면 동일한 대안학교임에도 법률적 근거와 설립기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만이 아니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해 또 다시 통합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기회에 '학교체제의 구조 변화 혹은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

3) 설립방식에 등록과 신고 등 다양화 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등교육법으로는 학교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제처럼 인가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처럼 대안교육기관에 필요에 따라 신고와 등록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은 신고하게 하고, 요건을 갖추거나 필요에 의해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게 하면 된다.

4) 지원 등은 설립과 분리하여 추진한다.

신고제 수준의 대안교육 특별법으로 기존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등록 또는 신고하게 하는 것과 재정지원, 학력인정, 의무취학 유예 등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 ① 일단 등록(또는 신고)의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비 등의 지원에 관 해서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기준의 특별교부금 공모방식을 시작점으로 해서 점차 안정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가면 좋을 것이다.
- ② 등록제 법률에서 우려되는 영리 목적, 국제학교형, 선교 목적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이 법률에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차별적으로 지원하면 옥석을 가려내 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학력인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출석에 의한 학력 인정은 변경되어 성취도에 의한 학력 인 정 방식의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런 변화에 맞게 대안학교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다.

5) 홈스쿨도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은 모든 아이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적, 연령, 장애 등 모든 부분에서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홈스쿨도 신고제를 둬 그 권리를 보장하자. 개인적으로는 홈스쿨 이란 명칭도 '홈에듀케이션' 또는 '가정교육'으로 변경하면 좋겠다.

6) 대안학교 명칭의 변경

대안학교의 명칭은 지적한 것처럼 보통명사와 법률용어의 혼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학 교에 대한 부정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실험학교', '전환학교' 등 새로운 명칭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를 '배움터'로, 중복사용. '배움터 꽃피는학교')

김영준 대안교육연대, 부대표

. 옥천순환경제공동체 공동대표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이사장 현,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상임이사

대안교육연대, 현장대표자워크숍,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응' 제2회 대안교육 실천대회, 발제



Discussion - Institutio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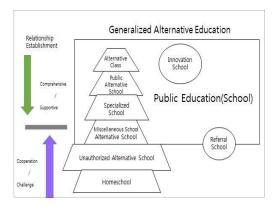
Young-Jun Kim¹⁾
Vice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of Korea Alternative Education

1. Alternative education legislation should not be delayed any more.

- 1) Inconsistent responses and negligence from each ministry
-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saying "Every child is a child of ours." National duty and promise for education.
 - Every year 50,000 students and now about 350,000 people are out of school and are not students.
 - Appendix 9 of the Military Service Inspection Regulations Educational Standards
 -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course of th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are evaluated as a drop-out of the corresponding to the educational level curriculum"
 - What do they think about the nation? Are the children out of school the children of all of us?
- No one knows how many unaccredited schools there are and how many children are attending
- 2) The policy on alternative education should be changed now.
- Early alternative education was to overcome the limits of public education with 'objection to college admonition-oriented education and learner-oriented education'

He was a parent of the child going to the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Blooming School" and has been working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Juvenile Peace Flower Network" since 2010 and is a director of Okcheon people cooperative community and co-president of Okcheonsoon environment cooperative community.

- About 20 years later, it now can be said that alternative education is generalized.
 - There are 1,150 alternative schools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43 specialized schools, 39 various alternative schools and 21 public schools and a foster school without statistics, and innovative schools influenced by alternative education



- The generalization means that various educational methodologies are spread, and the principle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is accepted in public education.
- Nonetheless, $400 \sim 700$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are still ou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 New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 The relationship between 'denial and exclusion' → 'Cooperation and challenge, inclusion and support' as a win-win relationship.
 For the future of Korean education and for children.

3) Learning rights should be guaranteed.

- Declaration of rights to be adopted by UNESCO in 1985. 1) the right to read and write; 2) the right to explore and analyze; 3) the right to imagine and create;
 4) the right to read one's own world and to write one's own history; 5) the right to access educational resources, and 6) the right to develop individual and collective functions.
- The right to study is a right to study and know for themselves, beyond the right to education of all citizens. "Educational choices" must be guaranteed through changes in laws that should be obligation, not rights.

2. Direc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1) The identity of alternative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The identity of alternative education is to find a new way endlessly beyond the philosophy, contents, form, and operation of existing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able to guarantee new challenges and experiments that are outside the framework of school types, interdisciplinary and grade levels of alternative education.

2) Special legis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unify alternative education systems.

If there is a different legal basis for specialized schools and various alternative schools, if the third legislation is made as another basis, it is not the same alternative school but the difference exists in support, not jus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legal basis. This leads to confusion and side effects, and it is inevitable to discuss the integration agai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special law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structural change or paradigm shift of school system" for this opportunity.

3) Registration and reporting should be diversified in the establishment method.

Currently,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should be authorized according to primary education law. It is also necessary to lower the standard of accreditation as in the case of a presentation, but further legislation should be prepared in such a way as to open the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to the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as necessary,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cadem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l facilities are required to have a report, have a requirement, or have a procedure to register as needed.

4) Support should be separated from establishment.

It would be more practical to separate the existing u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by registering or notifying alternative schools with the notification level, and to separate financial support, academic credentials, and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① Once the government lovers the threshold of registration (or declaration) as much as possible to induce to enter, and it would be considered to examine the method of selecting education through institutional evaluation about educational support. In terms of support methods, it would be good to switch

gradually to a stable support method based on the standard grant programs.

- ② For the commercial purpose, international school type, mission purpose organization concerned in the registration system law, it will be possible to register or notify in this law once, and afterwards, it will be possible to minimize the side effect if it supports selectively..
- ③ I agree that the problem of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 should be fundamentally changed from recognition of academic ability by attendance to introduction of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by achievement. It is necessary to apply to alternative schools to meet these changes.

5) Home schooling should be included.

The new law should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the right to learn. The right to learn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nationality, age, disability, etc. Let home schools also make sure to give them rights with the establishment of notification. Personally, I would like to change the name of home school to 'home education.'

6) Change of name of alternative school

The name of the alternative school, as pointed out, is not only a matter of confusion between ordinary nouns and legal terms, but also contains a negative meaning to the existing schoo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new names such as 'experimental school' and 'transition school'. (School is used as 'course', duplicate use, 'school for blooming learning')

Young-Jun Kim Vice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of Korea Alternative Education

Work Experience

Co-representative of Community for Okcheon economic Circulation Community Chief director of Okcheon Cooperative

Executive director, Youth Peace Flower Network (present)

Lectures

Alternative Education Solidarity, Field Representative Workshop, 'Moon Jae-In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 response'

The 2nd Alternative Education Practice Competition, presentation



제 2 세션

Session II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Practices of School Dropout Prevention through Pupil Referral

좌장: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Chair: Sungki Kim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초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학생지원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와의 파트너십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chools to Intervene Early to Support Pupils Eileen Shannon Head Teacher, Victoria Drive PRU,

중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프란시스 바버 Francis Barber PRU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 지정토론 / 질의응답 Discussion / Q&A

김태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Tae Sig Kim Senior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이정희 인천해밀학교 교사
Jung Hee Lee Teacher, Incheon Haemil School

◆ 제2세션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

초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학생지원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와의 파트너십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chools to Intervene Early to Support Pupils

Eileen Shannon Head Teacher, Victoria Drive PRU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chools to Intervene Early to Support Pupils

Eileen Shannon Head Teacher, Victoria Drive PRU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CHOOLS TO INTERVENE EARLY TO SUPPORT PUPILS.

EILEEN SHANNON



Context

- · Wandsworth is an Inner London Borough in South London.
- · Migration: Wandsworth has the highest migration rates of any London borough
- Black and Minority Ethnic groups: 29% of population
- · Deprivation: 21% of population live in poverty.
- · There are sixty- two primary schools.
- · Approximately 29 000 children 0- 15



Unique Pupil Numbers

The unique pupil number (UPN) is a 13-character code that identifies each pupil in the local-authority-maintained school system. The guide is for schools and local authoritie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UPNs, including: guidelines on maintaining UPNs. data protection.

Victoria Drive Primary Pupil Referral Unit

- Statutory duty to provide full time education for pupils of statutory school age who have been
 permanently excluded from their mainstream school.
- · The number of children being excluded from schools in England is rising, after falling for years.
- · It works out as eight in every 10,000 primary aged children in England(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 · Most permanent exclusion occur due to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ur
- At Victoria Drive PRU, we are showing a different trend- numbers of permanent exclusions within Wandsworth primaries is decreasing.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5	4	3	2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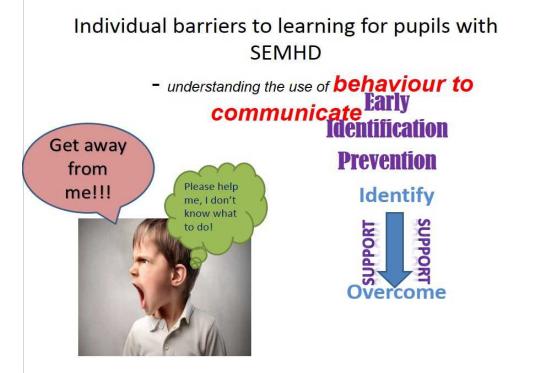
DfE Exclusion guidelines (2015)

 Disruptive behaviour can be an indication of unmet needs. Where a school has a concern about a pupil's behaviour it should try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causal factors and intervene early in order to reduce the need for subsequent exclusion.

Social, emotional and mental Health Difficulties (SEMHDs)

Definition in the SEND Code of Practice; 0-25 Years 2014

- These difficulties may include becoming withdrawn or isolated, as well as displaying challenging, disruptive or disturbing behaviour. These behaviours may reflect underlying mental health difficulties such as anxiety or depression, self-harming, substance misuse, eating disorders or physical symptoms that are medically unexplained. Other children and young people may have disorders such as attention deficit disorde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or attachment disorder.
- Schools and colleges should have clear processes to support children and young people, including how they will manage the effect of any disruptive behaviour so it does not adversely affect other pup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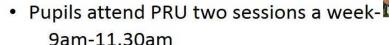


Referring a Pupil

- · The pupil is referred via a Victoria Drive PRU Referral Form.
- · A member of the team observes the pupil in school
- The pupil is presented at the monthly Victoria Drive PRU Referral Panel and a decision is made as to the type of support the pupil will receive.
- The school completes a 'Baseline Checklist' to give updated information on the learning levels of the pupil and the Social, Emotional and Mental Health needs of the child using the Boxall Profile.
- The parent/carer is invited to meet with the staff at Victoria Drive PRU to set up the support for their child.
- Other agencies are contacted for information and a multi-professional network is created. This is also the Team Around the Child (TAC).
- Support is usually for two terms, but this can be negotiable depending on the needs of the child.

What does support look like?

Small groups



1pm-3pm

- Pupils work in small groups of six with one teacher and one Teaching Assistant.
- Pupils learn through a topic based curriculum.
 The focus is on three areas –Writing, Reading and Number.
- Individual pupils work towards personalised targets.

Therapeutic Support

Play Therapist



Football Beyond Borders



·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Flip Out



Swimming



Future Skills



Learning Mentor



- The Learning Mentor works with the pupil either in their own school or at the PRU for one session per week.
- The Learning Mentor provides support for; low self-esteem, bullying issues, preparation for transferring to a new Key Stage / School, safeguarding issues feelings
- All work is tailored to the pupil's individual needs, concerns and difficulties.



Family Support Worker

Many families are in crisis. We support families with facing up to the challenges of accepting a diagnosis, mediating between school and home, moving children to a new school and providing a space to listen.

In school support

The outreach teacher provides support to the child in their own school. This support is provided to children who need to remain in their own schools.



Advice and Consultation



- A teacher is allocated to work alongside the staff in a school – usually during one visit per week.
- The teacher offers advice and consultation, suggesting ideas and strategies to support a particular child or group of children in class.

Support to Head Teachers



- The Headteacher is available to offer consultation, advice and support to Primary Head Teachers across the London borough of Wandsworth.
- This support can offer new and creative ways of thinking about, understanding the needs of and delivering the curriculum to pupils with Social, Emotional and Mental Health Difficulties.

Education and Health Care Support



The Statement Support Team comprises one Teacher and one full time equivalent Teaching Assistant to support pupils with an Education, Health Care Plan(EHCP), where the primary need has been identified as Social, Emotional and Mental Health Difficulties (SEMHD).

This team works in schools to:-

-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implications of supporting pupils with SEMHD.
- Provide advice and consultation.
- · Identify individual targets.
- Support the Teachers and Teaching Assistants who are working with the individual pupil.
- Provide direct intervention / teaching with some of the individual pupils.
- · Liaise with external agencies.
- Attend Annual Review Meetings and other relevant meetings.
- · Provide written reports.



Child and Adolescent and Mental Health Services.(CAMHS)

The Clinical Psychologist works at 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PRU) and out in Wandsworth primary schools. This work includes:-

- · Observe individual pupils.
- Provide consultation.
- · Carry out Cognitive and Psychometric Assessments on pupils.
- · Work directly with pupils, their families and other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case.
- Provide written reports and advice for all pupils referred or assessed.
- · Liaise with external agencies and attend relevant meetings.

The Systemic Family Therapist works at 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PRU) and out in Wandsworth primary schools. This work includes:-

- Observe individual pupils.
- Provide consultation.
- · Provide therapeutic support for pupils and their families.
- Provide advice and support for the team around the cases.
- Provide written reports for all referrals.
- · Liaise with external agencies and attend relevant meetings.
- Deliver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nd Emotional Literacy groups.



Impact

- 2017-18- 110 children received support at the PRU
- Three received "Managed Moves."
- Ten received EHCPs
- Four moved to specialist provision.
- 106 remained in their mainstream schools.

Hot off the Press...most up to date research from D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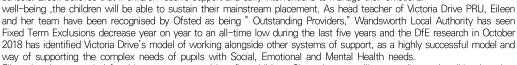
"Alternative Provision Market Analysis"
October 2018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P57 Victoria Drive PRU)

head@victoriapru.wandsworth.sch.uk
Thankyou

Eileen Shannon Head Teacher, Victoria Drive PRU

Eileen Shannon studied Education and French at St. Andrew's College, Scotland. Following her graduation in 1986, Eileen moved to London to teach in mainstream primary schools. She has taught in challenging schools with high deprivation indexes. Throughout her career in teaching Eileen has been keen to address the pastoral needs of all children and therefore create a positive culture to learning.

In 2010, Eileen moved into Special Education to support pupils who were experiencing a series of fixed term or permanent exclusions following extremely difficult behavioural outbursts within their mainstream schools. Eileen believes that if children receive support and early interventions to manage their emotional



Eileen has been married for thirty-two years and has five children. She enjoys travelling, reading and walking her dog.



초등위탁교육기관 시례: 학생지원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와의 파트너십

Eileen Shannon Victoria Drive PRU, Head Teacher

초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학생지원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와의 파트너십

EILEEN SHANNON



Context

- 원즈워스는 런던 남부 중심부의 자치구
- 이주: 런던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이주율 보유
- 흑인과 소수 민족: 인구의 29% 차지
- 빈곤: 인구의 21%가 빈곤 상태
- 62개의 초등학교
- 약 29,000명의 0~15세 아이들



학생 고유 번호

고유 학생 번호 (UPN)는 지방 당국관리체제 하학교 시스템에서 각 학생을 식별하는 13 자로이루어진 코드. 이 안내서는 학교 및 지방당국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보호 및 UPN유지에 대한 지침을 비롯하여 UPN에 대한정보를 제공.

빅토리아 드라이브 초등위탁기관

- 일반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의무교육 학령의 학생에게 전일교육을 제공하는 법적 의무 제공
- 잉글랜드 내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수는 수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잉글랜드의 초등학생 1 만명당 8 명 수준 (교육부, 2016 년)
- 대부분의 퇴학 처분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
- Victoria Drive PRU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원즈워스구 내 초등학교에서는 퇴학 처분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5	4	3	2	2	0

DfE 퇴학 지침 (2015)

 문제적 행동은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암시가 될 수 있음. 학생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학교의 경우 추후 학업중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문제적 행동에 대한 원인적 요인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기에 개입해야 함.

사회적, 정서적, 정신 건강 문제 (SEMHDs)

SEND 실행 규범의 정의; 2014 년 0 ~ 25 년

- 어린이와 청소년은 스스로를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있어서 여러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들은 고립되는 것 뿐만 아니라, 힘들거나, 분열적이거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불안이나 우울증, 자해, 물질 남용, 섭식 장애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 할 수 없는 신체 증상과 같은 근본적인 정신 건강 장애를 암시 할 수도 있다. 다른 어린이 및 청소년은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는 애착 장애와 같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 학교와 대학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제적인 행동의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어야 한다.

SEMHD를 겪는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장애물 - 소통을 위한 행동 이해 조기 식별 여방 어떻게해야 어떻게 모르겠어요! 식별 - 국복

학생 위탁하기

- 학생은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 위탁 양식을 통해 위탁됨.
- 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함.
- 학생은 매달 열리는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 **위탁 패널** (Victoria Drive PRU Referral Panel)에 소개되며 여기서 학생이 받는 지원 유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
- 학교는 Boxall Profile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과 사회, 정서 및 정신 건강적 필요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부모 / 보호자는 자녀를 위한 지원 확립을 위해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 직원을 만남.
- 추가 정보를 위해 다른 기관들도 연관되어 다중 전문 네트워크가 형성됨.
 이것은 또한 학생 전담 팀 (Team Around the Child)이라고 불림.
- 지원은 대개 두 학기 동안 이루어지지만 학생의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은 어떤 형태의 모습인가?

소그룹



• 학생들은 PRU에 주당 2 회기 출석-

9am-11.30am

1pm-3pm

- 학생들은 교사 한 명과 보조교사 한 명과 함께 6 명씩 소그룹으로 활동.
- 학생들은 주제 기반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 세 가지 영역, 즉 쓰기, 읽기 및 숫자에 중점을 둠.
- 각 학생은 각자의 고유한 목표를 위해 노력.







치료적 지원

• 놀이치료



• Football Beyond Borders



•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Flip Out



• 수영



Future Skills

학습 멘토



- 학습 멘토는 소속 학교나 PRU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함.
- 학습 멘토는 다음의 문제를 지원.

낮은 자존감



왕따 문제

새로운 중요 단계 / 학교로의 전환 준비

안전 문제

감정



• 모든 지원은 학생 개별의 필요, 걱정 및 어려움에 맞춰져 있음.



가족 지원 담당자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음. 우리는 가정들이 이런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도우며, 학교와 집을 중재하고, 아이들을 새로운 학교로 옮기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함.

교내 방문 지원

방문 교사는 원적교로 가 아이들을 지원. 소속된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조언 및 상담



- 한 명의 교사가 학교 직원과 함께 일하도록 배정됨-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방문.
- 교사는 특정 학생 또는 상담 그룹에게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며 조언과 상담을 제공함.

교장에 대한 지원



- PRU의 교장은 원즈워스의 런던 자치구 전역의 초등 교장에게 상담, 조언 등의 지원이 가능함.
- 사회적, 정서적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

교육 및 보건 지원



지원팀은 교육, 보건 계획 (EHCP)의 일환으로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한 명의 교사와 한 명의 전일 보조 교사로 구성되며, 학생 중 사회, 정서 및 정신 건강 장애 (SEMHD)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을 초점으로 함.

이 팀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SEMHD학생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
- 조언과 상담 제공
- 개별학생의 목표를 파악
- 개별 학생과 함께 일하는 교사와 보조 교사를 지원
- 개별 학생 중 일부에게 직접 개입 / 수업 제공
- 외부 기관과의 연결
- 연례 검토 회의 및 기타 관련 회의 참석
- 서면 보고서를 제공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 (CAMHS)



빅토리아 드라이브 대안학교에는 임상 심리학자가 상주하며 인근 원즈워스 초등학교로도 파견 근무. 이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

- 개별 학생 관찰
- 상담제공
- 학생에 대한 인지 및 심리 측정 평가 수행
- 학생들, 가족 및 관련된 기타 전문가들과 직접 협력
- 위탁 또는 평가 대상인 모든 학생에 대한 서면보고 및 조언을 제공
- 외부 기관과 연락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

가족 치료사는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에 상주하며 원즈워스 초등학교들로 파견근무. 이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

- 개별 학생 관찰
- 상담제공
- 학생과 가족들에게 치료적 지원제공
- 관련된 팀에 조언과 지원제공
- 모든 위탁에 대한 서면 보고 제공
- 외부 기관과 연락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
- 인지 행동 치료 및 감정 표현 그룹에 전달



영향

- 2017~18년 110 명의 학생들이 PRU에서 지원 받음
- 3 명이 "관리전학(Managed Move)"을 받음
- 10 명이 EHCP를 받음
- 4 명은 전문적 지원으로 이동
- 106은 일반학교에 남아있음

DfE에서 나온 가장 최신 연구

"대안교육마켓분석" October 2018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P57 Victoria Drive PRU)

head@victoriapru.wandsworth.sch.uk
Thankyou

Eileen Shannon Victoria Drive PRU, Head Teacher

이일린 새년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류스 대학에서 교육과 불어를 공부했다. 1986년 졸업 후, 그녀는 런던의 일반초등 학교에서 일했다. 그녀는 높은 빈곤률을 기록하는 지역의 어려운 학교들에서 근무했다. 교직경력동안 이일린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고자 했고 배움에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2010년에, 이일린은 극도의 문제적 행동으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퇴학이나 정학차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

'ZUIU단네, 이일린은 극도의 문제적 행동으로 인해 일만학교에서 퇴학이나 성학자문을 믿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 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이일린은 만약 이동이 그들의 감정적 안정감을 위해 지원과 조기개입을 받는다면, 일반학교에서의 원활한 적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공립 초등위탁학교인 Victoria Drive PRU의 교장으로서, 이일린과 그녀의 팀은 Ofsted(영국 교육기준청)으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월한 기관"이라는 평기를 받았다. 원즈위스지역교육청에따

르면 지역 내 정학수치는지난5년 간 이전 대비 줄어들었고, 2018년 10월에 이루어진 DfE(영국교육부) 연구는 타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일하는 Victoria Drive의 모델을 사회적,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복잡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자 방법으로 평기했다. 이일린은 32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5명의 아이를 갖고 있다. 그녀는 여행과, 독서, 강아지와의 산책을 즐긴다.



◆ 제2세션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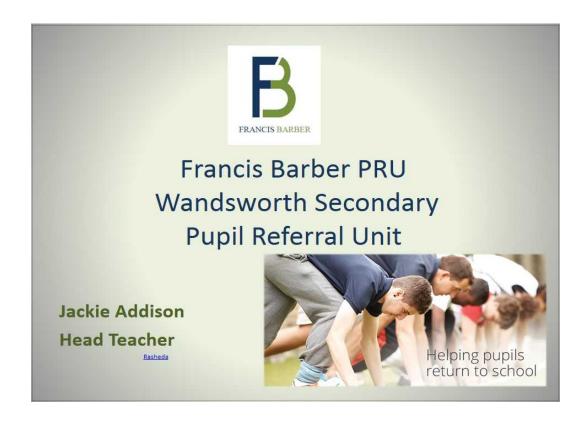
중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프란시스 바버

Francis Barber PRU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Francis Barber PRU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Context of Francis Barber

Francis Barber is the London borough of Wandsworth secondary Pupil Referral Unit (PRU) based across two sites.

We work with a complex client group comprising of some of the most vulnerable and needy young people in the borough. These include:

- Pupils who have been permanently excluded or accepted on a managed move in lieu of permanent exclusion
- Pupils who are at risk of permanent exclusion dual registered with mainstream secondary schools
- Year 11 new arrivals. These pupils take GCSE courses.
- Non attending or phobic pupils who are not thriving at school or who have been off-rolled from out of borough schools. These pupils are referred to the PRU panel by Education Welfare.

Context of Francis Barber

We also provide a number of other services for the local authority:

- The Pathways programme which provides education for pupils with complex special needs, most of who are on the autistic spectrum – 7 places of 1:1 provision for pupils with EHCP's*
- The Freshstart programme is for KS4 pupils with EHCP's 15 places
- Inclusion Advisor experienced teacher works across the schools aiming to help them to keep pupils in school having formal meetings (Pupil support programme) with pupils and their families at risk of permanent exclusion.

*EHCP –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for pupil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Context of Francis Barber

Wandsworth sits in the middle of the league tables for the number of permanent exclusions within it'.

In 2017/18 we worked with 31 (19%) pupils on a dual registration basis offering a short term intervention of around 6 – 12 weeks

60% boys, 30% girls

73% attendance (National average for: PRU's 67.4%, Mainstream schools 96%)

Ethnicity of pupils:

- · 30% Mixed Heritage
- 30% Black
- 30% White

Deprivation factors:

- 40% of pupils qualify for free school meals (FSM- deprivation factor)
- 49(30%) pupils were being supported by social services Child in Need (CIN), Child protection Plan (CPP), Child Looked After (CLA)

Special educational needs:

X% - EHCP

X% - require additional support

Francis Barber 2017 - 2018

We worked with 220 pupils over the year, of these 168 were referred due to behavioural concerns

Disproportionate number of year 11's – take GCSE's – 37% pupils in 2018

Leavers from year 11 - 85%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EET, NEET 15%)

Pupil feedback - 84% they feel very safe

Ofsted Inspection Dec 2017 - graded good

'pupils reported that they like the school and that they make good progress due to the high levels of support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taff.'

'A high proportion of pupils achieve or exceed the targets set when they enter the school.'

Pupil Outcomes above national average for PRUs

Measure	2016	2017	2018	National 2016-2017
Percentage entered	100%	97%	100%	61.4%
Percentage gaining At Least 1 GCSE	92%	91%	94%	56.8
Percentage entered for all components E & M grades % entered for E, M & Sci		97% 53%	96% 87%	40.5% 27%
Percentage entered for 5+ GCSE level qualifications	72%	62%	73%	15.9% (2015
Percentage gaining at Least 5 GCSE level qualifications Inc E & M	54% 28 pupils 46% 24 Pupils	43% 18 pupils 40% 17 pupils	55% 26 pupils 53% 25 pupils	13% 9.5% (2015)
Percentage gaining at least 8 GCSE level qualifications	15 % 8 students	12% 5 pupils	40% 19 pupils	
Percentage of GCSE level A – C Grades	22% (55 A- C Grades)	17% (32 A-C grades)	33% (91 A-C/9-4 Grades)	
Percentage of students achieving at least one A – C Grade	40% 21 students	39% 17 students	48% 23 pupils	20.3% (201
No. of students gaining 5 A – C GCSE level passes Inc E & M GCSE	5.8% 3 students	3% 1 pupil	12.5% 6 pupils 10.5% 5 pupils	3.6%
Level 2 Eng & Maths	6 students 11.5%	2 pupils 4.5%	7 students 14.5%	2.1% (2016
evel 1 Eng & Maths	32 students 62%	29 pupils 66%	36 pupils 76%	21.3% (2015
% of pupils who achieved a .9 – 4 pass in En & Maths 9 – 5 pass in En & Maths		4.5%	10.5% 4.2%	4.4% 1.3%

Ethos - Francis Barber-Mission Statement



Inspiring Supporting to Achieve

Inspiring and supporting young people to achieve the best outcomes and engage with their future

Providing young people with a second chance in education, preparing them for their futures

What does this mean in practice?

Ethos

Good and outstanding teaching is the norm

Do not exclude, instead:

- recognise that negative behaviour is a symptom of other issues,
- 'forgiving' attitude coupled with high expectations
- ensure pupils recognise the consequences of actions
- develop a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carer, & other agencies

Every interaction is a learning opportunity – staff are constantly mentoring and modelling societal norms

Maximise accreditations – minimum offer of 5 GCSE level exams

Focus on improving literacy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e.g. pupil to teacher, peer on peer

Procedures at Francis Barber

- Schools, SNAS & EWO's complete a FBP referral form –identify interventions already offered at school
- If criteria are met, the offer is decided (DR, MM, Perm exclusion), an initial interview is offered to the family and young person
- Assessments for 1 week to ascertain baseline and observe behaviours
- Allocate a keyworker and join a group
- Refer to other agencies if necessary
- Build relationship with parent/carer



Key Features of Francis Barber

Baseline in literacy, numeracy and most subjects on entry and re-test termly to recognise and track progress

Rigourous **logging** of all concerning behaviour, using www.schoolpod.co.uk

All communications regarding pupils and all safeguarding issues are logged with rigour

Keyworker responsible for all communications of a pupil including referrals to other agencies

2 sites – all staff work across both sites but pupils remain on one

Other Agencies

Work closely with other agencies such as:

- Social services, YOT, police,
- Currently have an onsite CAMHS Psychologist (1 year pilot)
- Youth service
- School nurse
- Clinical nurse
- Youth persons health workers (drugs rehabilitation & relationship health)
- Charities Dallaglio Foundation, Barnados

Work with Mainstream Schools

Preventing exclusion from school – Inclusion Advisor works directly with schools with pupils at risk of permanent exclusion

Offer *Dual registration placements* – 6-12 weeks *Managed moves* instead of permanent exclusions *Reintegration* either to college or apprenticeships after Year 11 (85% EET)

Reintegration back to mainstream schools

Identification of learning or social, emotional & mental health needs leading to an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 – integration into a *special school or base*

Future Challenges?

- Funding models future arrangements?
- Alternative Provision Innovation Fund Successful bid from
- Developing the understanding by teachers of Autistic Spectrum Disorders and other conditions so they can better meet the needs of these pupils

Continue to aim to meet the needs of our pupils!

ameron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I have been a teacher of secondary aged pupils in South London for the past 24 years. I am currently Headteacher of Francis Barber Pupil Referral Unit in Wandsworth, an inner London borough, where I have worked for the past 5 years, supporting the school through 2 successful Ofsted inspections. I trained in the North East of England where I grew up. I have always been motivated to work in schools with a high number of pupil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and have held senior positions in mixed comprehensive schools in Southwark, Croydon and a girls' school in Fulham all within the London area.



I entered the profession as a teacher of Design & Technology and progressed through the curriculum route to Assistant Headteacher. At this stage of my career, I studied to achieve the National SENco Award qualification which led me to transition to Deputy Headteacher of the PRU. I was then subsequently promoted to Headteacher after a year in the Deputy post. I follow my professional passion ensuring disadvantaged pupils have access to good quality education and support and try to balance this commitment with family life – namely my husband and two growing children, Georgia and Nathaniel aged 11 & 6 years.

중등위탁교육기관 사례: 프란시스 바버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Francis Barber 상황

Francis Barber는 두 장소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런던 자치구 원즈워스의 중등위탁교육기관

지역 내 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학생들이 주요 대상 다음의 학생들을 포함함:

- 퇴학 처분됐거나 퇴학 대신 관리전학을 받은 학생
- 학업중단위험이 있는 학생 중 원적교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학생
- 11 학년 신규 입학. 이 학생들은 GCSE 과정을 밟음.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되어 결석을 하거나 학교 공포증을 갖고 있는 학생. 이러한 학생들은 교육복지부에 의해 PRU위원회에 위탁됨.

Francis Barber 상황

지방 당국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주로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특수 학생을 위한 Pathways 프로그램 *EHCP대상 학생으로 1:1 프로그램을 7개 장소에서 제공
- Freshstart 프로그램은 EHC대상 KS4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15 개 장소에서 이루어짐
- 통합 상담사 숙련된 교사가 여러 학교를 방문하며 학업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 및 가족들과 공식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줌

* EHCP -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Francis Barber 상황

원즈워스구는 퇴학 수치에 있어서는 중간에 위치함.

2017/18 년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31 명 (19 %)의 학생들과 협력하여 약 6-12주의 단기간 개입을 제공했음.

60 % 남학생, 30 % 여학생

73 % 출석률 (전국 평균 : PRU 67.4 %, 주류 학교 96 %)

한생 인종:

- 30 % 혼혈
- 30 % 흑인
- 30%백인

빈곤요인:

- 40 %의 학생들이 무료 학교 급식 대상자 (FSM- 빈곤 요소)
- 49 (30 %)명의 학생들이 사회 복지 서비스인 CIN (Child in Need), CPP (Child Protection Plan), CLA (Child Looked After) 지원을 받고 있었음

특수 교육 니즈:

X % - EHCP

X%-추가 지원이 필요



Francis Barber 2017 -2018

일년에 220 명의 학생과 함께 했으며, 이들 중 168 명은 행동의 문제로 인해 위탁됨.

11학년의 불균형 비율 - GCSE 응시- 2018 년의 37 % 학생

11 학년 이후 졸업자- 85 %가 교육, 취업 또는 훈련 (EET, NEET 15 %)

학생 피드백 - 84 %가 매우 안전하다고 느낌

2017 년 12 월 Ofsted 감사 - 높은 등급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며 높은 수준의 지원과 직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인해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세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PRU 학생 성취도

Measure	2016	2017	2018	National 2016-2017
Percentage entered	100%	97%	100%	61.4%
Percentage gaining At Least 1 GCSE	92%	91%	94%	56.8
Percentage entered for all components E & M grades % entered for E, M & Sci		97% 53%	96% 87%	40.5% 27%
Percentage entered for 5+ GCSE level qualifications	72%	62%	73%	15.9% (2015
Percentage gaining at Least 5 GCSE level qualifications Inc E & M	54% 28 pupils 46% 24 Pupils	43% 18 pupils 40% 17 pupils	55% 26 pupils 53% 25 pupils	13% 9.5% (2015)
Percentage gaining at least 8 GCSE level qualifications	15 % 8 students	12% 5 pupils	40% 19 pupils	
Percentage of GCSE level A – C Grades	22% (55 A- C Grades)	17% (32 A-C grades)	33% (91 A-C/9-4 Grades)	
Percentage of students achieving at least one A – C Grade	40% 21 students	39% 17 students	48% 23 pupils	20.3% (201
No. of students gaining 5 A – C GCSE level passes Inc E & M GCSE	5.8% 3 students	3% 1 pupil	12.5% 6 pupils 10.5% 5 pupils	3.6%
Level 2 Eng & Maths	6 students 11.5%	2 pupils 4.5%	7 students 14.5%	2.1% (2016
Level 1 Eng & Maths	32 students 62%	29 pupils 66%	36 pupils 76%	21.3% (201
% of pupils who achieved a :9 – 4 pass in En & Maths 9 – 5 pass in En & Maths		4.5%	10.5% 4.2%	4.4% 1.3%

학교의 정신 - Francis Barber-교훈



영감을 주는 성취를 지지해주는

학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지지

학생들에게 교육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함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신

훌륭하고 뛰어난 수업을 기본으로 함.

퇴학처분하지 말라, 대신:

- ▶ 부정적인 행동이 다른 문제의 징후임을 인식하라.
- ▶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더불어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라.
- ▶ 학생들이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도록 보장하라.
- 학부모 / 보호자 및 기타 기관 간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라.

모든 상호 작용은 학습 기회.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회 규범을 멘토링하고 모델링함.

법률적 인가 확대 - 최소 5 GCSE 레벨의 시험 제공

문해력 향상에 초점

관계 회복. 예: 학생 대 교사, 학생 대 학생

Francis Barber에서의 절차

- 학교, SNAS & EWO가 **FBP 위탁 양식** 완성- 학교에서 이미 제공된 개입이 있으면 확인
- 기준이 충족되면 위탁교육 여부가 결정되고 (DR, MM, 퇴학),대상 청소년 및 가족 대상으로 초기 인터뷰가 실시됨
- 문제행동 수준 확인 및 관찰을 위한 1주일 간의 사정
- 핵심담당자를 배치하고 그룹에 참여시킴
-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 부모/보호자와 관계 구축



Francis Barber 주요 특징

입학 시 문해력, 수리력 및 기타 과목에 대한 **기본 역량 측정**과학생의 향상 과정을 인식하고 추적하기 위한 주기적 재시험
www.schoolpod.co.uk 를 통한 모든 관련 행동에 관한 철저한 **기록**학생과, 안전문제와 관련된 모든 소통 내용은 철저하게 기록됨
다른 기관에 대한 위탁을 포함하여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핵심담당자

두 개의 공간-모든 직원이 두개의 공간에서 일하지만 학생은 한 곳에서만 수업을 들음.

기타 기관

다음과 같은 타기관과 긴밀히 협력

- 사회 봉사, YOT, 경찰,
- 현장의 CAMHS 심리학자 (1 년 파일럿) GHTER
- 청소년 서비스
- 학교 간호사
- 임상 간호사
- 청소년 건강 요원 (마약 재활 및 관계 건강)
- 자선 단체 Dallaglio Foundation, Barnados

주류학교와의 협력

학업중단예방- 적응 관련 상담사가 학업중단 위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교와 직접으로 일함.

이중 등록 제공 6-12 주

퇴학대신 *관리전학*

11 학년 (85 % EET) 이후 대학 또는 견습 과정으로 **재통합** 주류 학교로의 *다시 재통합*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EHCP)으로 이어지는 학습 또는 사회, 정서 및 정신 건강 필요성의 식별 – *특수 학교 또는* 원적교로의 통합

미래의 도전과제들은?

- 자금 조달 모델 미래에 대한 준비는?
- 대안적 교육지원 혁신 자금(Alternative Provision Innovation Fund)으로부터의 성공적인 예산확보
-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증상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함.

Jackie Addison Head Teacher, Francis Barber PRU

지난 24 년간 사우스런던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였으며 현재 런던 자치구 윈즈워스에 위치한 프란시스 바버 대안학교 교장이다. 지난 5년간 근무하며 두 차례의 영국 교육기준청 (OFSTED)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년시절을 보낸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서 훈련을 받았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유년시절을 보낸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서 훈련을 받았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항상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런던 풀햄에 있는 여학교와 런던 서더크 및 크로이던에 위치한 남녀공학고등학교들에서 상급 직책을 맡은 경험이 있다.

디자인 및 기술 교사로 시작하여 경력을 쌓이갔으며 교감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National SENCO Award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했으며 이를 통해 PRU 교감직으로 이직했고 1년 뒤 교장으로 승진했다.

소외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남편과 두 아이들인 11살 조지아와 6살 나다니엘이 있다.



◆ 제2세션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

지정토론 / 질의응답

Discussion / Q&A

김태식 서울시교육청 정학관 Tae Sig Kim Senior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이정희 인천해밀학교 교사

Jung Hee Lee Teacher, Incheon Haemil School

지정토론 -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새로운 위탁교육체계 모색

김 태 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 들어가며

해마다 전국기준 약 5만명 내외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2017년 총학생의 0.87%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했으나, 전국 고등학생의 1.47%인 24,506명의 고등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다양한 학업중단예방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2016년부터 학업중단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특히 정서·행동장애, 장기결석, 학교규칙 위반 등의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서 잉글랜드의 학업중단예방체제 PRU(Pupil Referral Unit)에 대한 탐색과 논의 과정은 그 의미가매우 높다.

2. 잉글랜드 학업중단예방체계 PRU(Pupil Referral Unit)의 이해

잉글랜드는 1996년 교육법을 통해 5~16세의 청소년이 질병,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별로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인 PRU를 운영하며, 초등·중등·치료형 PRU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RU 교육대상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질병사유 학업중단 학생, 미혼모 및 임신학생, 퇴학생, 퇴학예정학생 등이며, 학생의 학교복귀를 교육목표로 한다. PRU 교육과정은 통상 1년 간 3학기를 운영하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일제, 시간제 수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개인별로 다르나 최소 1주에 5시간 이상 교육하며 퇴학생은 전일제 교육이 이루어진다.

3. 잉글랜드 학업중단예방체계와 PRU(Pupil Referral Unit)의 시사점

잉글랜드 학업중단예방체계의 특징은 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과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상담·치료-복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PRU 학생은 지방정부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프로그램,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CAMHS) 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우울증, ADHD, 폭력, 은둔형 등)을 위한 지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셋째, PRU에서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하여 탄력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교 안과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과 개인별 시간제 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직원 조직도 지원된다.

넷째,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SENCo(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단위학교는 1차적으로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성을 지니고 있으며, SENCo는 학교에서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외부 지원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등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인력이다.

다섯째,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 UPN(Unique Pupil Number)를 부여받아 관리된다.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는 대학 입학 때까지 학생의 교육이동 및 변화 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듯 잉글랜드의 학업중단예방체계는 위기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지역기반의 자치구·교육청 협력체계, 학생 상황에 맞는 탄력적 위탁교육 교육과정 운영이 장점이며, 이는 우리나라 학업중단예방대책 마련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학업중단예방체계와 PRU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지원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행정지원시스템, 탄력적 교육과정을 위한 교원 배치 및 정원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청·지자체 주도의 위탁교육인 PRU체계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4. 나가며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학교 내에서도 정서장애, 자해·자살학생 등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교육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행히 북유럽의 대안교육체계보다 잉글랜드의 PRU가 더 현실적 접근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교육복지제도와 Wee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Wee센터에서 지역 상담기관과 병원을 연계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Wee스쿨, 병원내 Wee센터, 병원형 위탁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위탁교육기관-Wee센터-상담기관·의료기관-복지관이 융합하는 학생 맞춤형 위탁교육 운영을 조심스럽게 시도해보는 것도 의의가 클 것이다.

김태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학력 서울교육대학교(학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경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서울선유초등학교 교감



Discussion - Searching for a New Pupil Referral System for Preventing School Dropout

Tae Sig Kim Senior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 Introduction

Every year, nationwide, approximately, 50,000 adolescents leave school. In 2017, 0.87% of total adolescents suspended study, but 24,506 high school students, which are 1.47 % of national high school students, left school.

Various prevention programs for school suspension, such as new-start program, supporting school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alternative class within school, and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s for alternative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But since 2016, the rate of school suspension is raising again.

Therefore, a new approach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became urgent. In particular, as a new model of a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 for maladaptive students in school, such as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long-term absence,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s, the exploration and discussion of England's Pupil Referral Unit (PRU) is very meaningful.

2. Understanding of England's Pupil Referral Unit

Through the education law of 1996, England regulates the duty of local government and office of education that they are to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 to adolescents so that they can complete compulsory education, if adolescents, who are from 5 to 16 in age, cannot attend a school due to illness, and dropout. Each district operates PRU which is a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 for maladaptive students

in school with the types of basic, middle, and therapeutic PRU.

The educational subjects of PRU are students with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and study suspension due to illness, unwed students and pregnant students, dropouts, and students who are scheduled to be expelled. The educational goal is to bring back the students to school. The educational curriculum is usually a year which has three quarters. It provides all day or hourly classes variously through flexible educational curriculum. It provides students who have a health problem with more than five hours a week at least, although it varies, depending on individuals and dropouts with all day education.

3. Implication of England's Prevention System for Study Suspension and PRU (Pupil Referral Unit)

The first characteristic of England's prevention system for study suspension is that i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education, such as law legislation to support students who undergoes a crisis of study suspension, reinforc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office. On the basis of this, it provides institutional system and supportive program in which education, counseling, cure, and welfare are combined organically.

Second, there are concerns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mental health of students. PRU students can always receive support for mental health (depression, ADHD, violence, seclusion, etc.) through the Education, Health Care Plan (EHCP) of local government and system of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 (CAMHS).

Third, PRU operates a flexible educational curriculum for classes which are customized for students. It operate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for adolescents in and out of school, such as all day class and hourly class for individuals and it supports the system of school staff, too.

Fourth, every school has SENCo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 for maladaptive students in school. School has a responsibility to solve the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of students primarily and SENCo is a dedicated human power in school to solve the problems of students, such as external support and support

for family along with th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of students.

Fifth, all students in England are managed by given Unique Pupil Number (UPN). UPN, which is given at the admission of elementary school, is a tool to check the educational movement and situational change of students and to prevent study suspension until the admission of university.

In this manner, the prevention system for study suspension in England has an advantage that it has an instant intervention for a student who goes through a crisis, cooperative system of autonomous district and education office which are based on locality, and the operation of flexible commissioned educational curriculum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students. This gives an implication for preparing a prevention program for study suspension in our country.

But, there is a realistic difficulty in introducing England's prevention system for study suspension and PRU system. There are tasks to be made, such as legal support for students who experiences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and dropouts, administrative system in which education office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e, school staff arrangement and quota expansion for flexible educational curriculum, and re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ditionally, with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that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s for alternative education are operated by civilian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found discussion of how to introduce PRU system which is operated by education office and local government.

4. Conclusio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country in which individual and social los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adolescents out of school and students who have emotional disorder, injure themselves, or commit suicide increases rapidly,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education, that is,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with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tunately, the reason why England's PRU has a possibility of more realistic approach than alternative educational system of Northern Europe is probably that educational welfare system and Wee project is already being operated even in our

country. Wee center is associated with local counseling organizations. Some city and state education offices operate Wee school, Wee center in hospitals, and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s for hospitals. Therefore, it will be meaningful to try cautiously commissioned educational operation, which is customized for students, in which school, commissioned educational system, Wee center, counseling organization, medical organization, and welfare organization are integrated.

Tae Sig Kim Senior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MA) Work Experience School supervis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Vice-principal, Seoul Seonyu Elementary School



지정토론 - 공교육에서의 위탁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예방 및 교육기회보장

이 정희 인천해밀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잉글랜드의 공립 초등위탁학교 PRU의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며, 중등위탁학교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저희 학교와 유사한 상황이여서 의미가 있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설립된 중고등학교 통합 공립형 위탁교육기관인 Wee스쿨에서 학생 지도 경험을 중심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교육 위탁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교사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사의 일반 학교 경력은 대안 교육 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보다 기존의 학교 교육 틀에 맞춘 규칙과 훈육을 강조하여 원적교 복귀 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하시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 중 일부이며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양질의 교육활동과 학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 지원의 실제

가. 인권 차원에서의 생활교육

위탁되어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가해 또는

피해의 형태로 경험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나 실제 교사 간 인권에 대한 관점과 수준이 달라 일관된 교육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을 하는 시민단체의 강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태도와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와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활동을 진행하였고,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나. 갈등 해결 방법의 학습

교사는 갈등이 상황에 대하여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갈등은 당연이 존재하며 이는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해야한다. 갈등 발생 시 징계나 처벌이 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를 위해서 교사는 갈등해결과정의 단계를 사전에 숙지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될 때 학생들은 갈등을 폭력, 분노, 자해 등이 아닌 건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다.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학생들은 학교, 가정, 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지 못한 경험이 많으며, 원적교 생활이 어려워 위탁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에 도전한다. 평소 신뢰서클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의 과정을 통해 규칙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대안교육은 학생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훈계나 처벌이 아닌지지와 조언을 통해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라. 대안교육을 활용한 진로교육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많아 경제 교육과 더불어 진로와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통한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 많이 안타깝다. 현재 대안교과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흥미 위주의 단순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여 자격증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대학에 학과에 진학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본교 대안교과 강사로 활동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미래가 불투명하여 불안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한 학생 지원의 실제

가. 원적교와의 연계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은 최장 1년이나 학생의 위탁시기가 달라 실제 교육 기간은 그리길지 않다. 학년을 진급하면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야 하는 하므로 평소 원적교 교사와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원적교 선생님들을 학교에 초청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알려드리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며 차후 원적교 복귀 후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

위탁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우울증과 충동적 행동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신과 자문의의 정기적인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의 이론적 배경과 지원 방법을 교사들이 알 수 있었으며, 학생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신과 자문의의 상담과 컨설팅은 학부모,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상담교사가 함께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위탁해지나 학업 중단을 하는 되는 경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주어 교육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학생 거주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학업 중단 사실을 알려 상담과 지원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검정고시 또는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가정법원. 보호관찰소와의 연계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학생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중단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반복되는 교권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인해 원적교는 물론 위탁교육기관에서도 교육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며 교육의 기회 얻지 못해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학교와 가정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지도해야하며, 충돌 조절을 위한 정신과적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 보호관찰소의 학생 담당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교사 및 상담사와의 1:1 결연을 통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지지를 하도록 한다.

5. 마치며

공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부담스런 존재가 아닌 삶의 과정에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학생으로 보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모습과 학생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적소양을 키워야할 것이다.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평소 일반 학교 교사들과 소통의 원활하며, 일정기간 근무를 마치면 다시 일반 학교에 돌아가 교육활동을 하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사례는 대안교실 운영에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이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육 현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희 인천해밀학교 교사

학력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학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석사



Discussion - Prevention of School Dropout and Guarantee of Educational Opportunity through Commissioned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Jung Hee Lee Teacher, Incheon Haemil School

1. Introduction

It is impressive that, on the basis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students in crisis, there is a support program of PRU in England's public commissioned elementary school for the students. It is meaningful that the process of recovering relationship through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the commissioned middle school is similar to my school. Based on my experiences of student guidance at Wee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and is a public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 with integrated middle and high schools, I would like to suggest a supportive way to guarantee the educational opportunity of the students who are faced with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2. Difficulty in the Commissioned Educational Field of Public Education

Due to ambiguous identity as the commissioned institute of public alternative educa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etting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As students with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are gathere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students rebel against teachers and do not follow teachers. Accordingly, many teachers struggle with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addition, teachers, who have general school career, aim to the return of students to their original schools and school life in the schools. Therefore, they are oriented to not various educational trials in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e, but rules and disciplines which fit into previous school education frameworks. However, it is a part of the ways in which they educate students in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It is necessary to be equipped

with actual supportive system through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with good quality and exact diagnosis of the situations of students in order to change students who have complex problems.

3. Reality of Student Support at School Curriculum

A. Life Education in the Level of Human Right

Majority of students, who receive commissioned education, experienced various kinds of school violence as perpetrator or victim. Thus, it is located so deeply in the mind of the students that it can be a cause of low self-esteem. It is necessary to teach a human right to them so that they can reflect their behaviors and grow. However, it does not take place as educational activity due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and levels of teachers on human right. Accordingly, through the support of civil organizations for lecturers, who teach peace education and human right education, we provided an educational activity in which students learned to communicate democratically, to acknowledge one another, and to view society and education from new perspectives. We plan the reinforcement of human right education through the renovation of education curriculum.

B. Learning Methods of Resolving Conflicts

Teachers are to be aware that conflicts exist where human beings live and that it is a starting point in which education for relationship renovation starts. When a conflict takes place, a teacher needs to guide the recovery of relationship through democratic problem-solving rather than discipline or punishment. For this, the teacher needs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knowing the steps of conflict-resolving process. When a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is learned naturally, students can learn how to solve a conflict in a healthy and peaceful way, not with violence, anger, or self-injury.

C. Making a Safe Community

Students have many experiences that they were not protected in school, family, and society. They are afraid of the cancellation of commissioned education due to

the difficulties of their life in their original schools. They open their minds and challenge a change with authenticity, when they feel that they are trusted and supported. It is necessary to make them aware that the school is an important place to all of them through trust circle. Both teachers and students make rules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teachers help them to practice the rules. Alternative education does not allow every behavior of students unconditionally. If there is a behavior which does harm to others or makes a difficulty in community, teachers need to guide students with support and advice, not with discipline or punishment so that they can reflect it and take responsibility of it.

D. Career Education with Alternative Education

There are many students who are vulnerable financi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in which they can learn economy education along with career in order to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as adults. I feel so sorry to hear that some students cannot adapt themselves to society after graduation. Currently, alternative education curriculum is operated by inviting external lecturers but many of the activities are just interest-centered. So, I suggest that schools provide certificate course or professional course so that they can go to university. Recently, there is a case in which a student obtained a license in school, went to university and worked as a lecturer of my school.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give hope to students who were anxious due to unclear future.

4. Reality of Student Support with Related Organizations

A. Connection with Original school

The educational period of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s is one year at maximum but actual educational period is not that long, because the commissioned time of students is different. If a student goes to higher grade, the student is supposed to go to the original school. So, we need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student with the teacher of the original school. It will be beneficial to invite the teachers of the original schools and show the positive and bright life of students during educational curriculum. They will have changed perspectives on students and it will be helpful

for the students to go back to the schools later and to have a better adaptation to the schools.

B. Connection with Psychiatrists

Majority of commissioned students have a psychological difficulty of depression and impulsive behavior. Through the long-term consulting and learning of the psychiatrist, the teachers were able to be aware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ich the students experience. This helped the teachers to understand the students better. The counseling and consulting of the psychiatrist led parent, homeroom teacher, professional counselor, and counseling teacher to make a supportive strategy for individual students. When medication is needed, they shared the information with the student so that the student could manage it on his/her own.

C. Connection with Adolescents Support Center

When a student is commissioned or faced with study suspen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ways for the student to choose so that education opportunity may not be disconnected. It is necessary to notify it to adolescents support center, Dream, which is located at the place where the student lives so that it can give counseling and support to the student. Also, it can lead the out-of-school student to be involved in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o prepare for General Equivalency Diploma or going back to the school.

D. Connection with Family Court and Probation Office

Recently, students, who are exposed to adolescent crimes, are becoming a social issue. The most serious concern is their study suspension. Due to repetitive violation of teachers' authority and violation of other students' right to learn, there are many students who have a difficulty in commissioned educational institutes as well as original schools. Consequently, they stay out of school so they do not have an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the rate of committing second offense does not drop. First of all, school and family need to protect and support students stably so that they cannot commit second offense. They also must guide them to take a psychiatrist

treatment for impulse control. By sharing information with a teacher in probation office and connecting a teacher and a counselor one on one,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support for student are to be given.

5.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in public education, we need to view students who have a crisis of study suspension not as burdensome beings but as students who go through difficult period of time in life and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so that the students can grow as mature adults. For this, the teachers are expected to build professional views so that they can respect students as a human being, diagnose the problem of the students, and set appropriate support plans.

Teachers in my school usually hav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in general schools and go back to the general schools after ser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Taking consideration of this, the various trials and cases related to students in the crisis of study suspension which they have, can give a direction of how to operate alternative class. Also, it can be a starting point of changing school into a place where we can accept a variety of students and make a peaceful community together through the support program for students who have high crisis.

Jung Hee Lee Teacher, Incheon Haemil School

Education

Bachelor of Earth Science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from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ongHoe University



제 3 세션

Session III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Practices of School Dropout Prevention by Innovating Schools

좌장: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Chair: Se-young Hwang Assistant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기 학업중단 예방: 스코틀랜드의 접근을 중심으로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 스코틀랜드 학교의 돌봄정책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euk,

> > 지정토론 / 질의응답 Discussion / Q&A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Tae Wook Ha Professor, Asia LIFE University
이경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Kyoung Won Lee Teacher, Jinbu High School

◆ 제3세션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

조기 학업중단 예방: 스코틀랜드의 접근을 중심으로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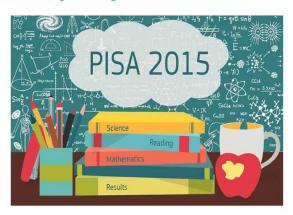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Reducing Early School Leaving: the Scottish approach

Nick Morgan



PISA, context, policy and culture



Context: Scotland



5.4 million population

Scottish Government

32 Local Authorities

2,524 Schools

51,500 Teachers

685,000 Learners

Agencies

Structure of the Scottish education system

Age 3-5 pre-school – Not Compulsory

Compulsory

Age 5-12 primary Age 12-16 secondary

** around 12% of young people leave school at 16

Post compulsory

Age 16 -17/18 secondary Age 17/18 to 21/22 Higher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pprenticeships, Employment, etc

OECD report

"Improving Schools in Scotland: an OECD perspective" (2015) http://www.oecd.org/edu/school/improving-schools-in-scotland.htm

- Recognised some key positive developments in Scottish education
- Identified particular challenges to be addressed:
 - Equity
 - Performance data
 - Mathematics
 - Leadership in the middle

OECD report - Inclusion

described Scottish Education as 'highly inclusive' with reference to

- high level of mix / social backgrounds
- high attainment of immigrant pupils, when compared globally
- upward trend in positive destinations for school leavers



Policy and Practice: Universal and Targeted

- Some measures which will impact on the learning of all young people
- Some measures that target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and individuals

Example: 'Looked-after Children': guidance, extra resources, etc

- But modest improvement in educational outcomes

1. GIRFEC and Inclusion

A national approach to improving outcomes and supporting the wellbeing of all young people, by offering the right help at the right time from the right people

- Scottish Government support
- · Al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Multi-agency approach
- Early Intervention







The Girfec principles

is child-focused

It ensures the young person – and their family – is at the centre of decision-making and the support available to them.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wellbeing of a child

It looks at a child or young person's overall wellbeing, so that the right support can be offered at the right time.

is based on tackling needs ea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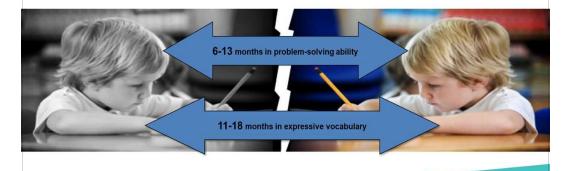
It aims to ensure needs are identified as early as possible to avoid bigger concerns or problems developing.

requires joined-up working (multi-agency partnership)

It is about children, young people, parents, and the services they need working together in a coordinated way

2. Poverty and Social depri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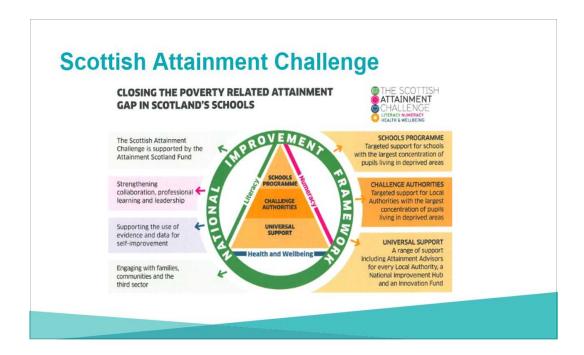
In Scotland today, at **age 5**, the gap between children from the **most advantaged** and **most disadvantaged** families is already:



Early Years

Expansion of free government-funded provision of Early Learning and Childcare

- More hours (full-time)
- · More flexible
- More children
- · Better-trained staff



Pupil Equity Funding

Additional funding allocated directly to Schools, and targeted at closing the poverty-related attainment gap

National guidance for Headteachers, to help them plan how they will invest this funding and evaluate its impact

Almost all schools



3. School and Relationships

The importance of adults who care and support – not only Teachers!

A foundation for build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change and engage in learning, to mitigate against negative experiences

Developing a whole-school ethos and culture; learning environments that are safe, nurturing, supportive, respectful and productive;

Young people raising their aspirations

** School Inspection scrutiny - check on learning, teaching, and wellbeing

Teachers

Teachers increasing their expectations of the pupils

Professional knowledge:

- All teachers: Understanding of child development, including issues around attachmen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rauma
- Specialist teachers: Pupil Support
- Access to external specialist expertise (counsellors, NGOs, etc)

Behaviour - Bullying

School culture and ethos - promoting positive behaviour and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

"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 (2013)

Behaviour support and interventions from Pupil Support staff Restorative Justice approaches

Recording Incidents and how they are dealt with



Attendance and absence

Promote and improve attendance

- Reduce barriers to being at school
- Challenge truancy
-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

Reduce school use of 'exclusions'

Work with Parents and Families

National guidance and support for Parental engagement and involvement

- National Parent Forum for Scotland
- Parent Councils
- 'Engaging Parents and Families' toolkit

Family liaison and support - local programmes

'Read Write Count'



4. Curriculum for Excellence

The reform aspirations were to:

- Improve educational outcomes (attainment) for all young people
- · Close the attainment gap between high and low achieving students
- Relevant curriculum offering greater choice and alternatives
- · Skills for life, for learning and for work

Alternative Qualifications and Opportunities

Examples:

Duke of Edinburgh Awards

Saltire Awards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Youth Employment Strategy

Employability skills

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 – new National Standards and Inspections

'Career pathways'

Pupil Profiling, recognising and documenting achievements (online system)



5. Data and Performance

- · Making use of government data about communities and families
- Tracking and monitoring pupils, leading to appropriate interventions
- 'Positive and Sustained Destinations' data required from schools by government
- 'Insight' and 'Primary benchmarking too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uccesses

GIRFEC as a Responsibility of all teachers and all staff

Increased parental involvement and family liaison

Improved collaboration between agencies and organisations

Wider opportunities in some secondaries

Reduction in Early School Leaving (17% in 2009, 12% in 2017) Reduction in Youth Unemployment (15% to 9%)

Challenges

Budget cuts

- Reduction in Support staff; Educational Psychologists, classroom assistants, etc
- National shortages of Teachers (limiting subject choice for qualifications)
- Professional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aff

Hard-to-reach families

Nick Morgan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Nick has worked for Education Scotland and other government-funded agencies for nearly 20 years, moving through a range of posts, and is now on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officers at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 is Scotlish Government's principal agency for education sector improvement, quality assurance and support.

Nick takes a lead role in promoting an international dimension within the Scottish school education system,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organisations, schools and practitioners in other countries. This frequently involves hosting and presenting to groups of educators undertaking study visits and research

into aspects of Scottis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He also works with agencies such as British Council to encourage Scots to share expertise, learn from professionals in the education systems of other nations, and form partnerships to progress practice and improvement.

His curricular responsibilities are focused around Citizenship, History and Politics, part of national support for teacher practitioner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education practitioners and managers is a key part of the work: supporting learning opportunities through national programmes, contributing to local and themed programmes, and presenting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Before joining government agencies, Nick worked in teaching and management posts in Higher Education and in Scottish Further Education vocational colleges.

Contact:

Nicholas.morgan@educationscotland.gsi.gov.uk



조기 학업중단 예방: 스코틀랜드의 접근을 중심으로

Nick Mor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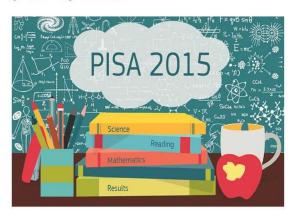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조기 학업중단예방: 스코틀랜드의 접근을 중심으로

Nick Morgan



PISA, 문맥, 정책, 문화



스코틀랜드



540만명 인구

스코틀랜드 정부

32개 지자체

2,524개 학교

51,500명 교사

685,000명 학생

기관

스코틀랜드 교육 시스템 구조

3-5세 미취학 교육 - 비의무

의무

5-12세 초등 교육

12-16세 중등 교육

** 청소년의 12% 정도가 16세에 학업을 중단

의무교육 이후

16-17/18세 중등 교육

Age 17/18세~ 21/22세 고등교육, 직업교육, 견습, 취업, 등

OECD 보고서

"스코틀랜드의 학교 개선 : OECD의 관점" (2015) http://www.oecd.org/edu/school/improving-schools-in-scotland.htm

- 스코틀랜드 교육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긍정적 발전 인지
- 해결해야 할 특정 과제 제시:
 - 평등
 - 성과 자료
 - 수학
 - 중간 리더쉽

OECD 보고서 - 포용

다음을 참고하여 스코틀랜드 교육을

- '매우 포용적'이라고 언급
- 다양한 사회 계층 포함
- 타국가 대비 이민자 학생들의 높은 성과
-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졸업생들의 진로이동 경향



정책과 실천: 보편적 & 집중적

- 모든 청소년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방안
- •특히 취약 집단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방안

예: '돌봄받는 아동': 안내, 추가 재원 등

- 그러나 교육 성과의 미미한 향상

1. GIRFEC 및 포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접근법

- 스코틀랜드 정부 지원
- 모든 어린이, 가족
- 다중 기관 접근법
- 조기 개입







GIRFEC 원칙

아동 중심적

아이와 가족이 의사 결정과 가용한 지원의 중심에 있도록 보장

아동의 웰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함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웰빙상태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

조기 요구 해결을 기반

더 큰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필요사항을 인지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표

협력(다양한 기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함

아동, 청소년, 부모, 또한 필요한 서비스 등이 조화로운 방식으로 협력

2. 빈곤 및 사회적 궁핍

스코틀랜드에서는 현재 **5세** 아이 기준으로 **가장 혜택 받은** 가정과 **가장 불우한** 가정의 차이가 이미 다음과 같음



조기교육

조기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 더 많은 시간 (풀타임)
- 더 유연한
- 더 많은 아이들
- 더 잘 훈련된 직원



학생 평등 예산

빈곤 관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배정됨

교장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적 지침

거의 모든 학교에 지원됨



3. 학교 및 관계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해주는 어른들의 중요성-교사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 강화, 변화에 대한 대처 및 학습 참여 능력, 부정적 경험 완화 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

학교의 정신 및 문화 개발; 안전하고, 돌봄적이고, 지지적이며, 존중적인 생산적인 학습 환경:

청소년의 열정 고취

** 정밀한 학교 감사 - 학습, 수업, 복지에 대한 확인

교사

학생의 기대치를 높이는 교사

전문 지식:

- 모든 교사: 애착 관련 문제, '부정적 유년시절 경험, '트라우마 등을 포함한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 전문 교사: 학생 지원
- 외부 전문가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 (상담사, NGO 등)

행동 - 학교 폭력

학교 문화와 정신 – 긍정적 행동을 장려 '모든 아이를 위한 바로 세움'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학습, 더 나은 행동" (2013)

학생 지원 직원의 행동적인 지원 및 개입 회복적 공정성 접근 방식

사건 및 사건 해결 방법 기록



출석 및 결석

출석 장려 및 개선

- 학교 출석을 방해하는 장애물 줄이기
- 무단 결석 해결
- '교육 유지 충당금'

학교에서 '퇴학' 처분 줄이기

부모와 가족 동반 프로그램

학부모 참여를 위한 국가적 지침 및 지원

-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부모 포럼
- 학부모 협의회
- '부모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가족 연결 및 지원 - 지역 프로그램

'읽고, 쓰고, 세기'



4. 수월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혁 목적:

- 모든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성과 (성취) 향상
- 고성취, 저성취 학생의 성취 간극 줄이기
- 더 많은 선택과 대안을 제공하는 관련 교과과정
- 인생, 학습, 업무를 위한 기술

대체 자격요건 및 기회

예시:

Duke of Edinburgh Awards

Saltire Awards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젊은 노동인구 개발

청소년 고용 전략

고용 기술

채용 조언 및 업무 경험 -새로운 국가 기준 및 감사

'경력 경로'

학생 프로파일링, 인지 및 문서화에 대한 성과 (온라인 시스템)



5. 데이터 및 성과

- •지역 사회 및 가족에 관한 정부 데이터 활용
- 적절한 개입을 유도하는 학생 추적 및 모니터링
- 정부가 학교로부터 수집한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에 대한 데이터
- '통찰력' 및 '주요 벤치마킹 툴' (관리 정보 시스템)

성공 사례

모든 교사와 직원의 책임으로써의 GIRFEC

부모의 개입과 가족 연계의 증가

기관과 조직 간의 협력 향상

중등 교육에서의 폭 넓은 기회

조기 학업 중단 감소 (2009년 17%, 2017년 12%) 청소년 실업 감소 (15% → 9%)

도전과제

예산 삭감

- 지원 인력 감축; 교육 심리학자, 보조교사 등
- 국가적으로 교사 부족 (자격 요건의 과목 선택 제한)
- 직원을 위한 전문학습 기회

접근이 어려운 가족

Nick Morgan National Development Officer, Education Scotland

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으며 현재는 스코틀랜드 교육청의 국가 개발 담당자다. 스코틀랜드 교육청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교육 부문 개선, 품질 보증 및 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스코틀랜드 학교들과 함께, 다른 국가의 조직, 학교 및 실무자와 협력하여 국제적 협력 도모를 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여 스코틀랜드 교육 정책 및 실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교육자 그룹을 응대하고 스코틀랜드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문화원 같은 기관과도 협력하여 이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의 교육 시스템 전문가들로부터 배워,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전국교원지원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지는 담당교과는 시민권, 역사, 정치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기회 지원, 지역 및 특정 주제 프로그램 지원, 국내 및 국제회의에서의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 담당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전문영역개발지원은 닉의 핵심 업무다.

정부 기관에 합류하기 전에는 고등 교육 및 스코틀랜드 직업 교육전문대학에서 학생 지도 및 관리직을 수행했다. 이메일 주소:

Nicholas.morgan@educationscotland.gsi.gov.uk

◆ 제3세션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

스코틀랜드 학교의 돌봄정책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euk,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urtureuk,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ing Approaches in Scottish Schools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Scotland)



Our Mission





Nurtureuk is dedicated to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removing barriers to learning by promoting nurture in education.



Nurture Group Aim

To provide a carefully routined session, where there is a balance of learning and teaching, affection and structure within a home-like atmosphere.





Soft seating











Kitchen and eating areas:















Children's learning is understood developmentally

- Approaches match pupil's emotional development
- An understanding that social and emotional levels develop at different rates





The importance of transitions in children's lives

- Transitions at all levels should be supported by including the pupil in arrangements
- Information is shared at key transition points
- Smaller transitions can be significant for pupils



Nurture Group Principles



All behaviour is communication

- Thoughts and feelings influence behaviour
- Often outward behaviour is the "tip of the iceberg"
- Pupils need support to understand and express their emotions appropriately
- Adults need to be calm and consistent
- Importance of clear and consistent boundaries



The classroom offers a safe base

- Consistent, calm adults
- Organised structure and routines
- A sense of community and belonging within the class/group



Nurture Group Principles



The importance of nurture for the development of wellbeing

- Developing the capacity to cope with challenges in life
- Developing self confidence and self efficacy
- The ability to value others social wellbeing





Language is a vital means of communication

- Pupils are taught the language of emotions and feelings
- Staff have an understanding of stages of language development
- Pupil voice is valued
- Opportunities for pupils, parents and staff to express views



Typical Session: Primary



9.00-9:15: Collect from class

9.15-9.45: Welcome - emotions check in

9.45-10.15: Group1: Activity/ play based work/snack

preparation

10.15-10.45: Snack and clearing up

11.00- 11.15: Whole Group activity

11.15 - 11.45: Activity 2

11.45 -12:00: Whole group closing emotions check in

12:00: Return to class

Typical Session: Secondary



50 - 60 minute session

Welcome: snack and emotions check in

Group activity: focus could be wellbeing/resilience/social skills

Closing: discussion /emotions check in



Assessment and Planning:



The Boxall Profile Online

Measures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Supports planning and evidencing impact.





Whole school Approaches:





Some schools are now embedding the nurture principles across all learning and social spaces



Nurture Pyramid



Nurture groups +

For the most damaged/vulnerable children & young people Attachment interventions and therapies

Nurture groups

For children & young people with significant social, emotional, behavioural and/or mental health needs

Boxall Nurture Group® (classic)

Other nurturing structures

Where nurture groups are not feasible or needs are sub-threshold

Nurture ABC™, Mindfulness, After-school clubs, non-classic nurture groups

National Nurturing Schools Programme

Nurturing approaches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Boxall Profile assessment for all children, Six principles embedded

Boxall Profile assessment for all children in all schools

Early identification of potential social, emotional, behavioural and/or mental health issues School, Local Authority, Government prioritisation based on need

Adapted from McKay, T. (2015) Future Directions in Nurtur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ture in Education, 1:33-38

Evidence of Impact: U



Mackay, T; Reynolds, S and Kearney, M. (2010). From Attachment to attainment: The impact of nurture groups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 (3)

Reynolds, S; Mackay, T and Kearney, M. (2009). Nurture Groups: a large scale controlled study of effect on development and academic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ume 36 (4)





Stay in touch





@nurtureuktweets



Page - /nurtureuk Group - /nurtureuk



/nurtureuk

www.nurtureuk.org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euk

Kirsten joined nurtureuk in 2015 as the National Training Officer for Scotland. As an experienced Primary teacher with a background in support for learning she has taught in a range of settings, has set up and ran nurture groups, was a school based dyslexia adviser and, just prior to joining nurtureuk, was Principal Teacher of a Language and Communication Resource. Kirsten mentored newly qualified teachers for many years and recently completed a Master's in Education in Supporting Teacher Learning. Kirsten believes nurturing approaches should be adopted in every school as they are vital in supporting the wellbeing of all young people.



스코틀랜드 학교의 돌봄정책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euk



스코틀랜드학교의 돌봄정책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Scotland)



목표





Nurtureuk는 교육에 있어 돌봄의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고, 학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돌봄그룹의 목표

가정같은 분위기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 애정과 통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세밀하게 계획된 시간을 제공하는 것.





편안한 자리











부엌과 식당















아동의 배움은 발달적으로 이루어진다.

- 학생의 정<mark>서적인 발</mark>달단계에 맞는 접<mark>근</mark>
- 학생들의 사<mark>회적, 정</mark>서적 발달 수준이 제각기 다름에 대한 이해





아동의 생애전환기의 중요성

- 학령기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생애전환기는 지원받아야 함.
- 중요한 전환지<mark>점의 정보</mark>들은 공유됨.
- 학생들에게는 작은 전환도 중요할 수 있음.



돌봄그룹의 원칙들



모든 행동은 소통이다

- 생각과 감정들은 행동에 영향을 끼침
- 자주 밖으로 표<mark>출되는</mark> 행동은 학생을 표<mark>현하는 "빙산의 일각"</mark>.
-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지원이 필요함.
- 성인은 차분하고 일관되어야 함.
- 명확하고 일관된 경<mark>계선의 중요성.</mark>





교실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한다

- 일관되고 차분한 성인
- 조직적 구조 및 일과
- 공동체의식과 교실/그룹에 대한 소속감



돌봄그룹의 원칙들



웰빙발전을 위한 돌봄의 중요성

- 인생의 도전을 다루는 능력을 개발하기
- 자신감, 자존감 개발하기
- 타인의 가치를 <mark>인정할 수</mark> 있는 능력 사회적인 웰빙





언어는 핵심적인 소통수단이다

- 학생들은 정서, 감정의 언어를 배움
- 교사는 언어의 개발단계를 이해해야 함
- 학생의 목소리는 존중 받음
- 학생, 학부모, 직원들의 의견을 표현할 <mark>기회</mark>



기본 일과: 초등



9.00-9:15: 본래 학급으로부터 소집

9.15-9.45: 환영 – 감정 점검

9.45-10.15: 1단체: 활동/ 놀이 기반 수업 / 간식 준비

10.15-10.45: 간식 및 정리

11.00- 11.15: 전체 집단 활동

11.15 - 11.45: 활동2

1<mark>1.45</mark> -12:00: 감정 <mark>점검으로 전체 마무리</mark>

12:00: 교실로 돌아가기



기본 일정: 중등



50 - 60 분

환영: 간식 및 감정 점검

집단 활동: 학생들의 웰빙, 회복탄력성, <mark>사회적기술에 집중</mark>

마무리 : 토론 혹은 감정 점검



평가 및 계획:



Boxall 프로필 온라인

사회적, 정서적인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계획에 대한 지원 및 영향력 측정.





학교전체적인 접근 방식





몇몇 학교들은 현재 모든 학습 및 사회적 활동 공간에 돌봄 원칙을 포함시키고 있음.



돌봄(Nurture) 피라미드



Nurture groups +

For the most damaget/nuferable childre is young people
Attachment interventions and therapies

Nurture groups

For children & young people with taggling to the property to

Other nurturing structures

Where nurture groups are not feable or needs are sub-thresh
Nurture ABC™, Mindfulness, After-school clubs, non-classic

National Nurturing Schools Programme
Nurturing approaches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Boxall Profile assessment for all children, Six principles

Boxall Profile assessment for all children in all sc Larly identification of potential social, emotional, behavioural and/or mental i School, Local Authority, Government prioritisation based

*돌봄 그룹+

대부분의 상처 입은/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애착적인 개입과 치료**

*돌봄 그룹

상당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혹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Boxall 돌봄 단체 (기본)

*다른 돌봄 구조

돌봄 그룹이 실현가능 하지 않은 곳이나 도움에 대한 필요가 긴급하지 않은 곳

돌봄 ABC™, 마음챙김, 방과후 클럽, 여타 돌봄 그룹

*국립 돌봄 학교 프로그램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돌봄정책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Boxall 프로필 평가, 6가지 원칙 내재됨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Boxall 프로필 평가 잠재적인 사회적 , 정서적, 행동적,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초기 식별 학교, 지방당국, 필요에 기반한 정부의 우선사업

McKay, T. (2015) Future Directions in Nurtur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ture in Education*, 1:33-38

근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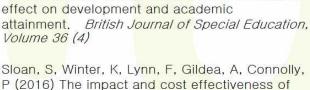
Mackay, T; Reynolds, S and Kearney, M. (2010). From Attachment to attainment: The impact of nurture groups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 (3)

effect on development and academic

Nurture Groups in Primary Schools in Northern Ireland, Belfast Centre for Evidence and Social

Innovation: Queens University Belfast.

Reynolds, S; Mackay, T and Kearney, M. (2009). Nurture Groups: a large scale controlled study of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ume 36 (4)





연락처





@nurtureuktweets



Page - /nurtureuk Group - /nurtureuk



/nurtureuk

www.nurtureuk.org

Kirsten Mann National Training Officer, Nurtureuk

커스틴은 스코틀랜드의 국가 교육 담당자 (National Training Officer)로 2015 년 Nurtureuk에 합류했다. 학습 지원에 대한 배경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초등 교시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돌봄그룹(Nurture Group)을 구성하고 운영했으며, 교내 난독증 학생 전담 상담사였다. Nurture UK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특수학교인 Language and Communication Resource의 교장직을 맡았다. 수년간 신입 교사를 멘토링했으며 최근에는 교사학습지원에 대한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봄정책(Nurturing Approaches)은 모든 학교에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 제3세션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의 실제 ◆

지정토론 / 질의응답

Discussion / Q&A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Tae Wook Ha Professor, Asia LIFE University 이경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Kyoung Won Lee Teacher, Jinbu High School

지정토론 - '학교'복귀가 아닌 '배움'으로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 태 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1. '학업중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자.

한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 근의 일이다. 2010년대 초 이 문제가 한 언론을 통해 특집으로 보도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 는 청소년들의 일탈적 모습이 민낯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2013년 8월8일자 신문 1면에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 28만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매년 학령기 인구의 1%에 해당되는 7만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그 중 행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 는 학생들의 누적 숫자를 확인하면 28만명으로 학령기 총인구의 4%가 사라졌음을 지적한바 있다. 학교로부터는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학교밖으로 부터는 학령기에 있다는 이유 로 소외당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면서 사회적인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 터도 설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논의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상적 문제 에 집중하면서 '학업중단'의 위험적 요소에만 집중했을 뿐 그 원인이 무엇이며 왜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 다보니 학교를 그만두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인 학교 체제와 문화에 대한 고민 없이 학생들 을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학업중단예방사업), 이미 나와있는 학생들은 학교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학교복귀지원) 취지의 정책들이 펼쳐져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역시 학교 취학 여부와 별개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진일 보한 입법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9조 교육지원 항목은 공교육 시스템으로 돌아 가는 것만을 규정한다. 물론 4항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성과 실천성에는 의문이 든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배움의 힘(學力)' 보다는 '학교다닌 이력(學歷)'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왔었기 때문이다. 학력주의 사회, 해외에서도 'Diploma Society'라는 표현으로 유명해

진(혹은 악명높아진) 한국의 교육상황은 여러 가지 '비교육적 교육현실'이라는 형용모순을 나 았으며1990년대 말 부터는 '학교붕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학교붕괴의 시대, 무너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응크리거나 탈출하는 것은 본능적이면서도 매우 체계적인 대응이다. 그러니 웅크리고 있지 못하게 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옭아매어 심리적·물리적 충격을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방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교육가인 나일(A. S. Neill, 1883~1973)은 '아이들을 배움의 본성을 타고났다 (Children are Natural Learners)'는 철학을 바탕으로 써머힐학교(Summerhill School)'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자유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학교는 이제 100년 가까운 교육실천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학교가 자연스러운 배움의 본성을 지원하기 보다는 억압하는 공간으로서 학업중단위기를 양산해왔다는 자기성찰 없이 학교밖 청소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Nick Morgan선생님의 발제자료를 보면서 스코틀랜드의 교육이 단순히 학업성취도만을 강조하기 보다 공평성(Equity)과 중간으로부터의 리더십(Leadership in the middle)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음에 매우 반가웠다. 스코틀랜드 교육에 대한 OECD의 보고서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높은 포용정책 속에서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특히 가정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배움의 길로 포용시키는 정책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잉글 랜드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비극적이었던 아동학대 살해로 영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던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의 경우 사건조사 결과 발표된 보고서에서 학교와 사회복지담 당, 병원 등에서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 와 행정적 칸막이로 그 기회를 놓쳤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역시 잉글랜드의 사례이지만 왜 정 책적 관심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학업중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 엇인가에 대해 닉 데이비스의 School Report('위기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번역되 었음)라는 책은 이 것이 단순히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중심(Child-Focused)적 측면에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에 기반(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wellbeing of a child)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협 력적으로(multi-agency partnership joined-up working) 조기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based on tackling needs early)하겠다는 기본원칙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하겠다.

Nurture Group 역시 따뜻한 공간과 공동체적 분위기로 어린이·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

이 학생의 특징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학생들의 행동은 단순히 현상적인 측면에서 대응되기 보다는 그 깊은 심리사회적 이 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된다. 이는 학업부적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학업숙려제나 대안교실이 안정적인 교육적 기반(Base)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반 조건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학업숙려제나 대안교실을 단순히 문제에 대한 제거 및 수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학교 전체가 이 문제를 교육적 과제로 삼고 포용적인 태도를 통하여 전학교적 대응방안(Whole School Apporaches)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인다. 다만 스코틀랜드의 경우 이를 위한 담당 교사 및 전체 교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전 교원들의 인식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궁금함을 남기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학력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 석사 런던대학교 IOE 교육사회학 석사 런던대학교 KCL 교육사회학 박사 수료

경략

런던대학교 SOAS, 서강대학교 강사 성공회대학교,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대안교육, 혁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각종 위원, 자문, 연구 및 강연

저서 남들처럼 육이하지 않습니다(공저) 고마워, 내 아이가 되어줘서(공저) 마을육아(공저) 교사, 대안의 길을 묻다(공저)



Discussion - To Guarantee Return to 'Learning' Rather than Return to 'School'

Tae Wook Ha Professor, Asia LIFE University

1. Think Again about the Meaning of "School Drop-out"

There has been recent and earnest interest in 'out-of-school teens' in South Korea. As this issue was featured in a press release in the early 2010s, deviant appearance of the youth who do not attend school was revealed to the public. (Chosun Ilbo) had an exciting title named '280,000 teens gone out of school' on the front page of the newspaper on August 8, 2013. The newspaper pointed out that about 70,000 people, or 1 percent of the school-age population, drop out of school each year and 4 percent of the total school-age population had disappeared from the educational scene as the cumulative number of the students whose whereabouts are not known exactly was confirmed as 280,000. It was a story about juveniles who were alienated from the school because they were out of school during their school-age perio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OUT-OF-SCHOOL TEENS' in 2015, the legal basis for social support has established and 'out-of-school teens' support centres have also emerged nationwide. Unfortunately, as many discussions focused on the phenomenal problems of 'out-of-school juveniles,' the discussions have focused only on the risk factors of 'academic drop-outs'. Meanwhile, it seems in-depth discussion on what the causes are and why juveniles drop out of school has not been carried out sufficiently. Thus, policy that prevents students from being out of school without a concern on school system and culture, which is the fundamental problem of drop-outs (Academic suspension prevention project), or policy that aims to return the out-of-school teens to school (Return to school support) has been implemented. Although the 'ACT ON THE SUPPORT FOR OUT-OF-SCHOOL TEENS' also has an advanced legislative value in terms of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juveniles apart from school attendance, education support clause of Article 9 only specifies their return 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Of course, it is possible to support the 'additional matters required for educational support of out-of-school juveniles' according to Subparagraph 4. However, its concreteness and practicality are questionable.

This is because our society has focused on 'school background(學歷)' rather than 'power of learning (學力)'. The educational situation in South Korea, which has become famous (or infamous) as 'Diploma Society' overseas, brought various contradictions called uninstructive educational reality' and became a stigma of 'school collapse' from the late 1990s. In times of school collapse, crouching or escaping to cope with falling is an instinctive and very systematic respo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whether it is correct prescription to give a psychological and physical shock to the person not to be crouching or to be able to escape. A famous Scottish educator, A. S. Neill (1883~1973) ' established 'Summerhill School' based on the philosophy that 'Children are Natural Learners.' Based on freedom and spontaneity, this school now has a history of nearly 100 years of educational practice. It is unlikely to discover a clue to the problem on out-of-school juveniles without self-reflection that the school has produced a crisis of academic suspension as a repressive space rather than supporting the nature of natural learning.

2. Implications for Korean Education through the Case of Scotland

Looking at Mr. Nick Morgan's presentation, I was very pleased that Scottish education focuses on equity and leadership in the middle rather than merely emphasizing academic achievement. The OECD report on Scottish education shows that students with diverse social backgrounds graduate with positive goals in high inclusion policy.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is, there was a policy of embracing students with disadvantaged backgrounds towards the way of learning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Although it is an example of England, the study report of a case of Victoria Climbie in 2000, which had a huge impact on the whole of England due to tragic child abuse, emphasized that despite many opportunities to help the child in school, social work, and hospitals, the bureaucracy and administrative divisions had missed

the opportunity. Although this is also an example of England, a book titled School Report written by Nick Davis who examined the reason why schools continue to have academic suspension despite the policy attention and budget input (It is translated into Korean under the title of "School in Crisis") tells us that this is not just a physical matter but a matter of perspective. In that respect, the basic principle that various subjects will solved the problem by tackling needs early through multi-agency partnership joined-up working on the basis of an understanding of the wellbeing of a child from a child-focused perspective gives us a significant implication.

Nurture Group also seeks to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opportunity of learning and growth can be reliably supplied for children and juveniles in a warm and communicative atmosphere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r background of the students. Students' behaviour is regarded as not simply a phenomenal response, but an opportunity to be continuously provided with deep psychosocial understanding. This approach provides many implications for the conditions that we have to make in order for academic deliberation system or alternative classroom designed to respond to academic maladjustment to function as a stable educational base. It seem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Whole School Approaches through the inclusive attitude of the school, which adapts the problem as an educational task, rather than simply approaching the academic deliberation system or alternative classroom in terms of elimination and acceptance of the problem. However, I want to conclude the discussion with a question of how the teachers for this work were empowered and how all teachers' reconsideration was carried out in case of Scotland.

Tae Wook Ha Professor, Asia LIFE University

Education

Maste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in IOE Educational Sociology, University of London Completion of Ph.D. in KCL Sociology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Work Experience

University of London SOAS, Lecturer at Sogang University Sungkonghoe University, Hanshi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Alternative education, innovation education, member of committee relating to village education community, consultation, research and lecture

Books

I do not raise children like everyone else (co-author) Thank you for being my child (co-author) Village child care (co-author) Teacher, asking for alternative ways (co-author)



지정토론 - 학교변화를 통한 학업중단예방

이 경 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학생의 정서적인 발달 단계에 맞는 접근과 생애 전환기는 지지되어야 한다는 스코틀랜드 돌봄그룹의 생각이 고맙다. 그리고 아이를 중심에 두고 행복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의 지원하겠다는 GIRFEC의 원칙과 스코틀랜드 정부의 지원이 부럽다.

우리학교는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문제풀이, 입시, 특강, 소논문쓰기, 보충수업과 심화수업, 야간 및 주말자율학습으로 진행되며 소수 학생의 입시대박을 위해 애쓰는 학교였다. 2015년 겨울, 작았지만 의미 있는 주제로 토의를 거쳐 2016년 도전을 시작한다.

첫 번째 도전은 학생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식시간을 2시간 늘려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대안에 두려움과 질문이 토론을 매웠다. 결론은 "그냥 두자!"였다. 가장 안전(신체적, 물리적)한 공간인 학교에서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두기로 하였다. 잠자고 싶은 아이는 잠을 청하고, 늘 잠만 자던 아이는 스스로 깰 때까지 기다리자. 운동, 노래, 공부, 독서, 게임 학교의 공간을 개방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실천 할 수 있는 시간, 변덕스런 마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일주일에 단 한번 수요일 2시간의 중식시간이 주는 변화는 크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 학교라는 단어에 교도소와 억압을 떠올리던 아이들이 학교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여긴다.

두 번째 도전은 교사와 학생의 친밀과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2시간의 자유시간에 아이들은 교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 교사들은 교무실을 열었다.

여전히 딱딱한 사무공간이긴 하지만 푹신한 소파를 놓고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을 꾸려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무실을 왕래할 수 있게 했다. 교사는 찾아오는 아이에게 관심과 미소로 교무실의 위압감을 걷어내고 아이들에게 안전(심리적)한 공간으로 교무실을 만들어주었다.

작은 도전이었지만 심리적·신체적 안전감과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질 문과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늘 해오던 학교 일상에 의문을 던지고 자신들의 공간과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갔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교실공간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꾸더니 학생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체육대회, 과학의 달 행사, 축제, 졸업식 등을 만들어 간다. 이제는 지역사회를 끌어안는 오픈스쿨까지 시작했다. 일과 중 휴식 시간 버스킹과 스포츠리그 등 학생주도의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학교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봤다. 내친김에 학교는 일주일에 수요일 2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 20분의 자유시간(소통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에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중심문화, 학생중심 수업을 이끌어 가고자 토론하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다양한 모범 수 업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학교에서 기존과 다른 시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배움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전할 때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안전은 스스로 표현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허용된다고 느껴질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실패해도 낙인 되는 것이 아닌 지지받고 격려 받음을 느낄 수 있을 때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어떻게 이끌어가고 무엇을 시킬까?'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충분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발달단계가 서로 다르고 고유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라는 한 공간에 존재한다. 이아이들을 공통된 한 가지 대안만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아이들의 자율성, 자유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맡기자. 스스로 삶을 자신만의 속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자.

일주일에 단 한 번 2시간의 중식시간. 오전 20분의 자유시간이란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이들은 밝다. 표정에 행복이 묻어나고 일탈과 낯선 행동의 아이는 순해진다. 고민을 이야기한다. 교사와 소통이 시작된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표현의 기회, 어른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릴 수 있는 여유'인 것이다. 4년 전 지역의 똥통학교(학생과 학부모의표현)로 인식되던 학교는 현재 전국단위의 혁신학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언론사의취재로 이어지며 주목받는 학교로 변모했다.

물론 그럼에도 걸리는 상처가 있다.

첫째는 예방보다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이다. 최근 느끼는 어려움은 '치료'에 있어서 오는 학교와 교사의 무력감이다. 여기서의 치료는 '심리적'문제다.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약물을 제공할 수 없다. 교사의 진심어린 치료권유(치료비 지원을 포함한)에도 움직이지 않는 학부모의 무관심과 이로 인해 또 다시 상처를 받는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마음은 애석하기만 하다. 적극적 제안 외에는 약물치료를 지원할 방법이 없는, 권한은 없고 도덕적 책무감만 큰 교사에게 학생 치료는 몹시 큰 숙제가 되어가고 있다.

둘째는 최대 지원자 교사의 소진이다. 교사는 아이의 표현을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다. 수업준비와 같은 고유 업무 외에 밀려드는 각종 행정처리, 시시각각 변하는 아이들 요구에 교사들은 모두 다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죄책감과 무능력을 느끼게 된다. 우리학교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헌신을 담보로 학업중단 예방을 지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 인권보장, 여유 시간 확보 등 교사 소진을 예방•치유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경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촌 샘의 스팸문자 2

학력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괴학교육과 학사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석사 저서 촌 샘의 스팸문자



Discussion - Prevention of School Dropout through School Change

Kyoung Won Lee Teacher, Jinbu High School

I appreciate the thought of Scotland nurture group that approach and life transition, which is appropriate to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students, are to be supported. I envy Scotland government's support and the principle of GIRFEC that they will put children on the center, figure out happiness, and support the children in the right place.

Like other general high schools of humanities, my school was a school which had problem-solving, entrance examination, special lecture, writing a short essay, supplementary class and profound class, and night and weekend independent class. Also, it was a school which strived to send a small number of students to universities. In winter 2015, we had a small but meaningful discussion. We discussed and started a challenge in 2016.

First challenge was to make students breathe freely. We decided to extend lunchtime into 2 hours. How can we manage it? With what programs, what will we provide? The discussion was filled with fear and questions, because we had never tried an alternative before. The conclusion was "Just leave them." We decided to provide time to let students know themselves at the safest physical place, school. We let sleepy students sleep and let us wait until they wake up on their own. It meant that we could make time an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hoose what they want and practice it by opening school space for exercise, song, study, book reading, and game.

Two hour lunchtime every Wednesday once a week makes a big change. Above all, their faces are bright. They used to remind themselves of prison and oppression out of the word, school. Now, they consider school as their playground. Second challenge was to solidify the closeness and trust between teacher and student. During two hour free time, they wanted to meet teachers. Teachers opened the teachers' room.

It is still a hard office space but we put soft sofa and provided a warm tea so that they could freely come to the place. With interest and smile to students, teachers removed the overpower of the office. They made the office space a psychologically safe space for students.

It was a small challenge but it made it possible for students to make many questions and challenges due to 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 and free atmosphere. They began to make their own space and culture, doubting usual school routines. Students changed their class space with their ideas. They make an athletic meeting, event of science month, festival, and commencement ceremony. Now they start open school which embraces local society. During break time in daily routines, events, such as busking and sport league, which are led by students, are taking place. "A culture which students makes and become centered in" is made.

The school saw a possibility of students. To make it better, the school made not only two hours every Wednesday but also 20 minute free time (communication time) every morning. Faced with continuing new challenges, teachers are still discussing in order to have students-centered culture, students-centered class and share the cases of various students-centered model class.

It is simply why the school attempts to do a different try. It experienced directly that learning takes place under the condi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afety. Isn't safety in school a feeling which they feel, when they are allowed to express by themselves and challenge? Is it the feeling that they are accepted as they are in the safe place, school, that is to say, when they fail, they are not labeled as failure but supported and encouraged?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we do not ask "How do we lead them? What do we ask them to do?" Instead, the school becomes a solid supporter. We became gradually convinced that it is an active and sufficient method to give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an stand by themselves."

Students, who hav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and unique characters, exist in the same space, school. What is a method by which they grow only with a common alternative? If I am asked to choose only one, I would say that it is autonomy of students, freedom. Let us leave things to students. Let us provide safe time and space so that they can choose their own life according to their own speed.

The small change, two hour lunch time once a week and 20 minute free time in the morning, has made students bright. Their faces have happiness. Students, who had deviation and strange behaviors, become mild. They talk about their worries. Communication with teachers starts. For preventing study suspension, "What students need is an opportunity of expression and what adults need is patience." The school, which was considered as a manure tub (the expression of students and parents) four years ago, now has the continuing visitation of nationwide renovation schools. It has the coverage of various news agencies. It has changed into a school which gets attention.

Nevertheless, there is a scar.

First, there is a student who needs "cure" immediately rather than prevention. A difficulty which I feel recently is the helplessness of school and teachers which comes from "cure." The cure here is a "psychological" problem. School cannot provide medication to a student who needs a psychiatric treatment. A teacher feels sorry to see the student hurt due to the indifference of the parents in spite of the suggestion of the teaching, including medical expense. There is only active suggestion without medical treatment and authority. It is a big task to the teacher who has a significant moral responsibility.

Second, it is burnout of a teacher who is the biggest supporter. The teacher waits for the expression of a student. Yet, the waiting is not easy. The teachers feel guilty and helpless, because they have not only unique duties, such as class preparation, but also various administrative processing to do and the various demands of students but they cannot do all of them. Our school started with the dedication of teachers. But, there is a limit in sustaining the prevention of study suspension on the basis of the dedic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both the active support of government and the efforts of local society which prevent and cure the burnout of teachers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teachers and sufficient time for teachers.

Kyoung Won Lee Teacher, Jinbu High School

Education

Bachelor degree in Earth Science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of Computer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ooks

Spam Text of Countryside Teacher Spam Text of Countryside Teacher 2



좌장 프로필 Introduction of Session Chairs

제1세션 좌장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실장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연구 분야로 청소년국제교류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프로젝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음.

제 2 세션 좌장

김 성 기 협성대학교 교수

하근

서울대 교육학 박사

겨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저서

초등학교 학생행정 가이드 교육법학 연구동향

제 3 세션 좌장

황 세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하근

영국 바스대학교(University of Bath) 교육학 박사. 환경교육 전공

연구주제

SDGs와 청소년정책, 세계시민교육,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Chair of Session I

Hae-Sub Oh Director, Youth Activities & Participation Research Offic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in National Youth Institute, Sejong, Korea (01/2003-Now). Focused on the Policy for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nd Youth Community Index and Construction Project. Worked as an adjunct professor in Soonchunhyang University

Chair of Session II

Sung Ki Kim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Education

Doctor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Experienc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Researcher Vice Chairman, Korean Education Law Association

Books

Elementary School Student Administration Guide

Education Law Research Trends

Chair of Session III

Se-young Hwang Assistant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ducation

University of Bath

Ph.D. Educational Studies

Research Interest

SDQs and Youth Policy, World Citizen Education,

Developing the Alternative Class Program for School Drop-out Prevention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

인 쇄: 2018년 11월 23일

발 행: 2018년 11월 26일

발행처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층

인쇄처 : ㈜계문사 (02-725-5216)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044-415-2153)